

연구보고서 2006-16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 ‘성공적 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정경희 한경혜
김정석 임정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 리 말

최근 ‘성공적 노화’담론으로 정의될 수 있는 바람직한 노년의 삶과 노인의 모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노인과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되었던 노화가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쇠퇴, 허약함, 퇴화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삶의 단계로 그 이전의 단계와 구분되기 시작하였으며, 노인을 ‘무용’하고 비효율적이며 매력적이지 않은 신경질적이며 노쇠한 존재로 보는 연령차별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은 인구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충분한 노동력이 확보되는 인구구조를 갖고 있는 사회와 ‘선택적 친화력’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는 인구고령화와 가족 및 노동시장의 변화, 경제적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의 변화 등에 대응하는 한 방안으로서 그 동안 사회의 근간을 형성해왔던 중년기와 노년기를 분리하는 연령분리적 사회구성원리와 그를 지원해온 연령차별주의를 벗어나 노년기와 중년층간의 경계를 허물고, 바람직한 노후생활의 모습으로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적 노화’ 담론은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공하고 연령통합적 사회구성원리와 그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는 진일보 한 것이지만, 노인으로부터의 욕구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필요성 때문에 제시된 위로부터의 변화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또한, ‘성공적 노화’에 관한 논의가 가치개입적이고 규범적이며, 성공적 노화 모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노인들을 주변화(marginalize)하고, 지나치게 개인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사회구조적 측면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를 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노년학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성공적 노화’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보고서는 첫

째, 서구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노년기를 보는 다양한 시각과 노인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둘째, 기존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제기해준 성공적 노화 논의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하였다. 셋째, 이러한 이론적 검토에 기초하여 한국에서의 노년기를 보는 시각과 노년기의 정체성에 관한 경험적 검토를 대중매체에서의 논의와 학문적 논의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넷째, 앞에서 이루어진 논의에 기초하여 우리사회에서 성공적 노화 담론이 갖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각각의 내용은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노인과 노년기 문화를 이해하는데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위하여 많은 조언을 주신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미혜 교수님,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욱 교수님,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의 이금룡 교수님과 검토를 해주신 본원의 김미숙 연구위원과 변용찬 연구위원에게 감사하고 있다.

200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목 차

Abstract	9
요 약	11
제1장 서론	35
제2장 노화와 노년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	39
제1절 노화와 노년기를 보는 이론적 시각	39
제2절 노화와 정체성	53
제3장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신노년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62
제1절 성공적 노화 담론의 검토	62
제2절 성공적 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	73
제4장 한국에서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논의	82
제1절 대중매체에서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논의	82
제2절 학문적 논의에서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논의	104
제5장 한국에서 성공적 노화 담론이 갖는 함의	128
참고문헌	131
부 록	137

표 목 차

〈표 1〉 신문매체 등장하는 노인의 이미지	99
〈표 2〉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가 논문제목에 등장한 논문편수, 1993~2006년	107
〈표 3〉 논문제목, 주제어 및 초록에서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 용어 포함여부	110
〈표 4〉 성공적 노화 및 생산적 노화를 제목에 담은 논문	112
〈표 5〉 성공적 노화 및 생산적 노화 제목 논문의 실험적 분류	114
〈표 6〉 노년기를 보는 이론적 시각과 정책적 함의	130

그림 목 차

[그림 1] 발표연도별 ‘성공적 노화’ 및 ‘생산적 노화’ 관련 논문수	105
[그림 2] 학회지별 발표 논문수	106
[그림 3] 국문 및 영문 주제어상에 해당 용어 등장 논문편수	108
[그림 4] 국문 및 영문 초록상에 해당 용어 등장 논문 편수	109

부표목차

〈부표 1〉 분석대상 논문 (총 51편)	139
〈부표 2〉 성혜영·유정현, (2002) “성공적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 Q 방법론적 접근	149
〈부표 3〉 김미혜·신경림 (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150
〈부표 4〉 백지은·최혜경 (2005), 한국노인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151

Abstract

Critical Approaches to 'Successful Aging' Discourse

'Successful Aging,' which refers to adaptation to the process of growing old as well as to ways in which individuals can age well, appeared as a response to ageism, which is an instance of the stereotyping of and discrimination against older people solely on the basis of their age. According to Rowe and Kahn, successful aging is the avoidance of susceptibility to disease, a high cognitive capacity, and active engagement with life.

Although 'Successful Aging' discourse can reduce the stereotyping of older people and lead to age-integrated society, it can also criticize and marginalize older people who do not experience successful aging. Also, by focusing on individual responsibility, it can disregard socio-structural factors which have huge influences on older people's lives.

Recently, in Korea, 'Successful Aging' discourse became popular without critical review of its main ideas and implications.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comprehensively the ideas of 'Successful Aging' and the implications of 'Successful Aging' discourse in Korea.

This study is composed of four parts. First, theories regarding aging and identity are reviewed. Second, critical reviews of successful aging approaches are conducted. Third, empirical studies such as contents analysis of the articles of major daily newspapers and academic journals are conducted. Fourth and last, in the concluding part, implications of 'successful aging' discourses for our society are reviewed.

요약

제1절 서론

-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 담론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고자 함.
 - 첫째, 서구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노년기를 보는 다양한 시각과 노인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여 성공적 노화 담론의 이론적·경험적 함의를 찾는데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둘째, 노년기를 보는 시각 중 기존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제기해준 성공적 노화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실시함.
 - 셋째, 이론적 검토에 기초하여 한국에서의 노년기를 보는 시각과 노년기의 정체성에 관한 경험적 검토를 하고자 함. 이는 구체적으로 대중매체에서의 논의, 학문적 논의에 대한 검토로 구성됨. 이를 위하여 문헌고찰, 대중매체 및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대한 내용 분석 등이 이루어짐.
 - 넷째, 앞에서 이루어진 논의에 기초하여 우리사회에서 성공적 노화 담론이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함.

제2절 노화와 노년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서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패러다임의 변화, 즉, 노인을 기존의 긍정적·독립적 존재로 보는 시각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진 맥락과 의미, 한계에 대한 지적 등을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해 보고자 함.
 - 인구고령화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 (또는 새로운 위기)에 대하여 사회가 대처하는 시각에 대한 논의

- 사회구성원 각각이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여 가느냐에 대한 논의

1. 노화와 노년기를 보는 이론적 시각

가. 역할과 활동 이론

- 노화와 노년기에 대한 초기 이론은 “적응”(adjustment)에 관한 개념을 둘러싸고 진행되어 왔음.
 - 적응 이론은 크게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연령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개인의 기대를 강조하는 것으로 구성됨.
 - 이 이론에 따르면, 노년기 문제는 후기 삶의 과정에서 변화하는 역할에 대한 적응의 문제라고 개념화됨.
- 역할이론
 - 연령은 다양한 지위에 대한 자격을 결정짓고, 다양한 역할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며, 사회적 조건에서 사람들의 기대를 형성하게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어 노화에 잘 적응하는 것은 이후 여생의 역할변화를 어떻게 잘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정함.
 - 연령규범(age norms)은 주어진 연령대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거나 해야만 한다는 믿음체계를 가지면서 나이와 관련된 역량과 제한을 가정함. 이러한 연령규범에 의해 노인은 노인에 어울리는 새로운 역할을 사회화 하게 됨.
- 활동이론
 - 노인이 활동적일수록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자아개념, 적응력이 커지므로 연령에 기반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중년기의 행위와 일치하는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개발하고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고안되어짐.
 - 활동이론은 유급노동과 부, 그리고 생산성을 강조하는 서구 사회와 일치

되어 유급노동과 부, 생산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쇠퇴의 증거라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생산성이 삶의 만족도를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믿어옴.

- 그러나 활동이론은 어떻게 개인적인 특성과 사회경제적 상태,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의 변수가 삶의 만족도, 건강, 복지에 있어 보다 중요하게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나. 노화 및 노년기 이론의 변환

□ 분리이론

- 분리라는 것은 노년기 이전의 역할을 철회하는 과정에 적응함과 동시에 노인이 자기 가치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적응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활동이론과 달리 분리이론은 노년기를 중년기의 확장이 아닌, 분리된 삶의 기간으로 간주함.
- 그러나, 분리이론은 체계와 개인 수준의 변화를 모두 설명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고, 노인 집단 내 개인의 선호와 인구학적 특성, 사회문화적 구조와 환경적 기회에서의 차이 등을 설명하는데 실패함.

□ 지속이론

- 인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큰 변화를 하지 않으며, 성인기 동안 형성된 특성을 유지하므로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인생경험과 비슷한 활동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함.
- 지속이론은 일정정도 액면 타당도를 갖고 있으나 개인의 노화에 대한 반응은 생애기간동안의 지속적인 행위 패턴과 생물학적·심리적인 변화간의 상호관계에 의해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검증되기 어려움.
- 또한 지속이론은 분석단위를 개인에 초점을 둬으로써, 노화과정을 수정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외부 역할을 간과하고 있는 제한점이 있음.

다. 대안적 이론의 관점

□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 노인은 지속적인 사회의 요구에 적응해야만 하는 것을 가정하여 노인들이 경험하는 노화과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환경, 개인, 그리고 이 둘간의 관계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봄.
- 노인의 건강, 사회경제학적 지위, 사회적지지 등의 개인 자원에 따라, 그것을 해석하는 환경적 규범이 다르며, 따라서 삶의 만족도도 이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낙인이론

- 낙인 이론은 사람들이 사회적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개념을 형성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반응하는지에 따라 우리자신을 생각하여 그 결과 우리의 자아개념과 행위가 변화함.

□ 하위문화이론

- 노인이 자신의 하위문화 구성원들을 통해 자아 개념과 사회적 정체성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주장함. 노인들은 다른 연령계층사람들보다는 노인들끼리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동시에 다른 연령계층과 충분히 상호작용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됨.
- 그 결과 첫째, 그들 자신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젊은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둘째, 정치적 영향과 사회행동의 가능성을 만들어 집단의를 만들어감.

□ 연령층화이론

- 이 이론은 한 층화집단의 구성원은 다른 층화집단의 구성원과 삶의 단계 및 경험한 삶의 기간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함. 오늘날 노인 계층은 과거나 미래의 노인계층과 매우 다르며, 또한 노화 과정을 경험하는 것도 다르게 됨.

- 결국 이러한 차이는 미래 세대의 동년배의 경험과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따라서 동년배는 연령 계층을 연속적으로 이동하여, 이전의 동년배 집단이 보던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나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정도에 따라 그 조건을 변화시킨다는 것.

□ 구조적 지체

- 구조적 지체는 사회구조가 인구집단과 개인의 삶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되므로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사회 구조가 개인의 삶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연령 통합적 정책을 발전시킴으로써 구조적 지체를 상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 사회교환이론

-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철회와 고립은 체계적 욕구나 개인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한 사회 내 노인과 다른 구성원들간의 “투자 와 회수”(investments and returns)의 교환과정에 의한 것
- 노화에 따른 기회 구조와 역할, 기술 등이 변화하기 때문에, 노인은 전형적으로 사회관계에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원이 더 적게 되고, 따라서 그들의 지위가 낮아지게 됨.
- 그러나 노인이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자원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존경과 인정, 사랑, 현명함, 자원봉사 활동력과 같은 비물질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한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우리사회가 가치있다고 판단하는 비물질적 자원을 최대화하는 것에 목표를 둬.

□ 정치경제학적 접근

- 사람들이 어떻게 노년기에 적응하며 사회적 자원이 어떻게 할당되어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구조적 특성이므로, 정치경제학적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급이 노인이 가치 있는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적 장애물임.
-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제약요인이 노화의 경험을 만들어 내고 이것은 연령뿐만 아니라 계급, 성, 인종, 민족에 의해 유형화

되며, 경제 또는 사회정책에 의해 제도화되고 강화되는 이러한 구조적 요인은 기회와 선택 그리고 후기 삶의 경험을 제한하게 됨.

□ 생애경로적 관점

- 생애경로적 관점은 이론이라기보다는 설명이 필요한 일련의 문제들을 지적하는 증거들임.
- 이 관점은 이론적 모델에 역사적, 사회구조적, 그리고 개인적 의미가 미치는 영향을 통합함으로써,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의 분석 모두에 있어 사회학적 사고와 심리학적 사고를 연결시킴.
- 이 관점은 생애기간동안 역할 변화와 역할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인간발달은 생애 한 부분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거쳐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제안함.
- 따라서 인간발달은 어떤 기능은 지속성을 가지고, 어떤 기능은 하강하며, 어떤 기능은 증진되는 다중방향성을 가지게 됨.

2. 노화와 정체성

가. 자아형성의 과정

-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대표학자인 미드(G. H. Mead)는 진정한 나는 주체적 자아(I)와 객체적 자아(me)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며, 이 때의 'I'는 다른 사람의 태도에 대한 나의 반응이고 'me'는 그 사회의 법률과 관습과 조직화된 규약과 기대가 반영된 자아인 것으로 봄.
- 자아는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는 "Me"와 이에 대해 주체적으로 대처하려는 "I"의 결합으로 드러나며, 행위는 외적 환경 내지 상황이 제공하는 자극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함으로써 나타남.
- 노년기의 자아정체성도 지금까지 형성되어온 "I"가 '노인'이라는 사회적 정의인 "Me"에 대한 대응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노년기의 자아정체성은 사회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임.

나. 자아의 연속성과 비연속성

- 노인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경험이나 의미의 한 범주로써 노화나 나이를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무연령적(ageless)인 것으로 표현함.
- 노년기를 구별되는 단계로 보는 일반적인 개념과는 달리, 노인들은 삶의 변화 속에서도 자아의 연속성을 강조함.

다. 자아의 다차원성

- 일반적으로 자아는 다음과 같은 3차원을 갖고 있음.
 - 첫째는 인지적(cognitive) 차원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의 내용
 - 둘째는 감정적인(affective) 차원으로 자신에 대한 자기평가
 - 셋째는 능동적(conative) 측면으로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자신의 인식, 사회적인 비교, 자신존중감을 고양하기 위한 것임.
- 관찰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지속적이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아는 계속 변화함.
 - 그러나 전반적인 자아감은 안정적인 편이며, 개인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함.
 - 따라서 노인들에게 있어서 전생애과정에서 자아의 안정성과 변화의 정도는 경험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음.

라. 정체성의 유동성과 안정성

- 노화하는 개인이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안정성과 유동성의 결합이 필요함.
 - 개인이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사회를 살고 있을 때는 의존할 만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큰 의미를 갖게 되지만, 정체성을 고착화하려는 시도가 강압적인 것으로 변화하면 안정성 자체가 자아

를 제한하고 왜곡시킴.

- 개인이 건강, 연금, 사회보호정책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안에 위치하게 되면 은퇴에 다른 지위의 상실에 따라 자신을 비생산적이고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라고 느끼고 이러한 사회구조는 자아를 억압으로 힘으로 이해되고, 교육과 건강서비스가 미래의 노동력에 대한 경제적인 투자로 인식된다면 정치경제적 접근이 예측하는 것처럼 노인을 주변화하게 됨.

마. 노년기의 제도화

-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되었던 노화가 20세기에 들어와 다른 삶의 단계와 구분되는 독특한 독립적인 삶의 시기로 규정됨.
 - 이는 산업화의 진전과 노령보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회적 움직임과 엮물려 있음.

바. 노후의 자아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노후의 자아형성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중 연령과 성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큼.
- 연대기적 연령(chronological age)
 - 연대기적 연령 자체보다는 이와 연계되어 있는 육체적, 심리적인 변화와 개개인이 맡아온 사회적 역할 과정 등을 나타내는 한 지표로서만 의미가 있음.
 - 주관적으로 자신을 ‘노인’으로 규정하게 되는 시기는 남성의 경우 은퇴, 여성의 경우 배우자 사망 등이 주요 계기이며, 사회경제적 위상의 변화, 처음으로 고령자 할인혜택을 받았을 때 등의 계기가 자신을 노인으로 규정하게 되는 시점임.
- 성에 따른 자아감
 -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고 남성은

- 자신의 지위나 사회구조 속에서의 성취에 더 관심을 두는 데에 비하여 여성은 대인관계의 측면에 더 초점을 두고 자신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남성노인의 자아감은 생애초기의 경험과 그로 인한 결과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비하여 여성노인들은 현재의 상황적 요인- 육체적 변화, 노화에 따른 역할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음.

사. 노인들의 정체성 확보 방법

- 노인들이 연령차별주의적 사회에서 노화에 따른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노화를 하나의 가면으로 설명.
 - 노화라고 하는 신체적인 과정은 젊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진정한 자아와 대비되어 나이든(나쁜) 외관 뒤에 숨어있는 젊은(좋은) 정체성을 ‘보는’ 것임.
 - 두 번째, 노화를 은폐(masquerade)로 봄.
 - 은폐를 통하여 성숙한 자아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함.
 - 은폐는 사회에 만연해있는 연령차별주의와 노화에 동반하는 인성의 완성도 제고 사이의 모순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
 - 세 번째, 이야기체의 노화(narrative ageing).
 - 정체성은 현재의 문화적 소재나 자기발명의 산물로 개인적인 과거의 요소들은 현재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자아를 형성한다고 봄.
 - 현대사회는 너무 많은 다의미성과 해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들 중 개인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음.
- 노화와 정체성을 둘러싼 입장의 검토를 통해서 도출되는 중요 이슈
 - 첫째, 노화과정에서 안정성과 유동성이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론적 입장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음. 비판적으로 노화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안정성과 유동성에 대한 관심이 모두 필요함.
 - 둘째, 노인들이 당면하는 특별한 삶의 도전과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신

체적인 변화, 사회적 태도, 물질적인 불평등에 의하여 자아의 표현이 제한 받는다는 점에 강조를 두어야 함.

- 즉, 주어진 특정 사회, 문화 역사적 여건 하에서, 연령에 관하여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여보아야 함.

제3절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성공적 노화 담론의 검토

가. 노년기 적응

-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도되기 전부터, 발달심리학에서는 인간발달 단계 중 노년기의 발달과업으로서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음.
 - 발달심리학자들이 제시한 성공적인 발달/노화를 종합해보면 노년기에 일어나는 여러 하강적 변화들을 수용하고 그러한 변화에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노년기의 적응문제는 2차 대전 이후 미국노년학자들이 노년에 대한 의학적·사회복지학적 모델을 넘어서서 노화연구의 확장을 시도하면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음.

나. 성공적 노화 모델

- Rowe와 Kahn의 성공적 노화모델
 - 활동적이고 참여적인 노년을 강조하는 논의가 ‘성공적 노화’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신노년학의 패러다임으로서 본격적으로 제시된 것은 1980년대 이후 미국 맥아더 재단이 ‘성공적 노화’라는 타이틀로 묶여지는 일련의

연구를 지원하고 그 결과물이 발표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음.

- Rowe와 Kahn(1998)은 기존 노년학이 노화의 유형을 병리적인 노화와 정상적인 노화로 분류한 것에서 더 나아가, 정상적인 노화의 범주 내에서 추가적인 개념적 구분을 시도함으로써 노인집단의 다양성을 포괄하고자 하였음.
 - 즉, 질병이 없는 상태인 정상적 노화의 범주를 다시 ‘보통의 노화’(usual aging)와 ‘성공적 노화’로 구별할 것을 제안함.
- Rowe와 Kahn은 70대 미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건강상태, 사회관계망, 심리적 특징, 신체적·인지적 기능, 생산적 활동 등의 5가지 영역을 측정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구성하였음.

□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

- 생산적 노화에 관한 논의의 주된 기초를 살펴보면 경제적 효용성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음. 생산적 노화에 대한 논의는 활동이론의 연속선상에서 나이가 들어도 생산성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노년의 개념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임.
- 생산적 노화의 개념정의와 관련해서는 ‘생산적’인 활동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왔음.
 - 생산적 노화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공식적인 노동시장 내에서나 밖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개인이나 가족, 또는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음.
- 생산적 노화에 대한 논의는 학문 영역뿐만 아니라 정책 영역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논의 자체가 최근 전 지구적 차원에서 맞이하고 있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과 직접적으로 맞물려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SOC 모델

- Baltes와 Baltes(1990)는 전생애 발달심리학의 관점에서 성공적 노화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보는 ‘SOC 모델(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적정화 모델)’을 제안하였음.
- 이들은 7가지 전제들을 토대로 성공적 노화를 규정하고, SOC 모델을 통해 성공적 노화를 비롯한 인간의 전생애 발달이 선택(selective), 적정화(optimization), 그리고 보상(compensation)이라는 세 가지 요인과 연관된 과정이라고 설명하였음.
- 노화에 따른 적응과정
 - 첫째, 선택(selection)은 나이듦에 따라 쇠퇴 및 감소분이 증가하면서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만 선택적으로 남겨놓고 다른 영역은 무시하는 전략
 - 둘째, 적정화(optimization)는 개인의 잠재력을 활성화하고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으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셋째, 보상(compensation)은 생물학적·사회적·정신적·인지적 기능의 상실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학습이나 보조기구나 외부적 도움, 심리적 보상기제 등으로 상실을 보상하는 전략을 의미
- SOC 모델은 노화에 따른 상실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능력에 적합한 활동을 선택하고 보유한 기술을 최적화하며 상실한 것을 보상함으로써 성공적 노화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함.

□ 성공적 노화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음.

- Baltes와 Bates(1990)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성공적 노화의 지표로서 제시된 개념들을 종합하여 수명(length of life), 생물학적 건강(biological health), 정신건강(mental health), 인지적 효능(cognitive efficacy),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 및 생산성(productivity), 개인적 통제(personal control), 생활만족

(life satisfaction) 등 7가지로 제시하였음.

- Rowe와 Kahn(1998)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공적 노화의 요소를 질병과 장애를 위험이 적고 높은 수준의 인지적·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며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제시함.
- 다양한 성공적 노화 개념들은 질병이나 장애 없이 건강한 것, 통제 및 성장, 삶에의 적극적 참여, 독립성 등과 같은 몇 개의 주요한 아이디어로 수렴됨.
- 이러한 개념들이 내포하고 있는 강조점은 가능한 한 쇠퇴를 지연하고 긍정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음.

□ 성공적 노화에 대한 서구의 경험적 연구

- 성공적 노화의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노인들의 노화 유형과 성공적 노화 정도를 살펴보는 연구와 노인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규명하는 연구로 크게 구분됨.
- 전자의 연구들은 주로 Rowe와 Kahn(1998)의 성공적 노화모형을 토대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성공적 노화의 지표로 신체적·인지적 기능, 사회적 참여, 정서적·심리적 복지상태 등이 제시됨.
-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노인들의 주관적 인식에 초점을 둔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노인들의 개념과 기존의 성공적 노화 모델이 제시한 개념이 상이함을 지적하고 성공적 노화가 문화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개념임을 강조함.
- 성공적 노화를 특정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정의할 경우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노인들이 거의 없지만, 실제 노인들은 성공적 노화를 전자의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적응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을 통해 더 많은 노인들이 성공적으로 노화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결론지음.

2. 성공적 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

- 성공적 노화 모델은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고 노년의 잠재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측면에서 한계점들이 지적됨.
 - 첫째,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논의 자체가 가치개입적이고 규범적임.
 - 성공적 노화의 규범성은 그 모델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른 가치들을 간과함으로써 보다 성찰적인 노화를 저해하고, 모델이 제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자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둘째, 성공적 노화 모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노인들을 주변화함.
 - 성공적 노화를 위한 기준들이 지나치게 이상적이어서 젊은 사람들조차 따라가기 어려운 도달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셋째, 성공적 노화의 개념들이 노화에 따른 여러 측면의 상실을 막고 지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상실의 복합적 의미에 대해 간과하고 있음.
 - 넷째, 성공적 노화모델이 지나치게 개인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사회구조적 측면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
 - 다섯째, 성공적 노화 담론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개인의 노력과 책임을 강조하는 신노년학의 기조가 국가의 복지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 전략에 쉽게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음.
- 성공적 노화 또는 생산적 노화 담론이 노인들 스스로의 필요보다는 고령화 위기와 같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담론들의 핵심이 '자기감시'이며 이를 위한 전문가적인 근거와 기술들을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사회통제라고 봄.
 - 또한 '의존'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독립이나 생산성'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 성공적 노화의 담론이 갖고 있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비판함.

제4절 한국에서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논의

1. 대중매체에서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논의

가. 문제제기

- 대중매체가 사회적 인식과 개인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대중매체인 신문매체들이 신노년층의 문화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서구의 성공적 노화의 담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아울러 이러한 신노년층 문화의 담론들이 노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함.

나. 대중매체가 사회적 인식 및 자아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 기든스(1997)는 라이프스타일이란 물려받거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에서의 ‘선택’을 내포하며, 관행화된 습관이자 의상, 식사, 행동양식, 타인과의 만남에서 선호되는 환경 따위의 습관들 속으로 결합된 관행이라 말하며,
 - 라이프스타일의 선택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한 결정으로, 한 개인이 활동하는 환경이 탈전통적일수록 라이프스타일은 자아정체성의 형성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대중매체는 오락과 자기계발의 가능성,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우리에게 경험의 틀 또는 문화적 윤곽을 제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함.
- 전반적으로 매체는 사회의 주도권을 쥔 집단의 견해를 반영함. 따라서 매체를 누가 소유하는가 하는 문제와 매체가 다양한 견해를 어느 정도 표현하고 수용하는가가 ‘대중매체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임.

-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은 일정한 구조에 의해 지배되는 노동영역보다는 소비의 영역에서 더욱 적용되기 쉬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라이프스타일 선택의 문제는 여가시간이 많은 노인들에게 더욱 첨예한 문제이며, 이러한 라이프스타일 선택과 그에 수반하는 가치관 수용에 있어서 노인들은 대중매체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을 수 있음.

다. 연구방법

- 1996년부터 2006년 7월 현재까지, 주요일간지인 한겨레신문·조선일보·동아일보의 기사본문에 ‘노인’, ‘노년’, ‘노후’, ‘실버’, ‘신노년’, ‘신세대 노인’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사 중에서 노인, 노후, 노년기 생활, 나이듦 등을 주제로 한 기사를 대상으로 그 내용을 분석함.

라. 기사내용의 전반적인 동향

- 90년대 중후반의 노인에 관한 기사는 노인 소외, 빈곤, 치매, 자살, 학대, 우울증 등의 ‘노인문제’를 다룬 기사와 함께 대체로 열악한 노인복지현실을 지적하면서 더 이상 노인문제를 가정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식의 기사들이 기조를 이룸.
- 고령화사회로 접어들 2000년도 이후부터는 고령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
 - 특히 2004년부터는 저출산·고령화가 키워드가 되어 고령화위기관이 기사 전반의 기조를 이룸.
 - 새로운 노인문화와 ‘노후’에 대한 관심은 “즐겁고 행복한” 노년 또는 “아름다운” 노인이 되기 위한 비결, 노화를 막고 젊게 사는 비결과 같은 유의, 일종의 ‘노년생활 지침’을 제시하는 기사들의 등장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독립성과 생산성, 개성과 다양성 등을 강조하는 서구적 담론들이 함께 유입됨.

마. 신노년층 문화의 주요 테마들

□ 늙음에 대한 부정

- “집에서 하는 일 없는” 보통 노인들의 이미지와 대조적으로 “여전히 젊은 이처럼 일하는” 노인, “젊은 감각을 가진” 노인, 젊은이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문화를 동일하게 향유하는 노인들로 그려짐.
- 이러한 기사들은 주로 젊은 감각도 훈련과 재사회화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노인들도 젊은이들과 자주 접촉하며 젊은이 문화에 꾸준히 관심을 가진다면 젊은이 따라잡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

□ 건강에 대한 관심

- 연령에 비하여 예외적인 건강을 자랑하는 노인을 소개하는 기사물이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꾸준한 신체적 단련을 하는 노인들의 모습, 그리고 노인의 건강 돌보기 방법에 대한 기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 즉,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임. 건강에 대한 관심은 외모에 대한 관심에까지 확장됨.

□ 자원봉사

- 자원봉사는 ‘젊게 사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노년의 의미가 모호해진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기여를 통해 노인들 자신의 존재 또는 가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형적인 소재로 제시됨.

□ “일하는 노년이 아름답다”

- 2000년도에 ‘국민의 정부’가 ‘생산적 복지’를 복지정책의 기조로 삼았던 것과 맥을 같이 하여 기존의 사회적 지위에 개의치 않고 은퇴 후에 새로운 일거리를 찾은 노인들, 은퇴농장 일이나 창업 등으로 ‘제2의 인생’을 보내는 노인들에 대한 기사가 다수 등장함.
- “노인도 사회에 부담만 되지 말고 기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함.

□ 배움에 대한 열정

- 배움 역시 일종의 젊게 사는 비결 또는 소외되고 무료한 노년의 해법으로 제시함.

- 따라서 배움을 중심으로 한 생활양식은 기존의 고정관념적인 노년의 삶과 대조를 이루며 소개되는 경향이 있음.

□ 개인 중심의 삶

- 신노년층의 생활양식을 살펴보면 자녀, 가족 중심의 삶으로부터 개인으로 삶의 중심점이 옮겨감.
- 최근에 올수록 경제력을 갖춘 노인층이 증가하면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고급 실버타운’에서 살거나 여행이나 취미생활로 자기 자신 또는 부부 둘만의 삶을 즐기는 노인들에 대한 기사들이 증가함.
- 특히 ‘노후대비’ 혹은 ‘노후준비’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의 기사에서 노후의 경제적인 대비로 등치되어 사용되고 있음. 이를 주제로 한 기사들에서는 ‘노테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노후의 삶은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며 개인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음.

바. 신노년층 문화의 담론

□ 바쁜 노인들

- 이상의 테마들이 모여서 제시하는 신노년은 매우 ‘바쁜’ 노인들로, 활동적이고 참여하는 삶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함.
 - 일 중심 윤리(work ethics)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바쁘다는 것은 현역에서 은퇴는 하였지만 무엇인가 생산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노인들에게 삶의 연속성을 부여함.

□ 자기계발과 자기관리

- 신노년층의 또 다른 공통적인 모습은 자기계발과 자기관리에 힘쓰는 노인들이라는 점.
- 이들은 매일 꾸준히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음. 그리고 은퇴 후에도 자원봉사나 재취업 등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임.

- ‘성공적인’ 노년은 개인이 얼마나 노력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였는가에 달려있다고 봄.

□ 신노년과 구노년의 대비

- 한편으로 노인 빈곤, 자살, 소외, 요양보호 등의 ‘노인문제’를 다루는 기사들도 꾸준히 등장함.
- 통계치나 연구결과 등에 대한 보도에서 드러나는 ‘보통’ 노인들의 현실은 여전히 아프고 가난하고 외로운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신문매체에 등장하는 노인집단은 신노인과 구노인으로 양분된다고 할 수 있음. 기사에서 드러나는 신노인과 구노인의 특징은 긍정과 부정이라는 이분법적인 이미지로 나타남.
- 대중매체에서 부각되는 노인집단의 분리구도는 성공적 노화 모델에서 노인들을 ‘성공적으로’ 노화한 노인과 ‘보통으로’ 노화한 노인을 구분하는 것과 매우 유사함.
- 이러한 구도에는 집단 간 극명한 차이만 강조 될 뿐 양자간의 간극이 어떻게 메워질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음.
 - 오히려 대중매체에서는 자기책임의 논리가 더욱 강조되면서 신노년의 삶을 살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한 질책, 즉, 구노년에 속하는 노인들의 ‘불성실’과 ‘게으름’에 대한 비난이 더욱 적나라하게 제기됨.

사. 소결

-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 성취지향성을 강조하는 사회로 변화하고는 있으나 아직 집합주의적 생각이나 가족주의 등 전통적 가치가 공존하고 있음.
 - 우리사회의 전반적 문화 지향성이 서구적 문화, 젊은이 중심 문화로 바뀌는 것도 쉽지 않은 적응인데, 노년기에 대한 문화까지도 미국식 모델, 담론이 강한 힘으로 확산되는 현실이 노인들을 더욱 어렵게 할 것.
- 또 다른 문제는 우리사회가 서구식의 성공적 노화를 뒷받침할 구조적, 사회

정책적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못하다는 점이며 서구적 ‘성공적 노화’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노화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 문화가 가지는 귀중한 강점을 간과하게 됨.

2. 학문적 논의에서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논의

- 이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와 ‘생산적 노화’에 대한 한국 학계의 인식과 이해를 정리하고 검토하였음.
 - 이를 위해서, 2006년 9월 현재까지 <한국노년학>에 발표되었거나, 학술자료 데이터베이스인 <한국학술정보 KISS>를 통해 접근 가능한 학술논문 중 제목, 주제어, 그리고 본문 속에 ‘성공적 노화’와 ‘생산적 노화’를 담고 있는 논문들을 추출하였음.

가. 성공적 노화 및 생산적 노화 관련 발표논문의 전반적 경향

- ‘성공적 노화’ 나 ‘생산적 노화’ 등의 용어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간헐적으로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본격적으로 논문제목이나 주제어에 등장한 것은 2000년대부터이며 특히 최근에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성공적 노화’와 ‘생산적 노화’가 노인, 노년 및 노후에 관한 전문학술지인 <한국노년학>과 <노인복지연구>를 중심으로 발표되고 논의되지만, 가족관련 전문학술지와 사회체육관련 학회지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논문의 핵심적인 요소를 드러내는 제목, 주제어 및 초록 등을 살펴볼 때 성공적 노후나 생산적 노화에 집중한 논문은 제한적이라 볼 수 있음.

나. 성공적 노화 및 생산적 노화 관련 발표논문의 세부분석

- 논문제목과 국영문주제어, 국영문초록에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라는 용

어를 포함한 총 24편의 논문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봄.

-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를 제목에 담은 논문들은 두 편을 제외하고 모두 2002년 이후에 출간된 논문들임.
- 논문들은 성공적 노화를 다루는가와 생산적 노화를 다루는가에 따라 구분됨.

□ 성공적 노화 정의

- 문헌검토와 평가를 통해 저자들은 성공적 노화가 결과가 아닌 적응과정(계속적인 성장발달)으로, 이에 이르는 하나의 정상적인 길은 없다고 보고 노인마다 성공적 노화의 방법이 다를 것을 강조.
-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노화란 과거와 현재를 수용하고 가까이 닦친 죽음을 받아들이며 동시에 삶의 의미나 목적을 잃지 않고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심리적인 발달과정이며 또한 정신, 신체상의 질병이 없어 기능적이며, 사회 관계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개념적인 정의를 내리며 개인적인 자원, 적응과정, 심리적 측면에서 점수가 높으면 성공적인 노화”인 것으로 봄.

□ 성공적 노화 상태 및 구성 요인

- 성공적 노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양적 방법론에 의존하든, 질적 방법론에 의존하든 서구사회에서 개발된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척도가 한국노인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공통된 출발점으로 보임.

□ 성공적 노화 모형의 응용

- 홍현방(2002, 2003, 2004)은 세 편의 논문에서 성공적 노화를 자아통합의 정도로 정의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과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함.
- 하정연·오윤자(2003)는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SOC척도를 설정하고 있고 이러한 척도는 임의적 선택, 상실에 기반을 둔 선택, 적정화, 보상의 하위척도로 재구성되며, 각 하위척도는 12문항씩 총 4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 연구는 SOC의 책략수준을 3분하여 각 군집별 책략점수와 성공적 노화관련문항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음.

- 김미혜·신경림·최혜경·강미선(2005)은 성공적 노후의 구성요소를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 자기통제를 잘 하는 삶의 네 가지로 보고 이를 통해 노인들의 현재의 삶이 각 성공적 노후요소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김미혜·신경림·강미선·강인(2006)은 이전 연구에서 밝혔던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에 따라 경제, 건강, 정서 영역의 주부양제공자와 부부양제공자로부터의 도움여부와 대체부양제공자를 분석하고 있음.
- 성혜영·조희선(2005)은 Rowe & Kahn의 구성요소(건강상태, 사회관계망의 특징, 심리적 특징, 신체적·인지적 기능, 생산적 활동의 5개 영역)간의 영향력 및 관련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성공적 노화의 세 가지 이론적 요소가 ‘질병과 장애의 부재 및 그 위험요소가 없는 것’ ‘높은 신체적·인지적 기능’ ‘적극적 인생참여’ 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음.

□ 성공적 노화의 기타 연구들

- 최근하(1993)의 연구는 다른 연구에 비해 다소 오래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제시한 후, 노화의 경제적 안정을 성취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 김영선·윤진(1997)은 Baltes의 성공적인 노화이론을 중고령근로자의 직무적응에 응용하면서, 중고령근로자(40~60세 기업체 근무자)의 특성(일반잠재능력과 직무요구수준)이 성공적인 직무적응(직무능력유지와 정서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로서 SOC책략을 설정하고 있음.
- 나향진(2002)은 성공적 노화와 여가활동간의 관계에 주목함. 그러나 이 연구는 성공적 노화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논의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삶의 질’을 오히려 더 중요한 개념으로 삼고 있어 앞서 살펴본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와는 성격이 다를 수 있음.
- 박수경·문수경(2005)은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신체적 건강을 강조하는 상태에서는 장애인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성공적 노화

에서 심리적 요인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장애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고 주장함.

- 고대선·원영신(2005)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의 의미를 탐색하고 있음. 그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노인들이 질병피해가기(운동, 영양보충, 종교), 활동적인 인생참여(프로그램참여, 사회적 관계형성) 신체적 기능유지(바쁜 일상, 규칙적인 생활)등을 통해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함.
- 원형중(2005)은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여가의 필요성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고독, 무력, 우울 등이 여가만족에 영향을 주며, 여가만족은 다시 생활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모형을 설정하고 있음.

□ 생산적 노화의 연구

- 김상호와 김형수는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합리적 방안으로 생산적 노화를 주목하고 있음. 이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취업을 통해 생산적 인간으로서의 유용성과 성취감을 갖고자 재취업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노인들에게 근로를 통한 소득창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노인 소득보장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함.

□ 다수의 연구들이 한국적인 맥락에서 성공적 노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파악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시도는 매우 유의미한 활동임.

- 이러한 노력들이 축적되고 확장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한국적 상황에서의 성공적 노화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또 한편으로 성공적 노화 자체에 담긴 함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됨.

제5절 한국에서의 성공적 노화 담론이 갖는 함의

- 첫째, 성공적인 노화 담론은 어떠한 노년기가 잘 노화(aging well)하는 것인가에 대해 누구의 관점인가에 대한 논의를 전면에서 부각시키는 계기를 제공

- 둘째로, 서구에서의 성공적 노화와 한국에서의 성공적 노화는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맥락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함.
- 세 번째로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경험적 접근에 있어서 양적 접근에서 벗어나 질적 접근이 필요함.
 - 전문가에 의한 성공적 노화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노인 개개인이 어떠한 노년기를 영위하며 어떠한 내용의 정체성을 유지 또는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질적인 접근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할 수 있음.
- ‘성공적 노화’를 둘러싼 논의는 성공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이해 없이 이용됨으로써 성공적 노화를 하는 노인은 사회에 기여를 하는 일등시민이며, 그렇지 못한 노인들은 사회에 불필요한 이등시민으로 인식되고, 따라서 사회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노화와 노년기를 보는 이론적 시각에 따라 우선순위의 설정이 달라질 수 있음.
 - Rowe and Kahn의 논의에 따르면 노화에 있어 건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개별 정책 중 건강증진 정책이 가장 우선순위를 갖게 됨.
 - 반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근로자로서의 역할에서 찾는 생산적 노화론에 따르면 연령차별적 사회에서 이루어진 교육-노동-은퇴라는 3단계 중(Riley & Riley, 2000) 노동의 단계를 가장 중요시하며 그 기간을 가능한한 확장하기 위한 정책에 무게가 실리게 됨.
 - 급진노년학에서는 개별적인 정책보다는 전생애에 걸쳐 경험하고 누적되어 온 불평등이 발현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노년기의 불평등에 초점을 두고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 변화에 우선순위를 두게 됨.
 - 또한 의식적 노화론에서는 삶을 관조하는 명상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대응에 주목하며,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새로운 연령철학을 정립할 것을 요구함.

제 1 장 서론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되었던 노화가 20세기에 들어와 쇠퇴, 허약함, 퇴화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이전의 삶의 단계와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노년기가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노동시장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기로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서 노동시장에 머무는 ‘중년층’과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노년기’를 구분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에 의하여 노년기가 그 전 단계와 구분되는 삶의 단계로 구분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노년기’의 제도화에 따라서 노후의 소득상실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변화 외에도 일터로부터의 분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제로 노인에 대한 차별주의(ageism)를 강화하게 되었다(Hummert et al., 1994; Law, 1995). 노인을 ‘무용’하고 비효율적이며 매력적이지 않은 신경질적이며 노쇠한 존재로 보는 연령차별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통상적인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노년기의 확립과 더불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며 그 전에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노년기의 훼손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Haraven, 1995).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은 육체적 노동을 중심으로 하며, 남성은 일터에서 여성은 가정에서 보호노동을 행한다고 하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기초로 하는, 인구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충분한 노동력이 확보되는 인구구조를 갖고 있는 사회와 ‘선택적 친화력’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는 인구고령화와 가족 및 노동시장의 변화, 경제적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동안 사회의 근간을 형성해왔던 중년기와 노년기를 분리하는 연령분리적 사회구성원리와 그를 지원해온 연령차별주의로는 사회의 지속적 발전이 어렵다고 하는 인식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서 노년기와 중년층간의 경계를 허물고, 바람직한 노년기생활의 모습으로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공적 노화’ 담론은 연령통합적 사회구성원리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진일보 한 것이지만, 노인으로부터의 욕구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필요성 때문에 제시된 위로부터의 변화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또한, ‘성공적 노화’에 관한 논의가, 생물학적 나이와 연대기적 나이에만 기초하여 있어 노인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의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태도를 반영하는 주관적 나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령분리적인 사회정책과 연령차별주의와 동일한 한계를 담고 있다. 즉, 특수성(particularism)보다는 보편성(universalism)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의 노인차별주의(ageism)가 될 수 있다. 더불어, 노화라고 하는 과정이 담고 있는 다양한 방향성(multiple directions), 즉, 성장과 쇠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노년학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성공적 노화’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노인인구의 상대적·절대적 수가 증가하고 생애단계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기간이 큰 폭으로 연장되면서 노년기 발달, 즉, 노화에 대한 학문적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러한 흐름과 함께 ‘성공적 노화’로 집약되는 노화모델이 새로운 노년학(New Gerontology)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되면서 많은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고, 이 제목 하에 많은 국제적 수준의 학회가 개최되는 등, 노년학 연구분야의 청사진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흐름에 함께 성공적 노화 획득을 위한 처방전 류의 책이 급증하는 등 대중매체를 통해 관련 주제가 적극적으로 다뤄지면서 이제 ‘성공적 노화’는 미국의 노인문화를 주도해가는 화두가 되고 있다.

국내의 노년학계에서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구의 성공적 노화모델이 소개되고 관련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면서 성공적 노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오고 있다. 또한 수명연장과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구고령화’가 한국사회 초미의 이슈로 부각되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노인들의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을 돕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가 되고 있다.

이처럼 잘 늙는 것(aging well) 또는 성공적 노화의 패러다임은 노년기의 ‘상실, 저하’에 초점을 맞춰온 과거의 패러다임과 비교해 볼 때, 노화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오 타입을 제거하고 노년의 잠재력을 높이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전략에 초점을 둔 예방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한경혜, 2000; Holstein & Minkler, 2003; Minkler & Fadem, 2002). 그러나 극히 최근 들어 서구의 노년학계에서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뚜렷이 합의되지 않은 채 개념정의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더 근본적으로는 그 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성공적 노화 모델이 내포하고 있는 규범성과 가치개입성, 모델이 간과하고 있는 노년기의 현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이 유포됨으로써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 등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경혜(2000)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대중매체에서 부각되고 있는 신노년층 문화와 미국식 성공적 노화개념의 공통점에 대한 탐색과 함께, 성공적 노화담론이 노인의 삶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시론적인 차원에서 제기된 이후에도, 한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담론은 여전히 이러한 노화모델이 가지고 있는 제한점들을 간과한 채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우리사회 역시 앞으로 지향해야 할 새로운 노년학의 패러다임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 담론에 대한 이론적 및 경험적 검토를 실시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서구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노년기를 보는 다양한 시각과 노인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검토한다. 이는 성공적 노화 담론의 이론적 위상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사회적으로 노년기와 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생활양식과 노인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성공적 노화 담론의 이론적·경험적 함의를 찾는 데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노년기를 보는 시각 중 기존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제기해준 성공적 노화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성공적 노화에 관한 논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적 노화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개념만 무비판적으로 인용되고 있으며, 정책 목표이자 노인이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생활양식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로써 작동하고 있으며, 노인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어 관심을 필요로 한다.

셋째, 이러한 이론적 검토에 기초하여 한국에서의 노년기를 보는 시각과 노년기의 정체성에 관한 경험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대중매체에서의 논의, 학문적 논의에 대한 검토로 구성된다. 이를 위하여 문헌고찰, 대중매체 및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대한 내용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넷째, 앞에서 이루어진 논의에 기초하여 우리사회에서 성공적 노화 담론이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내용은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노인과 노년기 문화를 이해하는데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장 노화와 노년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

노인을 부정적·의존적인 존재로 보던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었을 때 서구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사회가 경험하는 문제를 다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점차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갖고 있는 전제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서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패러다임의 변화, 즉, 노인을 기존의 긍정적·독립적 존재로 보는 시각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진 맥락과 의미, 새로운 패러다임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지적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는 인구고령화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 (또는 새로운 위기)에 대하여 사회가 대처하는 시각에 대한 논의와 사회구성원 각각이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여 가는가에 대한 논의로 나누어질 수 있다.

제 1 절 노화와 노년기를 보는 이론적 시각

1. 역할과 활동 이론

노화와 노년기에 대한 초기 이론은 “적응”(adjustment)에 관한 개념을 둘러싸고 진행되어 왔다. 적응 이론은 크게 개인의 특성(건강, 욕구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연령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개인의 기대를 강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왔다. 이 이론에 따르면, 노년기 문제는 후기 삶의 과정에서 변화하는 역할에 대한 적응의 문제라고 개념화 되어진다.

가. 역할 이론

어떻게 노화에 적응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초기 시도 중 하나가 역할이론의 적용이다(Cottrell, 1942). 사실 이 이론은 그 적용가능성과 자기-증명적 본성에 의해 부분적으로 지속되어왔다. 즉, 개인은 누구나 자신의 여생동안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하며 산다. 이러한 역할은 사회적 인간으로서 자신을 규정하고, 자아개념의 근본이 된다. 역할은 어떤 특정 연령이나 발달단계와 관련을 가지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연령은 다양한 지위에 대한 자격을 결정짓고, 다양한 역할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며, 사회적 조건에서 사람들의 기대를 형성하게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노화에 잘 적응하는 것은 이후 여생의 역할변화를 어떻게 잘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연령 규범(age norms)은 어떤 주어진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개방하기도 하고 폐쇄하기도 한다. 즉, 연령규범은 주어진 연령대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거나 해야만 한다는 믿음체계를 가지면서, 나이와 관련된 용량과 제한을 가정한다. “나이에 맞게 행동해라”는 것과 “나이에 적절한 행동”이 생긴다는 것이다. 규범이란 사회정책과 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공식적으로 작동한다.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는 규범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 시계가 내재화 되고, 이를 통해 연령규범이 작동하게 된다(Hagestad & Neugarten, 1985).

모든 사회의 개인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배우고 역할 변화에 적응하며, 낡은 것을 버리고 연령에 적절한 것을 배워 사회에 통합되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연령규범을 가지게 된다. 연령규범에 의해 노인은 노인에 어울리는 새로운 역할을 사회화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은 배우자나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될 때에 대처하기 위한 것을 배워야만 한다. 또한 노인은 기존의 역할이 다른 나이대가 되면 불필요하거나 갈등적일 수 있다는 역할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사실상 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에 중요한 부분이 되었던 역할로부터 분리되어짐에 따라 역할 퇴장(role exit)의 과정이 만들어진다. 은퇴 계획과 같은 개입 등은 점차적으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중단하는 과정이며, 천천

히 여가 역할에 적응하는 과정을 격려하게 된다(Ekerdt & DeViney, 1993).

그러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역할이라는 것이 점점 더 모호해 지며, 역할의 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기대는 점점 덜 분명해 진다(Rosow, 1985). 노인은 가치있는 역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며, 노인의 역할 모델은 거의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여성노인과 같은 집단에게는 새로운 역할로 이동할 수 있는 자원이 결핍되어 있을 수 있다.

다행히도 노인집단의 양적 성장과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확산은 과거에 비해 노인이 가질 수 있는 역할을 더 많이 만들어내며 성공적 노화뿐만 아니라 대안적 역할모델까지 더 많이 만들어 내고 있다. 여기에 ‘의존적 노인’이 더 이상 나이에 따라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정서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애 주기는 사회적 관계에 더 의존하거나 덜 의존하는 기간을 통해 특징지어진다고 할 수 있다. 신체적으로 손상된 노인조차도 다른 사람을 지지해 줄 수 있으며, 집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창조적인 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나. 활동 이론

활동이론 역시 은퇴, 건강, 역할 상실 등과 같은 연령과 관련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주고자 한다. 이 이론은 노인이 후기 삶에 있어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성인기의 확정으로써 노년기를 바라본다. Havighurst(1963, 1968)의 성년기 삶에 대한 캔사스 시 연구에 의하면 ‘잘 적응하는’ 노인은 다양한 생산적인 역할을 하며, 자발적 조직에서의 활동을 통해 연령에 적합한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Bengtson(1969)은 노인이 활동적일수록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자아개념, 그리고 적응력이 더 커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령에 기반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중년기의 행위와 일치하는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개발하고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고안되어졌다. 전반적으로 활동이론은 유급노동과 부, 그리고 생산성을 강조하는 서구 사회와 일치되어 왔다. 유급노동과 부, 생산성을 잃

어버리는 것은 바로 쇠퇴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생산성이 삶의 만족도를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활동이론은 어떻게 개인적인 특성과 사회경제적 상태,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의 변수가 삶의 만족도, 건강, 복지에 있어 보다 중요하게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Covey, 1981). 노인이 가지는 활동에 대한 가치는 노인마다의 삶의 경험, 인구학적 특성, 사회 경제적 자원에 따라 다양해 질 수 있다. 활동이론에 따르면 노화는 전 발달단계와 유사한 지위와 역할,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개별사회 문제로써 정의된다. 이러한 관점에 대한 도전이 분리이론으로 만들어졌는데, 분리이론은 노화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설명변수가 개인으로부터 사회체계로 옮겨가는데 주목을 하고 있다.

2. 노화 및 노년기 이론의 변환

가. 분리이론

분리이론의 발전은 노화 및 노년기에 대한 논의의 비판적 집합으로 대표된다. 그간 노화 및 노년기에 대한 논의가 정책과 실천에 대한 적용 및 정보수집에 그쳤다면, 분리이론은 비로소 자신의 관점을 가진 과학적 활동으로서의 노화이론의 첫 공식적 성명이라고 할 수 있다(Lynott & Lynott, 1996). 사실상 분리이론은 노년학에 있어 처음으로 포괄적이고 분명하며 다학문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Achenbaum & Bengtson, 1994). Cumming과 Henry(1961)는 노화라는 것이 사회 체계의 특성과 분리되어 이해되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모든 사회는 노인으로부터 젊은 세대로 권력이 이양되는 순차적인 방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회체계는 노인을 문제로 다루거나,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제도적 과정을 통해 권력을 천천히 내려놓도록 한다. 따라서 노인은 그들의 활동수준을 낮추고 더욱 수동적인 역할을 찾게 되며, 다른 사람들과 덜 자주 관계를 가지며, 그들 자신의 내부의 삶 속에 몰두하게 된다. 결국 분리라는 것은 노년기 이전의 역할을 철회하는 과정에 적응함과 동시에, 노인이 자기 정체성을 유지

하고자 하는 적응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분리이론은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노인이 잘 적응하기 위하여 ‘바쁘게’ 살아가야 한다는 활동이론의 가정을 도전하게 된다. 활동이론과 달리 분리이론은 노년기를 중년기의 확장이 아닌, 분리된 삶의 기간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분리이론은 많은 노년학자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분리이론은 체계와 개인 수준의 변화를 모두 설명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Achenbaum & Bengtson, 1994). 분리이론과 반대로 노인은 특권과 권력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찾고자 하며, 일을 갖고 건강하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활동을 지속하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결국 성공적인 노화는 사회에 참여하는 노인에 의해 더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분리이론은 노인 집단 내 개인의 선호와 인구학적 특성, 사회문화적 구조와 환경적 기회에서의 차이 등을 설명하는데 실패하였다(Achenbaum & Bengtson, 1994; Estes & Associates, 2000; Marshall, 1994).

그러나, 분리이론이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나타내는 데는 실패하였으나, 명시적이며 다문학적인 이론의 첫 시도로서 노년학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나. 지속이론

지속이론은 적응의 사회심리학적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행위 패턴을 지속한다. 잃어버린 역할에 대하여 비슷한 역할로 대치하며, 자신의 전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환경에 적응한다. 즉, 인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큰 변화를 하지 않으며, 성인기 동안 형성된 특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인생경험과 비슷한 활동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Atchley, 1972; Neugarten, Havinghurst & Tobin, 1968). 기본적으로 이 관점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미 더 젊었을 때 이룩했던 것을 더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에 따라 개인적 특성은 더 분명해 지고,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도 더 완고해진다. 예를 들어, 평생 수동적인 패턴을

가진 사람이 은퇴후에 활동적으로 되기가 쉽지 않고, 다양한 사회 조직에 참여했던 사람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이러한 활동을 유지하기를 원하거나 잃어버린 것을 대치할 새로운 것을 찾게 된다. 개인적 나이는 나이가 들어가는 동안 성공적이고 ‘정상적으로’ 개인적 특성을 통합해 간다(Hooyman & Kiyak, 2005).

지속이론은 조리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정정도 액면 타당도를 가진다. 그러나, 이 이론은 실증적으로 검증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개인의 노화에 대한 반응은 생애기간동안의 지속적인 행위 패턴과 생물학적·심리적인 변화간의 상호관계에 의해 설명되어지기 때문이다. 지속이론의 또 하나의 제한점은 분석단위를 개인에 초점을 뒀으로써, 노화과정을 수정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외부 역할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이론은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자유방임 또는 “살아온 대로 살게 하라”는 접근방법을 합리화할 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3. 대안적 이론의 관점

활동이론, 분리이론 그리고 지속이론은 개인의 행위나 사회체계 또는 사회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정도가 약간 다를지라도, 직접적으로 각각의 이론에 도전을 하면서 발전해 왔다(Hochschild, 1975, 1976; Lynott & Lynott, 1996; Marshall, 1996). 그러나 어떠한 이론도 성공적인 노화를 잘 설명하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구조, 문화, 역사적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이론발달의 초기 과정동안, 최상의 노화와 관련된 요인은 활동이나 철회, 그리고 노화에 적응하는 개인적인 요인이었다. 거시적 현상이 고려된다면, 개인과 사회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개념화할 수 있다. 인종이나 민족 그리고 계급과 같은 요인이 사회구조적 변수로 분명히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많은 대안적 이론의 관점이 1960년대 이후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이론은 노화의 ‘사실’을 설명하고자 하였다(Estes & Associates, 2000; Lynott & Lynott, 1996). 이러한 관점의 대부분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나 노화의 하위문화, 연령계층화, 사회 교환, 그리고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포함하는 거시적 구조 분석을 강조하였다.

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와 하위문화이론

인간-환경관점에서 상호작용주의는 인간-환경 변환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노인과 사회환경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노인은 지속적인 사회의 요구에 적응해야만 하는 것을 가정한다. 노인이 요양원에 가거나 또는 컴퓨터를 배워야 하는 변화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더 큰 환경의 요구에 따라 변화환경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활동이론과 분리이론의 차이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노화에 대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관점은 노인들이 경험하는 노화과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환경, 개인, 그리고 이 둘간의 관계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본다(Gubrium, 1973). 이 관점은 노인이 관심을 가지는 활동 또는 분리의 의미를 고려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Gubrium(1973)은 활동이 어떤 환경에서는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는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노인의 건강, 사회경제학적 지위, 사회적지지 등의 개인 자원에 따라, 그것을 해석하는 환경적 규범이 다르며, 따라서 삶의 만족도도 이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Lynott & Lynott, 1996).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은 자아와 사회 모두라고 본다. 따라서 사회참여에 대한 고무나 철회가 낮은 사회에서는 노화가 개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바꿀 수는 있지만, 결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준거들에 기초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환경적 긴장과 개인의 욕구가 모두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이론에서 나온 낙인 이론은 사람들이 사회적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개념을 형성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반응하는지에 따라 우리 자신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범주에 놓았다면, 사람들은 그 범주에 기초하여 우리를 대하며 그 결과 우리의 자아개념과 행위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이 차를 어디에 주차한 지를 모르는 것은 치매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젊은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바빠서 정신이 없는 걸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노인하위문화이론은 노인이 자신의 하위문화 구성원들을 통해 자아 개념과 사회적 정체성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주장한다(Rose, 1965). 노인이건 아니건 사람들의 행위는 전체적인 사회 기준이나 규범에 의해 평가되어질 수는 없다. 오히려 그 구성원들의 기대의 수준에 의해 평가되어진다. 노인들은 다른 연령계층사람들보다는 노인들끼리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한다. 왜냐하면, 비슷한 문제와 관심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친밀감을 발달시키기 때문이다. 동시에 노인들은 다른 연령계층과 충분히 상호작용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퇴직공동체처럼 자기분리를 하거나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 노인들만 거주하는 농촌지역과 같이 ‘비자발적인’ 분리가 되기 때문이다. 노인하위문화의 형성은 노인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첫째는 그들 자신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젊은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과, 둘째는 정치적 영향과 사회행동의 가능성을 만들어 집단 의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상호작용주의자와 하위문화 관점이 환경을 재구조화하는데 함의를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노화의 경험과 의미를 형성해나가는 보다 넓은 사회구조적 요인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어떻게 개인이 반응할 것인가에 기본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노화에 대한 하위문화이론은 대부분의 노인이 조부모와 같은 세대간 역할과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인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른 역할과 지위로 연속적인 이동을 한다는 연령층화이론이 대두되게 된다.

나. 연령층화이론

한 사회가 사회경제적인 계급, 성, 인종 등으로 층화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젊은층”, “중년층” “노년층”으로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 질 수 있다. 노인층화는 서로 다른 연령 동년배로 정의된다. 이것은 노화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역할이 연령계층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에 대한 노인의 평가

는 활동적이거나 분리되어진 것에 의해 단순히 평가되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연령계층 체계의 변화는 삶의 만족도에 끼치는 개인의 경험에 영향을 준다 (Lynott & Lynott, 1996).

연령층화이론은 개인적 접근으로부터 사회 연령구조적 접근으로 초점을 옮김으로써 활동이론과 분리이론에 도전한다(Marshall, 1996). 또한 연령층화이론은 연령구조를 연령계층별 기대와 보상의 체계로 간주함으로써 동년배집단에 구조적 시간을 더하게 된다(Riley, Johnson, & Foner, 1972).

이 이론은 한 층화집단의 구성원은 다른 층화집단의 구성원과 삶의 단계(젊은층, 중년층, 노년층) 및 경험한 삶의 기간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다. 생애경로와 역사적 영역 모두는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하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는지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역사적 영역에서 기인한 차이는 동년배 흐름(cohort flow)으로 언급된다. 같은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즉, 동년배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 공통된 역사적, 환경적 영향을 공유한다. 그들은 비슷한 사건과 조건 그리고 변화에 노출되고 따라서 비슷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Riley, 1971).

예를 들어, 성인기동안 경제적 번영을 경험한 지금의 젊은 노인층 집단에 비해 대공황 기간을 경험한 후기 노인집단은 경제적 자기 효능감과 ‘힘든 날을 대비한 저축’에 더 가치를 두게 된다(Hooyman & Kiyak, 2005). 이것은 재정과 삶의 스타일에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이해하는데 세대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역사적 사건에 대한 특수한 관계 때문에 오늘날 노인 계층은 과거나 미래의 노인계층과 매우 다르며, 또한 노화 과정을 경험하는 것도 다르게 된다. 이것은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동년배는 집합적으로 노인연령 층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용한 역할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때, 동년배 구성원들은 연령 층화 내의 기존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평균수명과 공식적 교육수준이 증가한 현세대 노령층은 노화되는 과정과 노화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노인연령 층화 체계 자체에 대한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2000년에 퇴직한 노인과 1950년대에 퇴직한 노인 동년배 집단은 같은

집단내에서도 이질적일 수 있지만, 집단간 이질성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다. 즉, 2000년에 퇴직한 노인 동년배는 은퇴와 여가를 더 긍정적으로 간주하고, 신체적으로 활동적이고 더 건강할 수 있으며, 앞서의 동년배에 비해 연령차별금지 운동, 법적 옹호 활동, 정치적 조직화 등을 통해 노동자 및 지역사회참여자로써의 역할에 대한 제한에 더 도전적일 수 있다. 또한 조부모 및 증조부모의 역할이 기대되어지고, 노화와 죽음의 과정에 더 계획적이고 순응적이 될 수 있다 (Hooyman & Kiyak, 2005).

결국 이러한 차이는 미래 세대의 동년배의 경험과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동년배는 연령 계층을 연속적으로 이동하여, 이전의 동년배 집단이 보던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나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정도에 따라 그 조건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연령 층화이론은 구조적, 인구학적, 역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회가 연령을 구조적 지위에 적합한 사람을 만들어 내게 하는데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만든다. 또한, 이러한 연령 구조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층화 이론은 노인집단을 한 사회 체계 내 층화집단의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적극적 참여자로서 간주함으로써, 동년배와 관련된 연령 차이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 들어 구조적 지체(structural lag)의 개념이 연령사회의 관점에서 급부상하고 있다(Riley, Kahn, & Foner, 1994; Riley & Riley, 1994). 구조적 지체는 사회구조가 인구집단과 개인의 삶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된다(Riley & Loscocco, 1994). 예를 들어 기대수명의 증가와 함께 퇴직노인에게 지금의 사회구조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직장과 종교제도, 그리고 자원봉사협회 등이 노인이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사회 구조가 개인의 삶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연령 통합적 정책을 발전시킴으로써 구조적 지체를 상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Estes & Associates, 2000).

다. 사회교환이론

사회교환이론 역시 활동이론과 분리이론을 비판한다. Dowd(1980)는 사회참여에 대한 경제학적 비용-편익 모델을 사용하여 왜 사회적 상호작용과 활동이 연령에 의해 감소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철회와 고립은 체계적 욕구나 개인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한 사회 내 노인과 다른 구성원들간의 '투자'와 '회수(investments and returns)'의 교환과정에 의한 것이다. 노인과 다른 구성원들간의 균형적인 상호작용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적응은 개인간 비용과 편익/보상에 달려있다. 이 때 교환은 사회적 지지와 같은 정서적인 욕구와 자원에 의한 것도 포함한다(Bengtson et al., 1997). 노화에 따른 기회 구조와 역할, 기술 등이 변화하기 때문에, 노인은 전형적으로 사회 관계에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원이 더 적게 되고, 따라서 그들의 지위가 낮아지게 된다(Hendricks, 1995). 교환할 가치가 거의 없는 노인은 퇴직 역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교환공식에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복종하거나 철회할 수밖에 없다(Lynott & Lynott, 1996).

그러나, 노인의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상호호혜적 관계를 유지하고 활동적이고자 노력하며, 삶을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개체이고자 노력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적응력은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과정에 의해 일어난다. 비록 노인이 상호작용 및 교환에 있어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자원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존경과 인정, 사랑, 헌명함, 자원봉사 활동력과 같은 비물질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우리사회가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비물질적 자원을 최대화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예를 들어, 세대간 프로그램의 증가는 세대간 사회적 교환의 양을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Hooyman & Kiyak, 2005). 교환이론은 세대간 사회적 지지, 사회보장과 같은 공공부조정책을 통한 세대간 이전, 그리고 돌봄의 관계를 통한 가족내 이전 등 동시대의 다른 논쟁적 주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라. 노화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권력과 기회구조에 대한 교환이론의 초점은 노화의 정치경제학적 관점과 관련이 있다. 즉, 사람들이 어떻게 노년기에 적응하며, 사회적 자원이 어떻게 할당되어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구조적 특성이라는 것이다. 정치경제학적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층이 노인이 가치있는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라는 것이다(Estes, 2000; Minkler & Eates, 1984; Olson, 1982; Overbo & Minkler, 1993).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제약요인이 노화의 경험을 만들어 내고, 이것은 연령뿐만 아니라 계급, 성, 인종, 민족에 의해 유형화된다. 경제 또는 사회정책에 의해 제도화되고 강화되는 이러한 구조적 요인은 기회와 선택, 그리고 후기 삶의 경험을 제한하게 된다(Bengtson et al., 1997). 이것은 노화의 과정과 개인이 어떻게 적응하는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노인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결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회보장, 의료보험 및 의료급여와 같은 사회적 해결책은 경제적인 욕구가 충족될 동안 노인이 가지는 '사적'인 문제를 영속화시키는 사회통제로서 간주된다(Estes & Associates, 2000; Estes, Linkins, & Binney, 1996; Olson, 1982). Estes와 동료들(1996)은 노인집단의 주변화는 '노인 기업체'의 발달에 의해 조장된다고 주장하면서 정책적 해결이 노인이 직면하는 문제 밑바닥에 있는 불평등과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등한시하고, 노인이 그들의 지위에 적응하도록 통합하고 사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한다.

마. 생애 경로 관점

생애경로적 관점은 이론이라기보다는 설명이 필요한 일련의 문제들을 지적하는 준거틀이라고 할 수 있다(George, 1996). 이 관점은 이론적 모델에 역사적, 사회구조적, 그리고 개인적 의미가 미치는 영향을 통합함으로써,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의 분석 모두에 있어 사회학적 사고와 심리학적 사고를 연결시킨다

(Bengtson et al., 1997; Marshall, 1996). 이 관점은 생애기간동안 역할 변화와 역할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인간발달은 생애 한 부분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거쳐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제안한다. 인간발달은 점증적인 성장이나 변화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없으며, 역할상실과 획득, 지속성과 비지속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적이며 비선형적인 과정에 의해 설명된다. 따라서 인간발달은 어떤 기능은 지속성을 가지고, 어떤 기능은 하강하며, 어떤 기능은 증진되는 다중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노인은 단기 기억은 감소하지만, 여전히 매우 창의적일 수 있다. 또한 발달 유형은 모든 개인에게 같은 것이 아니며, 노인 개인간의 삶의 경로와 전환에 있어 상당한 이질성이 반영되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생애경로적 관점은 생애 기간동안 여성이 저축과 연금 등에 대해 가지는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갖는 축적된 불이익을 검증하는데도 사용되어져 왔다(O'Rand, 1996).

역할이론의 개인주의적 관점에 비해, 생애 경로적 관점은 어떻게 노화가 사회맥락, 역사, 문화적 의미, 사회구조 내에서의 위치 등과 관련하여 관계를 가지고 형성되는지를 설명해 준다. 또한, 어떻게 시간, 기간, 동년배 등이 개인과 사회집단에게 노화 과정을 형성하는지를 설명해 준다(Bengtson & Allen, 1993; Elder, 1992; George, 1993).

최근 연구는 어떻게 성과 인종과 사회계층이 생애 과정을 구조화하고, 노년기의 축적된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Dressler, Minkler, & Yen, 1998; Estes, 2001; O'Rand, 1996).

또한 이러한 접근은 생애과정에 대해 서로 분리된 접근처럼 보인 내용과 방법을 모두 통합하면서 다학문적 영역이 되고 있다(Bengtson et al., 1997). 생애 경로적 관점은 명시적으로 정교하게 이론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생물학적, 심리학적, 신체적, 그리고 사회 변화 등 환경 속 인간(person in environment)이라는 다학문적 접근방법이 개인내 변화, 개인간 차이, 그리고 역사, 사회, 문화적 맥락과 환경 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4. 이론적 관점의 함의

노화와 노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설명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다양한 관점을 강조한다. 노화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고, 왜 발생하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분명한 이론적 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Marshall, 1994). 대신, 이러한 이론이나 개념적 틀은 노화에 대한 개인의 적응이나, 사회구조에 대한 관심, 권력, 경제적 조적, 그리고 이용가능한 방법론, 노화 경험에 대한 의미 반영 등에 대해 강조하는 수준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노화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다양한 시간과 역사적 기간을 가지고 발달되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분리이론은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못했으며, 사회교환이론이나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여전히 조사연구나 사회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이론적 관점은 노화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분석모델, 미래의 연구방향을 위한 준거틀에 기초가 된다(Hendricks, 1992). 사회, 정치, 경제적 조건이 노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적 관점이 개발되거나 이전의 이론이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맥락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노화 과정의 이질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학문간 연구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조사연구는 개인과 거시적 수준의 변화 모두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성과 인종, 계급의 역할을 포함해야 할 것이며, 노화 경험의 역동적 본질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노년기의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 물리적 환경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생산적 노화의 개념과 유급노동 및 무급노동의 역할을 모두 포함하는 생산적 노화의 개념, 죽음이라는 상실을 다루는 과정 등 노화와 노년기에 대한 이론은 사회적 맥락과 관계를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제 2절 노화와 정체성

본 절에서는 개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노화에 따른 변화와 사회구조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아형성의 과정

자아정체성 형성에 관한 가장 흥미있고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의 자아와 사회적 환경간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의 주체로서의 개인의 자아 형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인간은 사물들이 그들에 대하여 갖는 의미들에 근거하여 그 사물들에 대하여 행위한다. 둘째, 이 의미들은 인간사회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셋째, 이 의미들은 각 개인이 자신들이 만나는 기호들을 다룰 때 사용하는 해석과정을 통하여 수정되고 다루어진다.

대표학자인 미드(G. H. Mead)는 진정한 나는 주체적 자아(I)와 객체적 자아(me)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본다. 이 때의 'I'는 다른 사람의 태도에 대한 나의 반응이고, 'Me'는 그 사회의 법률과 관습과 조직화된 규약과 기대가 반영된 자아인 것이다. 미드에게 있어 자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즉, 자아는 'Me'라는 '타인들이 나에 대해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일련의 조직화된 태도들'이라는 측면과 'I'라는 '타인들의 태도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는 측면으로 구성된 변증법적 과정이다. 이때 'Me'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사회적 환경과의 접촉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환경의 반영으로서 형성된다. 반면 'I'는 자아의 불확정적이고 충동적인 측면으로서 사회적이며 관습적인 것을 초월하려고 하며 새로움을 불러일으키려고 함으로써 자유와 주체로서의 느낌을 제공한다(강수택, 1996; 코어저, 1980). 미드에게 있어 자아는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는 'Me'와 이에 대해 주체적으로 대처하려는 'I'의 결합으로 드러나며, 행위는 외적 환경 내지 상황이 제공하는 자극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해석

함으로써 나타난다. 이것은 사회를 개인에 외재하는 환경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참여를 통해 구성되고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사회적 세계, 사회적 과정으로 만든다. 이 과정에서 상징에 의해 매개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부각되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용된 상징들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이 의미의 공통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의사소통이다. 따라서 노년기의 자아정체성도 지금까지 형성되어온 'I'가 '노인'이라는 사회적 정의인 'Me'에 대한 대응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노년기의 자아정체성은 사회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아의 역동적, 해석적, 협상적 측면을 강조하는 Breyspraak(1984)은 인간은 자신을 규정하고 그러한 성격규명을 변화시켜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아감의 형성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인간은 자신을 보호하고 양양시키는 놀랄만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노년기에 어떠한 생활양식을 갖고 생활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노인 개개인의 생각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다기보다는 자신의 생애경험에 기초하여 재구성하게 되어 다양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2. 자아의 다차원성

노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노인이 자아를 어떻게 파악하고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자아는 다음과 같은 3차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첫째는 인지적(cognitive) 차원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의 내용이다. 역할, 사회적인 분류틀, 개인적 특성(개방적, 외향적 등), 성격(섬세함, 분석적 등)을 통하여 파악된다. 둘째는 감정적인(affective) 차원으로 자신에 대한 자기평가이며, 셋째는 능동적(conative) 측면으로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자신의 인식, 사회적인 비교, 자신존중감을 고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찰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지

속적이며 따라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아는 계속 변화한다. 그러나 전반적인 자아감은 안정적인 편이며, 개인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있어서 전생애 과정에서 자아의 안정성과 변화의 정도는 경험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Giarrusso et al., 2001).

3. 자아의 연속성과 비연속성

개인이 갖는 자아 개념에 있어서 생애주기상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Kaufman(1986)은 노인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경험이나 의미의 한 범주으로써 노화나 나이를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무연령적(ageless)인 것으로 표현하곤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아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은 나이를 먹으면서 신체적인 또는 사회적 변화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느낀다. 따라서 어떠한 맥락에서는 ‘늙었다고’ 느끼지만 다른 맥락에서는 자신을 ‘젊다’ ‘늙지 않았다’라고 느끼고 표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즉, 노년기를 구별되는 삶의 단계로 보는 일반적인 개념과는 달리, 노인들은 삶의 변화 속에서도 자아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Kaufman(1986)은 노인들이 지속성을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개인의 삶에서 시간의 경과를 실시간, 사회적 시간, 역사적 시간으로 파악하는데, 이에 덧붙여서 노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시간도 연구대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노화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연령(chronical age)은 의미가 없는 변수이며, 중요한 것은 노인자신이 시간의 경과와 개별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가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활동의 지속성(continuity)이 삶의 질이나 심리적 안녕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지적이 있어 왔지만, 더불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지속성의 의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의할 때 사람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적 실체를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화와 상황적 적응의 결과라고 하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성인의 발달을 사회

적 맥락과 연계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특징은 있지만, 노인의 개인적 삶에 있어서의 일관성과 연속성이라는 이슈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고, 따라서 이 이슈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4. 정체성의 유동성과 안정성

노화하는 개인이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안정성과 유동성의 결합이 필요하다. 만일 고착성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면 사로잡혔다는 느낌이 강할 것이며, 너무 없다면 세계가 과편화되어 불안정해진다.

그런데 이런 유동성과 안정성이 갖는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모던주의 시대에 있어서 정체성의 문제는 개인의 삶의 어떻게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예측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었다면, 포스트모던 시대에 있어 정체성의 문제는 어떻게 고착화를 피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모던주의 시대에는 정체성을 둘러싼 주요 관심사가 개인의 세계를 어떻게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이었기 때문에 비우호적인 환경과 약탈적인 사회변화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해야 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시대에 있어서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피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개인이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사회를 살고 있을 때는 의존할 만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큰 의미를 갖게 되지만, 정체성을 고착화하려는 시도가 강압적인 것으로 변화하면 안정성 자체가 자아를 제한하고 왜곡시키는 감옥이 되고 만다. 개인이 건강, 연금, 사회보호정책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안에 위치하게 되면, 은퇴에 다른 지위의 상실에 따라 자신을 비생산적이고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라고 느끼고 이러한 사회구조는 자아를 억압으로 힘으로 이해된다. 교육과 건강서비스가 미래의 노동력에 대한 경제적인 투자로 인식된다면 정치경제적 접근이 예측하는 것처럼 노인을 주변화하게 된다.

사회적 연령차별에 대한 비판은 노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구조의 억압적인 영향으로부터 노인의 정체성을 해방시키려는 현대적인 관심사로 볼 수 있다. 즉, 연령차별주의에 대한 비판은 개인적·사회적 노화의 가치를 평가절하하

는 연령 정체성의 고착화에 대한 비판이며, 연령에 기초한 정체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연령차별주의는 인간관계에서 청년들이 노인들을 그들과는 다른 집단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구조적인 차원에서는 은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기회나 희망적인 은퇴로서가 아니라 노인을 자긍심과 사회적 가치의 원천으로부터의 격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반-연령차별적인 투쟁은 정체성을 생산과 분리시키려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속이론은 정체성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반-연령차별주의와 정치경제적 접근이 갖고 있는 비판적인 측면은 결하고 있다. 지속성은 성인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작동하는 정체성의 ‘투자’ 모델이다. 지속이론은 노인과 젊은이는 단지 연대기적(chronological)연령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으로 보기 때문에 정체성 자체에 대한 존재론적인 고민은 없다.

5. 노년기의 제도화

특정 사회에서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는 노인 개개인에게는 사회의 법률과 관습과 조직화된 규약과 기대가 반영된 자아인 ‘Me’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이슈와 연결된다. 노년기가 다른 단계와 구분되는 삶의 한 단계로 인식된 것이 20세기 들어와서이다.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되었던 노화가 20세기에 들어와 쇠퇴, 허약함, 퇴화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다른 삶의 단계와 구분되는 독특한 독립적인 삶의 시기로 규정되었다. 이는 산업화의 진전과 노령보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회적 움직임과 엮물려 있다. 노년기가 다른 인생단계와는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 시기라는 인식은 개인적 인식의 차원에서 문화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었고, 궁극적으로는 노인들의 욕구와 그들의 문제를 법제화, 시설의 마련 등을 통하여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은퇴와 사회보장수급 개시라고 하는 제도에 의하여 ‘중년기’와 ‘노년기’가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가정과 일터의 분리의 심화, 일터와 가족 내에서의 연령분리(age segregation)의 출현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통상적인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노년기의 확립과 더불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며, 그 전에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Me'는 없었다. 따라서 노년기의 노인 개개인의 주관적인 자아정체성은 그 개인이 놓여있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아는 경직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인 자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노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사회에서 노인으로 취급받는 개인들은 그러한 이미지를 가진 노인이라는 집단에 들어가지 않고자 노력할 것이며, 연령통합적인 사회로 노년기가 중년기와 구분되지 않는 삶의 흐름 속의 한 단계로 이해되며 노인에 대한 스트레오 타입이 없는 사회라면 자신을 '노인'으로 규정할 것인가 아닌가는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노인이 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Ward, 1977).

6. 노년기의 자아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자아개념은 항상 변화하며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년기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양하다(Breyspraak, 1984). 그 중 연대기적 연령(chronological age)과 성에 대한 논의는 흥미해볼 가치가 있다. 연령과 자아감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연대기적 연령 자체보다는 이와 연계되어 있는 육체적, 심리적인 변화와 개개인이 맡아온 사회적 역할 과정 등을 나타내는 한 지표로서만 의미가 있다 하겠다. 연령군별 자아감의 차이는 자녀의 독립, 노인에 대한 태도, 사회경제적 위상, 다른 사회적 역할 등이 통제되고 나면 사라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실제 이러한 요인들이 주관적인 연령 정체성(age identity)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미국에서 행해진 조사에 의하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연령이 꼭 연대기적 연령과 동일하지는 않았다. 주관적으로 자신을 '노인'으로 규정하게 되는 시기는 남성의 경우 은퇴, 여성의 경우 배우자 사망 등이 주요 계기이며, 사회경제적 위상의 변화, 처음으로 고령자 할인혜택을 받았을 때 등의 계기가 자신을 노인으로 규정하게 되는 시

점이다. 또한 자신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낄만한 집단이 있을 때는 자신을 노인으로 규정하는데 그리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성에 따른 자아감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다. 또한 남성은 자신의 지위나 사회구조 속에서의 성취에 더 관심을 두는 데에 비하여 여성은 대인관계의 측면에 더 초점을 두고 자신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남성노인의 자아감은 생애초기의 경험과 그로 인한 결과들 - 그들의 교육수준이나 월급수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비하여 여성노인들은 현재의 상황적 요인- 육체적 변화, 노화에 따른 역할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여성노인의 경우 육체적 매력의 상실에 의하여 자아감이 영향을 받는데 비하여 남성의 경우는 성적 능력에 기초하여 있다.

Moen(2001)은 생애사에서 중요한 전환점(turning points)이 있고, 여성과 남성에게서 그러한 기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성별화된 생애사(the gendered life course) 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에게 있어서는 결혼과 자녀출산이 중요한 기점이며, 남성과는 달리 여성에게는 이러한 사건이 직업적 경력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노인을 수발하는 것과 건강의 악화나 장애의 발생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인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이러한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덧붙여, 운전능력과 성(sexuality)의 점진적인 변화 또한 성별화되어 있다. 이러한 생애사적인 계기는 행동이나 여건의 변화 등의 객관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주관적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다. 한편 그에 다른 측면은 한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남편의 삶의 변화에 의하여 여성이 더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건이 긍정/부정적으로 인식되는가 여부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자원에 달려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년기의 자아 정체성은 다양한 요인과 생애경험의 누적적인 결과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다양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7. 노인들의 정체성 확보 방법

노인들이 연령차별주의적 사회에서 노화에 따른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상이한 입장이 있다. 첫째 입장은 노인은 ‘노화’된 몸과 소비문화로부터 발생하는 선택지들 사이에서의 증대하는 긴장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긴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화를 하나의 가면으로 설정한다. 노화라고 하는 밖으로 들어난 신체적인 과정은 젊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내면의 진정한 자아와 대비된다. 이러한 ‘노화라는 가면’ 이론은 나이 드는 신체는 내면의 ‘젊은’ 자아가 탈피할 수 없는 새장이 되어버린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의 임무는 나이든(나쁜) 외관 뒤에 숨어있는 젊은(좋은) 정체성을 ‘보는’ 것이다.

두 번째 입장은 노화를 은폐(masquerade)로 보는 것이다. 외관과 정체성을 표면과 내면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며, 노화하는 자아를 검토하기 위하여 은폐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은폐는 사회에 만연해있는 연령차별주의와 노화에 동반하는 인성의 완성도 제고 사이의 모순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Biggs, 1997, 1999). 정체성의 숨겨진 요소와 외부로 들어난 요소간의 구분은 피할 수 없는 노화과정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통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된다. 즉, 은폐(masquerade)를 통하여 성숙한 자아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정체성을 성립하는데 필요한 내적인 공간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각은 내적인 정체성과 외적인 정체성간의 조화를 제고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첫 번째 시각과는 달리, 외적인 것은 매우 유동적이지만, 숨겨진 성숙된 자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연령차별적 사회에서 노인은 젊다고 하는 은폐를 통하여 내적인 노화하는(성숙해가는) 자아를 숨긴다. 따라서 노화에 대한 ‘해결책’은 이러한 내적인 정체성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따라서 은폐가 필요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 입장은 이야기체의 노화(narrative ageing)이다. 정체성은 현재의 문화적 소재나 자기발명의 산물로 개인적인 과거의 요소들은 현재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자아를 형성한다고 본다. 현대 사회는 너무 많은 다의미성과 해석으로 가

특차 있기 때문에 이들 중 개인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접근은 존재와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사이에 비판적 거리두기를 한다는 점에서, 즉, 존재하는 역할과 정체성에 대하여 비판적인 거리를 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구조적인 불평등을 간과하거나 노화과정에서의 정체성을 둘러싼 협상의 필요성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일 위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노화와 정체성을 둘러싼 입장의 검토를 통해서 도출되는 중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화과정에서 안정성과 유동성이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론적 입장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비판적으로 노화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안정성과 유동성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모두 필요하다. 둘째, 노인들이 당면하는 삶의 도전과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신체적인 변화, 사회적 태도, 물질적인 불평등에 의하여 자아의 표현이 제한받는다는 점에 강조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정체성이 사회적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많은 정체성 중 특정한 것이 어떠한 목적에서 누구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선택되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제 3장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신노년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 1절 성공적 노화 담론의 검토

1. 노년기 적응

노화 개념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시도로써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도되기 전부터, 발달심리학에서는 인간발달 단계 중 노년기의 발달과업으로서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일생을 8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당면하는 발달과업을 완수할 때 성공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본 Erikson(1963)은 생애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를 자아통합 대 절망의 시기로, 죽음에 직면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때 자아통합을 획득하고 그렇지 못할 때 절망감에 빠진다고 하였다. 성인기를 초기성인기, 중년기, 노년기로 구분한 Neugarten(1970)은 노년기를 은퇴와 사별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시기로 보았고, Havighurst(1972; 성혜영, 2005에서 재인용)는 노년기의 발달과업을 ① 신체적 기능 및 건강 약화에 대한 적응, ② 은퇴 및 수입감소에 대한 적응, ③ 배우자와의 사별에 대한 적응, ④ 연령집단과 명백한 관계 설정하기, ⑤ 유연한 방법으로 사회적 역할에 적응하기, ⑥ 만족할 만한 신체적 생활 정돈하기 등 6가지로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발달심리학자들이 제시한 성공적인 발달/노화를 종합해보면 노년기에 일어나는 여러 하강적 변화들을 수용하고 그러한 변화에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년기의 적응문제는 2차 대전 이후 미국노년학자들이 노년에 대한 의학적·사회복지학적 모델을 넘어서서 노화연구의 확장을 시도하면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이처럼 노년학자들의 관심이 노년의 '적응'에 모아진 것은 기능주의와 개인주

의, 역할이론 등과 같이 당시 사회과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에서 노년기의 문제, 특히 은퇴 후 적응의 문제를 설명하고자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Katz, 2000).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대표적인 노년기 적응이론이 분리이론(disengagement theory)과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이다. 분리이론(Cumming & Henry, 1961)은 노년을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철회(mutual withdraw)의 시기로 간주하였다. 즉, 노인 개인의 입장에서 생물학적 쇠퇴에 직면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서 물러나는 것이 불가피하며, 사회의 입장에서도 기존의 노인의 자리를 젊은이로 교체하고 노인을 은퇴시키는 것이 사회의 유지에 기능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이론의 기능론적 입장은 많은 실증연구들에서 지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활동을 제한하고 노인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분리이론과 대조적으로 활동이론은 노년기의 적응과정에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Havighurst와 Albrecht (1953)는 노년에도 충분히 활력 있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며, 질병과 쇠퇴를 촉진시키는 것은 노화자체라기보다는 게으름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노년기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지원을 강조하였다. 1960~1970년대에 분리이론에 대한 비판들은 은퇴이후의 삶을 바쁘고 창조적으로 사는 법, 즉, 성공적인 은퇴에 관한 대중서나 철학서와 함께 활동에 대한 이론으로 굳어지면서, 활동이론이 노년기 적응문제의 극복에 대한 지배담론으로 자리 잡았다(Katz, 2000). 비슷한 시기에 노년학 연구에서 또한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Baltes & Baltes, 1990), 이 개념 역시 이러한 활동이론의 맥을 잇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성공적 노화 모델

가. Rowe와 Kahn의 성공적 노화모델

활동적이고 참여적인 노년을 강조하는 논의가 ‘성공적 노화’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신노년학의 패러다임으로서 본격적으로 제시된 것은 1980년대 이후 미

국 맥아더 재단이 ‘성공적 노화’라는 타이틀로 묶여지는 일련의 연구를 지원하고 그 결과물이 발표되면서부터이다.

Rowe와 Kahn (1987)은 기존의 노화 연구들이 노년기의 신체적·인지적 손실을 나이듦에 따라 개인의 통제를 넘어서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간주하고 상실을 지나치게 부각시켰으며,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으므로써 노인집단 내의 다양성을 간과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실증연구들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유전적 요인보다는 라이프스타일이나 삶의 태도, 식습관과 같은 사회적·신체적 습관이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더 중요한 결정 요인임을 밝혔다. 다시 말해서 성공적인 노화는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Rowe와 Kahn(1998)은 또한 기존 노년학이 노화의 유형을 병리적인 노화와 정상적인 노화로 분류한 것에서 더 나아가, 정상적인 노화의 범주 내에서 추가적인 개념적 구분을 시도함으로써 노인집단의 다양성을 포괄하고자 하였다. 즉, 질병이 없는 상태인 정상적 노화의 범주를 다시 ‘보통의 노화’(usual aging)와 ‘성공적 노화’로 구별할 것을 제안하였다. 보통의 노화는 특별한 질환이나 기능장애는 없지만 연령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하강적 변화들로 질환에 걸릴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혹은 사회적 세계의 축소로 고독하고 활기차지 못한 날을 보내는 노년의 모습이다. 반면에 성공적 노화는 우리가 노화의 자연스런 과정으로 여겨오던 이런 일반적 노화를 개인의 노력과 환경의 적절한 통제를 통하여 극복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개념화한 것이다.

Rowe와 Kahn은 70대 미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건강상태, 사회관계망, 심리적 특징, 신체적·인지적 기능, 생산적 활동 등의 5가지 영역을 측정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구성하였다. 즉, 성공적 노화를 ① 질병과 장애를 피하고(low risk of disease and disease-related disability) ② 높은 수준의 인지적,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며 ③ 활기찬 인간관계 및 생산적 활동(productive activity)을 통하여 삶에 대한 적극적 참여(active engagement with life)를 유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는 위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질병과 장애가 없으면 인지적·신체적 기능을 보다 쉽게 유지할 수 있고, 인지적·신체적 기

능을 유지함으로써 삶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공적 노화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있다고 본 이들은 적절한 식습관, 운동 등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관심, 인지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학습과 자기개발, 활발한 사회적 참여와 사회에 대한 기여 등이 성공적 노화를 가져오는 생활유형이라고 보았다. 즉, 아무리 노령이라도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면, 질환에 걸릴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보통의 노화에서 최적의 건강과 활력의 상태인 성공적 노화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기존의 노화연구나 앞에서 살펴본 발달심리학 이론들이 노년기의 쇠퇴를 전제하고 그에 대한 적응을 강조한 반면, Rowe와 Kahn의 성공적 노화 모델은 기능의 쇠퇴에 적응하기 이전에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축소된 사회관계에 적응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생산적 역할에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성혜영, 2005).

나. 생산적 노화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의 개념은 앞서 살펴본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측면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공적 노화 개념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나(최성재, 2002), 그 논의의 주된 기초를 살펴보면 경제적 효용성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 생산적 노화 담론 역시 노인을 무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부정적 스테레오 타입에 대항하며, 특히 1980년대 미국에서 이루어진 세대간의 형평성에 대한 정책적 논쟁에 대한 반발로써 제기되었다. 따라서 생산적 노화에 대한 논의는 활동이론의 연속선상에서 나이가 들어도 생산성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노년의 개념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생산적 노화의 개념정의와 관련해서는 ‘생산적’인 활동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왔다. 많은 경우 생산적 노화에 대한 정의는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는 활동에 한정되어 이루어졌다(Simonsick, 1995). 그러나 생산

적 활동을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급노동에 국한시키는 것은 노인들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며, 노인들의 역할이나 사회적 기여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비판(Herzog et al., 1989)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생산적 노화를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몇몇 연구자들(Caro et al., 1993; Strarrels)은 생산적 노화를 보수에 상관없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데 기여하거나 그것을 생산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Butler와 Schechter(1995)는 생산적 노화의 개념을 유급노동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 가족에 대한 지원활동, 자기 스스로를 가능한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 등과 관련된 노인들의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Bass와 Caro(2001)는 명상이나 여행과 같이 자기만족을 위한 활동 이외에, 본인이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해야 하는 활동으로, 공식적인 노동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까지 포괄하였다. 이상에서 생산적 노화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공식적인 노동시장 내에서나 밖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개인이나 가족, 또는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생산적 노화의 개념을 가지고 이루어진 실증연구들(Burr, Caro, & Moorhead, 2002; Herzog et al., 1989; 전해정, 2003; 윤순덕·한경혜, 2003)을 살펴보면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생산성은 생활만족도나 심리적 복지감, 그리고 신체건강 등 노년기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한경혜·윤순덕, 2003).

생산적 노화에 대한 논의는 학문 영역뿐만 아니라 정책 영역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논의 자체가 최근 전 지구적 차원에서 맞이하고 있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과 직접적으로 맞물려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Estes와 그 동료들(2003:71)은 생산적 노화 담론의 핵심적 논의는 경제성과 효율성으로, 노인들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경제적으로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령화 위기와 같은 노인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관념은 특히 미국이나 영국 등의 사회정책에 깊이 뿌리박혀, 특정한 일이나 활동을 통해 노인들을 국가의 부담이 아닌 재산이나 기회로 바꾸는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대

표적으로 제시되는 정책이 노인고용과 관련된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이가옥 등(2004)은 이러한 정책을 노인의 경제적 의존을 줄이기 위해 ‘독립’을 구조화하는 방안이라고 해석하였다. 생산적 노화 담론이 정책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반(反)복지국가적인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다. 즉, 복지문제에 있어서 제도적 차원에서 담당해오던 여러 기능들을 민영화를 통해 시장에 이양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노선은, 노인에게 독립성뿐만 아니라 특정한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것을 강조하는 생산적 노화 담론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생산적 노화는 21세기에 서구의 노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으며(한경혜·윤순덕, 2004),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복지정책의 기조로 제시된 “생산적 복지론”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SOC 모델

Rowe와 Kahn의 성공적 노화모델이나 생산적 노화 논의가 활동이론의 맥락에서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제시했다면, Baltes와 Baltes(1990)는 전생애 발달심리학의 관점에서 성공적 노화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보는 ‘SOC 모델(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적정화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7가지 전제들을 토대로 성공적 노화를 규정하고, SOC 모델을 통해 성공적 노화를 비롯한 인간의 전생애 발달이 선택(selective), 적정화(optimization), 그리고 보상(compensation)이라는 세 가지 요인과 연관된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우선 이들이 제시한 성공적 노화의 7가지 전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적(normal), 적정한(optimal), 그리고 병리적(pathological) 노화 사이에는 주요한 차이가 있다. 정상적 노화는 신체적 질병이나 정신적인 병리현상 없이 나이 늙어가는 것을 말하며, 적정한 노화는 발달을 증진시키고 노화에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늙어가는 것을 말한다. 병리적 노화는 치매와 같은 질병에

의해 노화가 오는 것을 말한다.

둘째, 노화에는 많은 다양성(heterogeneity/variability)이 존재한다. 즉, 노화에는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하는데, 이는 노화가 유전적 요인 및 환경적 조건, 생애과정 등에 따른 개인의 독특한 경험, 병리적 현상 등 여러 요인들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셋째, 노년에도 잠재된 능력이 많이 남아있다. 즉, 적절한 환경과 의료적 조건이 갖추어지면, 많은 노인들이 행동, 인지, 심리사회 등의 영역에서 높은 수준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것을 습득할 수 있다.

넷째, 잔여능력의 한계에 다다르면 노화에 따른 손실이 있다. 아무리 노년기에 잔여능력이 남아있다고 해도, 기억 및 학습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훈련 및 연습과 같은 중재프로그램의 효과에도 제한점이 있다.

다섯째, 지식과 기술은 연령증가에 따른 인지적 기능의 쇠퇴를 보충해줄 수 있다. 즉, 어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조도구나 그 과업과 관련된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쇠퇴된 인지적 기능의 쇠퇴를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타자속도가 느려진 노인 타자수는 문서의 내용을 미리 읽어봄으로써 타자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분(gain)보다 감소분(loss)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발달과정의 본질적인 특성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화에 따른 적응성 또는 가소성의 상실과 관련된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노년에 대한 주관적 기대의 일부이다. Heckhausen 외(Baltes & Baltes, 1990에서 재인용)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들은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서 생애후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상실이 일어나며 이러한 상실을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지혜나 위엄과 같은 긍정적 변화를 노년에 기대하기도 하였다.

일곱째, 자아(self)는 노년기에도 탄력적으로(resilient) 유지된다. 실증연구들에 따르면 노인들의 주관적인 생활만족도나 통제감, 자기효능감과 같은 자아와 관련된 보고에서 젊은이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① 자아가 다중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적응적인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다는 점, ② 생애과정에 따라 삶의 목표나 열망의 수준이 적응적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점, ③ 노인들이 자신의 삶의 만족도나 자아를 평가하는 준거 집단이 주로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노인들이라는 점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Baltes와 Baltes는 이상의 전제들을 고려할 때, 성공적 노화란 어떤 획일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선택과 적정화, 보상이라는 세 가지 요인과 관련된 일종의 적응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각 요인의 개념과 함께 노화에 따른 적응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선택(selection)은 나이듦에 따라 쇠퇴 및 감소분이 증가하면서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만 선택적으로 남겨놓고 다른 영역은 무시하는 전략이다. 즉, 환경적 요구와 개인적 동기, 기술, 생물학적 잠재능력 등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에만 노력과 에너지 등 개인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에 대해 잘 적응하는 것이다. 비록 선택전략을 통해 수행범위가 줄어들다고 해도, '변형되었지만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노년기에도 즐길 수 있다. 선택전략을 통해 개인의 기대수준은 개인적 통제감 뿐 아니라 주관적인 만족감을 경험함으로써 조절된다. 둘째, 적정화(optimization)는 개인의 잠재력을 활성화하고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으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선택된 영역에서의 능력을 최대화시키는 행동을 말한다. 셋째, 보상(compensation)은 생물학적·사회적·정신적·인지적 기능의 상실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학습이나 보조기구나 외부적 도움, 심리적 보상기제 등으로 상실을 보상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SOC 모델은 노화에 따른 상실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능력에 적합한 활동을 선택하고 보유한 기술을 최적화하며 상실한 것을 보상함으로써 성공적 노화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Rowe와 Kahn의 모델에서 기능이나 활동수준의 유지에 초점을 맞춘 것과 대조적으로, SOC 모델에서는 감소된 능력에 집착하기보다 현재 보존하고 있는 능력을 최적화하여 주관적인 만족을 이끌어낼 것을 강조한다(성혜영·유정현, 2002; 홍현방·최혜경, 2003). 또한 SOC 모델은 주어진 환경과 자원의 범위 안에서 개인의 능력을 조절하는 것을 성공적 노화의

과정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 안에서 심리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노력을 강조한다는 점은 Rowe와 Kahn의 입장과도 유사하다. 한편, SOC 모델은 그 논의가 아직까지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안지연, 1997).

라. 성공적 노화 개념의 다차원성

성공적 노화의 개념은 특히 최근 노년학의 가장 주요하고 보편적인 주제로 연구되고 있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그 개념이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 노화 개념의 정의나 측정에 대해서는 합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Baltes와 Bates(1990)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성공적 노화의 지표로서 제시된 개념들을 종합하여 수명(length of life), 생물학적 건강(biological health), 정신건강(mental health), 인지적 효능(cognitive efficacy),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 및 생산성(productivity), 개인적 통제(personal control),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 등 7가지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성공적 노화의 다양한 개념에 맞게 다차원적인 척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에도 성공적 노화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Rowe와 Kahn(1998)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공적 노화의 요소를 질병과 장애를 위험이 적고, 높은 수준의 인지적·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며,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Fishcer와 Spencht(1999)는 목적의식, 타인과의 상호작용, 개인적 성장, 자아수용, 자율성, 건강을 제시하였고, Charbonneau-Lyons와 그의 동료들(2002)은 사회와 가족관계, 내재적 가치, 재정적 관심, 성취, 인지적인 기능을 제시하였다. Chou와 Chi(2002)는 성공적 노화를 기능적 상태, 정서적 상태, 인지적 상태, 생산적 참여 상태를 포함한 4차원으로 정의하였다. Crosnoe와 Elder(2002)는 개인의 가족참여, 직업에서의 성공, 시민역할 참여, 생활만족도, 활력 등을 통해 성공적 노화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Mitchell(2002)은 성공적 노화를 생물학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영

역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자들마다 다양한 성공적 노화 개념들은 질병이나 장애 없이 건강한 것, 통제 및 성장, 삶의 적극적 참여, 독립성 등과 같은 몇 개의 주요한 아이디어로 수렴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이 내포하고 있는 강조점은 가능한 한 쇠퇴를 지연하고 긍정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하겠다(Moody, 2005).

마. 성공적 노화에 대한 서구의 경험적 연구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노화 모델을 토대로 성공적 노화의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노인들의 노화 유형과 성공적 노화 정도를 살펴보는 연구와 노인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규명하는 연구로 크게 구분된다.

전자의 연구들은 주로 Rowe와 Kahn(1998)의 성공적 노화모형을 토대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성공적 노화의 지표로 신체적·인지적 기능, 사회적 참여, 정서적·심리적 복지상태 등이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65세에서 95세 사이의 남녀노인 356명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한 Strawbridge와 그의 동료들(1996)은 성공적 노화를 일상활동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 성공적 노화의 예측변인을 탐색하였다. 수입, 교육수준, 인종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몇 가지 만성질환 여부를 통제한 결과, 우울증의 부재, 가까운 사람들과의 접촉, 운동으로 자주 산책하기 등의 행동 및 심리사회적 변수들이 성공적 노화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Strawbridge와 동료들은 성공적으로 노화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수준의 지역사회 참여와 신체적 활동, 정신건강 등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결론지었다. Menec(2003)은 성공적 노화를 복리(well-being: 생활만족 및 행복), 신체적·인지적 기능, 사망률(mortality)로 정의하고 일상의 활동성과 성공적 노화의 지표들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 결

과 전반적인 활동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고, 기능 수준도 높으며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활동의 유형에 있어서 혼자 하는 활동은 행복수준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사회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은 3가지 지표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mb과 그의 동료들(1999)은 ‘건강과 노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WHO 지역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비교연구하였다. 이들은 성공적 노화를 일상생활 활동(ADL)상의 어려움이 없는 것을 성공적 노화로 정의하고 관련변수들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선진국의 연구와 유사하게 성별, 연령, 질병 없는 상태, 자신의 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경제력 등이 성공적 노화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altes와 Lang(1997)은 SOC 모델의 관점에서 적응의 과정으로서 성공적 노화에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노인의 자원을 감각적·인지적 요인과 사회적·성격적 요인의 기준에 따라 4집단으로 나누고 일상의 기능수준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4집단은 하루 중에 깨어있는 시간의 길이, 활동의 다양성, 지적·문화적 활동 및 사회적·관계적 활동의 빈도, 휴식시간 등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자원이 가장 부족한 집단에서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노인들의 주관적 인식에 초점을 둔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노인들의 개념과 기존의 성공적 노화 모델이 제시한 개념이 상이함을 지적하고 있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미국 노인과 중국 노인의 인식을 비교연구한 Torres(2002)는 성공적 노화가 문화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개념임을 강조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미국 노인들은 자급자족을 성공적 노화로 인식한 반면, 중국 노인들은 성공적 노화에 있어서 가족, 특히 성인자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trabridge와 동료들의 또 다른 연구(2002)에서 65세에서 99세 노인 867명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노인들의 자기보고와 Rowe와 Kahn의 모델이 제시한 기준에 따른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 정도를 비교한 결과, 노인들의 자기보고에서는 전체응답자의 50.3%가 성공적으로 노화하고 있다고 인식한 반면 Rowe와 Kahn의 객관적 기준에 따르면 18.8%만이 성공적 노화 유형에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trabridge와 그의 동료들은

Rowe와 Kahn의 모델이 제시하는 성공적 노화의 기준에 들지 못하는, 만성질환 또는 기능장애를 가진 많은 노인들이 스스로 성공적으로 노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노인들 스스로의 인식에 기반된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측정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von Faber와 그의 동료들(2001)은 성공적 노화를 Rowe와 Kahn과 같이 특정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과 SOC모델과 같이 노화에 따른 적응의 과정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네덜란드의 초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Longitudinal Leiden 85-plus Study) 자료 중, 85세 노인 599명을 대상으로 신체적 기능, 사회적 기능, 심리-인지적 기능, 복리감의 네 영역의 적정 점수를 기준으로 성공적 노화와 성공적이지 못한 노화를 구분하여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정도를 탐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27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 자신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자신의 성공적 노화를 질적 심층면접 노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양적자료를 통해 전반적인 영역에서 적정 점수를 얻음으로써 성공적 노화 유형에 분류된 노인은 전체응답자 중 10%에 불과한 반면, 질적 면접에서 대부분의 노인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이 성공적으로 노화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성공적 노화에 있어서 신체적·심리-인지적 기능보다는 복리감과 사회적 기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von Faber와 그의 동료들은 성공적 노화를 특정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정의할 경우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노인들이 거의 없지만, 실제 노인들은 성공적 노화를 전자의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적응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을 통해 더 많은 노인들이 성공적으로 노화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제 2절 성공적 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공적 노화 모델은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고 노년의 잠재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측면에서 한계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신노년학의 패러다임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성공적 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을 살펴보면, 첫째,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논의 자체가 가치개입적이고 규범적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한경혜, 2000). 성공적 노화 모델은 특정한 상태를 모든 노인이 달성해야 할 표준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이러한 표준에 담겨진 많은 요소들, 즉, 성공, 생산성,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개인의 책임 등은 미국사회의 규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Holstein과 Minkler(2003)는 ‘성공적 노화’가 미국 노년학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각광받은 이유를 바로 그 모델이 제공하는 메시지가 미국인들에게 매우 호소력 있다는 점, 다시 말해서 미국사회에서 매우 가치있게 여겨지는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이들은 미국사회에서 ‘성공’하면 달라나 학위와 같이 특정한 기준을 쉽게 떠올릴 정도로, 그 개념이 가시적이고 예측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문화규범을 주목해서 봐야하는 이유는 그것이 개인의 정체성 혹은 자아개념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에 있다. 문화를 연구하는 여러 분야의 학자들은 문화적인 이미지나 표현들, 상징과 은유 등이 사회적 인식을 억제하거나 표현함으로써,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문화적 각본 또는 심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화규범의 위력을 설명하였다. 인간의 자아는 개인의 생애과정 속에서 뿌리내림과 동시에 그가 속한 사회 속에서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특정한 사회문화 속에 위치 지워진 개인의 자아는 그가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규범이 자아개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Holstein & Minkler, 2003). 그리고 한 사회에서 지배적인 문화는 대안적인 문화를 축소시키고, 제한된 의미의 적응 형태들만을 합법화함으로써 개개인이 주체적인 성찰 없이 특정한 방향으로 살도록 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한다(Estes, Biggs, & Phillipson, 2003:72). 신체적 기능이나 활동수준의 유지를 강조하는 성공적 노화의 담론이 특히 대중매체를 통해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거나 젊게 행동하는 것을 바람직한 노년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마케팅의 의제와 결합하여 안티에이징(anti-aging) 담론과 뒤섞이면서(Katz, 2001) 보다 강력한 문화규범으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각본(주1)을 노인들이 내면화하면, 그들은 노화를 감추는 것에서부터 활동의 열풍, 그리고 바쁨에 대한 규범까지, 이러한 압력들이

어디서 왔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문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한대로 되려고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성공적 노화의 규범성은 그 모델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른 가치들을 간과함으로써 보다 성찰적인 노화를 저해하고, 모델이 제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자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성공적 노화 모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노인들을 주변화(marginalize)한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성공적 노화 모델은 노화에도 불구하고 기능이나 활동수준의 유지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 노화를 위한 다차원적인 기준들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기준들이 지나치게 이상적이어서 젊은 사람들조차 따라가기 어려운 ‘슈퍼노인(super elder)’을 연상시키며 많은 노인들에게 도달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성혜영·유정현, 2002; 한경혜, 2000). 이러한 비판은 성공적 노화개념이 특히 대중매체에 소개되고 일상용어화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스테레오타입을 창출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그리고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노인을 유형화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나름대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노화의 각 차원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노인들, 이들 다수의 ‘보통’ 노화 노인들은 ‘실패’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질병이나 장애 등을 가진 노인들의 경우 신체적 건강, 기능적 능력, 독립성 등의 요소로 구성된 성공적 노화의 범주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주2) 따라서 Cohen(1998)은 이러한 성공적 노화의 모델이 기존의 일반적인 노화에 대한 편견을 장애를 동반한 노화와 같은 특정한 편견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연령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주1) Estes와 그 동료들(2003:72)은 노년의 존재를 정당화시키는 성공적 노화 담론의 각본이 “나는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식의 수동적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다면, 생산적 노화 담론은 “나는 여전히 일할 수 있다”는 식의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주2) Fadem(1999)의 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을 오랫동안 타인의 도움에 의지해온 많은 노인들이 독립성이나 효과적인 기능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이러한 재정의의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노인들은 스스로 성공적 노화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쇠퇴하는 자신의 몸과 개인의 필요에 적절하게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개인의 기능을 유지시킨다고 보았다. 즉, 이들에게 성공적 노화는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질병이나 장애를 실패로 간주하는 관념을 노인들이 스스로 내면화하는 경우, 노인들은 질병이나 장애에 직면했을 때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희망이나 자기실현, 가족과 사회에 대한 참여를 포기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성공적 노화 담론이 장애인들의 희망이나 기대를 낮춤으로서 모순적으로 성공적 노화의 옹호론자들이 강조한 건강 증진 및 유지 행동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질병이나 장애를 겪는 것, 심지어는 늙음조차도 개인의 실패로 보는 인식은 결과적으로 개개인이 ‘젊음’을 유지하고 “늙어 보이지 않으려는”, 궁극적으로는 자기파괴적 전략을 강화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개인차원의 전략이 사회적 차원의 비전이 되면 결국 많은 노인들을 주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Holstein & Minkler, 2003). 한편 생산적 노화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노년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주로 현재의 생산성인데, Moody(2001) 이러한 생산적 노화의 잣대가 노인들의 전체 생애과정의 맥락에서 과거에 이룬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많은 노인들을 주변화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생산성에 근거한 세대간의 형평성 개념이 노인들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세대간의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상식을 만들어내며, 노인들에게는 세대간의 경쟁이라는 도달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암묵적으로 나이와 일에 기초한 불평등을 결합시키면서 노인의 종속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Moody, 1993). Kahn(2003)은 이상의 비판에 대해, Rowe와 Kahn의 모델이 소수의 엘리트 노인들만을 긍정하고 그 외의 많은 노인들을 주변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노인들의 건강증진 행동을 격려하고 이러한 행동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을 지지한 것뿐이라고 반박하기도 하였다.

한편, Baltes와 Baltes(1990)의 SOC 모델은 무엇이 성공적 노화의 표준인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노인 개개인에게 주어진 상황과 각자의 목표에 따라 적응하는 것을 성공적 노화로 간주함으로써 Rowe와 Kahn의 모델에 비해 비판을 여지를 덜 남기고 있다. 그러나 이 모델 역시 성공적 노화의 전체로써 노화의 유형을 보통의 노화, 적절한 노화, 병리적 노화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Rowe와 Kahn의 모델과 마찬가지로 노인집단을 차별적으로 구분하고 있

다는 비판(Moody, 2001)을 동일하게 받고 있다.

셋째, 성공적 노화의 개념들이 노화에 따른 여러 측면의 상실을 막고 지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상실의 복합적 의미에 대해 간과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질병이나 장애를 피하고 사회관계망과 생산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같은 성공적 노화의 모델에는 쇠퇴를 지연시키고 청년이나 중년과 같은 모습을 가능한 유지하는 것을 좋은 노년으로 보는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한경혜, 2000). 젊음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기조는 Rowe와 Kahn이 제시한 ‘이환율의 압축(compression of morbidity)’의 개념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개념은 가능한 한 죽기 직전까지 아픈 상태(morbidity)를 연기한 후, 일단 질병이나 장애를 겪게 되면 그 기간을 오래 끌지 않고 빨리 죽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젊음의 무한 지속’이라는 궁극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노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논의는 결국 인간발달의 필연적 과정인 의존성, 상호의존성, 죽음 등에 대한 성찰을 저해하고 상실의 의미를 간과하도록 함으로써 노화에 대한 불완전한 각본만을 제시하게 된다.^{주3)} Baltes(1993)가 지적한대로 노화는 ‘상실과 획득’이 공존하는 과정이며, 어찌 보면 이 둘 간의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장려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라고 할 수 있다.^{주4)} 예를 들면 노인의 사회관계망의 크기 축소는 연령증가와 함께 사회관계의 동기가 변화함에 따른 노인들의 능동적 선택행동이라는 Carstensen(1991)의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을 생각해보자. 이 이론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실증적 검증이 되었는데, 사회관계의 수의 감소는 상실로 해석될 수 있지만 노인이 선택한 적응적이고 건강한 노화과정의 측면임을 잘 보여준다. 상실, 저하, 축소를 막아야 하는 것으로만 조망하는 Rowe & Kahn의 모델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문화적 상대성을 간과한 채 미국적인 관점과 이

주3) Baltes와 Smith(2003)는 성공적 노화 담론이 역기능적 손상이 급증하는 제4연령, 즉, 초고령 노인들의 노화를 포괄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전 생애라는 보다 큰 틀에서 노화의 문제를 다루고 궁극적으로 ‘위업 있는 죽음’이라는 측면에서 생애 마지막 단계의 이슈를 논의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주4) Baltes와 Baltes의 SOC 모델은 노화하는 몸(aging body), 즉, 잔여능력의 감소와 질병에 대한 취약성 증가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Rowe와 Kahn의 모델에 비해 노년기의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Strawbridge & Wallhagen, 2003; Kahn, 2003에서 재인용).

론에서 보는 노화를 보편적인(universal) 것으로 그려내는 경향이 있다. 위의 논의와 연결되는 선상에서, 독립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하여 노년기 의존성에 대한 적절한 조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독립성 또한 미국문화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발달의 과정에서 진정한 독립성은 허구이며, 많은 사람에게 있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도 아니다. 인간 존재와 인간의 생애과정은 기본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것이고, 노년기의 의존성은 막아야 하는 질병이 아니고, 또한 한없이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노인에게서 발견되는 다양한 정도와 유형의 의존성/지원간의 변증법은 집합적으로,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독립성 편향적인 성공적 노화 담론은 어느 시점에서는 의존성의 증가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노년기의 삶의 현실과, 그 단계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치롭고 성공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넷째, 성공적 노화모델이 지나치게 개인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사회구조적 측면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한경혜, 2000). 성공적 노화 패러다임의 옹호자들은 질병과 장애와 같은 노년의 문제들이 노화에 따른 정상적인 과정이라기 보다는 많은 부분 섭생이나 운동과 같이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개인의 적절한 선택과 노력을 통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Riley(1998)는 성공적 노화 모델이 개인의 삶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성공적 노화의 가능성에 구조적인 기회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빈곤은 균형 잡힌 섭생이나 운동과 같은 건강관리 행위에의 접근을 제한하는 구조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노년기의 건강상의 불평등이 생애과정에 따라 축적된 사회경제적 지위상의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Holeten과 Minkler(2003)는 신노년학에 내포된 문화적 각본들이 특히 여성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보통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규범적으로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다른 가족원들을 돌보는데 더 집중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처럼 여성에게 부과된 타인중심적 삶은 노

년기에 만성질환이나 기능손상, 그리고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은 젊음의 유지와 신체적 매력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적 규범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규범적 이중구조는 노인여성들, 특히 인종이나 계급과 같은 다른 사회적 층위에 의해 이미 배제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더욱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 따라서 자기관리와 사회적 참여를 강조하는 성공적 노화의 패러다임은 많은 여성들이 살아온 방식을 평가절하 함으로써 노인여성의 정체성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산적 노화 모델 역시 구조적 불평등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고령화 위기에 대한 국가적인 대안으로서 신자유주의적 반복 지국가 전략과 맞물려서 이루어진 생산적 노화 담론은 개인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민명화를 통해 공공영역의 서비스 후퇴를 정당화함으로써 노년기의 구조화된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Estes, Biggs, & Phillipson, 2003:74). 아울러 노년기까지의 노동의 지속을 격려하는 논의는 여전히 강제퇴직이 제도화 되어있고 젊은 노동력을 선호하는 노동시장의 맥락에서 근본적인 모순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Kahn(2003) 스스로도 Rowe와 자신의 모델이 사회구조에 대한 충분한 고찰 없이 개인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시인하였다. Kahn은 후속적 논의로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Riley는 주장에 동의하면서 완전한 성공적 노화 모델은 성공적 노화를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환경, 제도, 사회 등과 같은 외재적 요인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기존의 입장을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공적 노화 담론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더욱 부정적인 함의를 갖게 된다. 성공적 노화 모델을 비판한 학자들(Katz, 2000; Holstein & Minkler, 2003)은 개인의 노력과 책임을 강조하는 신노년학의 기초가 국가의 복지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 전략에 쉽게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Holstein과 Minkler(2003)는 정책 영역에서 성공적 노화의 관념은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인의 이미지를 더욱 과장하여, 정부의 지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노인의 모습과 같은 새로운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건강이나 독립적인 기능유지 등에 있어서 이러한 자기책임의 논리는 앞

에서 지적했듯이, 개인의 노화에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간과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노인들이 자원에 접근하는데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의 비판들과 유사하게, Baltes와 Baltes(1990)는 SOC 모델을 소개하기에 앞서 성공적 노화의 이슈가 사회진화론의 잔재이며 사회에 만연된 경쟁의식과 서구의 자본주의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을 예견하였다. 주5) Kahn(2003) 역시 Rowe와 Kahn의 모델에 대해 후속적으로 논의한 글에서 자신들의 모델이 이상에서 제기된 비판들과 같이 의도치 않은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우려들이 한편으로는 이분법적인 현대 미국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성공의 노화 개념의 다차원성과 추후의 확장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자신들의 모델과 주어진 환경과 자원을 토대로 적응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SOC 모델, 그리고 구조적 또는 외재적 조건들에 대한 고려를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덧붙여 Kahn은 성공적 노화 이슈에 대한 자신들의 지향성 역시 초기의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와 국가정책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비판노년학에서는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보다는 ‘무슨 목적으로,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Estes, Biggs, & Phillipson, 2003:72). 이러한 관점에서 성공적 노화 또는 생산적 노화 담론이 노인들 스스로의 필요보다는 고령화 위기와 같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stes와 그의 동료들(2003:78)은 이러한 담론들이 무비판적인 실증연구들을 통해 전문화된 정당성을 부여받음으로써 더욱 강화된다고 보았다. 이들은 이러한 담론들의 핵심이 ‘자기감시’이며 이를 위한 전문가적인 근거와 기술들을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사회통제라고 보았다. Katz(2000)는 ‘의존’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독립이나 생산성은 긍정적

주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존의 부정적인 노년의 개념을 당연한 현실로서 수동적으로 경험하기 보다는 새로운 노년을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 것으로 보는 성공적 노화의 담론의 이분법적인 시각을 비판하면서, 실제 노인들의 삶에서는 이러한 이분법을 넘어서는 보다 복합적인 현실이 존재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성공적 노화 모델이 간과하고 있는 노년기의 현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이 유포됨으로써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 등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들이 최근 서구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국내에서는 한경혜(2000)가 우리나라에서 대중매체에서 부각되고 있는 신노년층 문화와 미국식 성공적 노화개념의 공통점에 대한 탐색과 함께, 성공적 노화담론이 노인의 삶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시론적인 차원에서 제기된 이후에도, 한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담론은 여전히 이러한 노화모델이 가지고 있는 제한점들을 간과한 채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우리사회 역시 앞으로 지향해야할 새로운 노년학의 패러다임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국내의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연구와 대중매체의 노인 관련 기사를 통해 성공적 노화담론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제 4장 한국에서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논의

제 1절 대중매체에서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논의

1. 문제제기

고정된 통과의례에 따라 생애주기를 형성했던 전통사회와 달리,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삶은 보다 불확정적이고 각자가 선택해야 하는 과제가 되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의 자아정체성 또한 매우 유동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 특히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압축적인 노령화’(compressed aging)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노인들에게, 길어진 노년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의 노인세대는 초기 산업화시기부터 최근까지 폭발적인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함께 그들의 지위와 역할의 급격한 퇴화를 경험해왔기 때문에(장경섭, 2001), 이들에게 노년기 삶에 대한 문화적 각본은 더욱 모호하며 각자가 떠났고 가야하는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정체성 위기는 노인들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매체가 유포하는 노년의 담론들은 노년기 삶에 대한 그림의 공백을 메우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노년의 이미지와 상징, 이야기들은 노년의 삶에 관한 ‘문화적 각본’을 구성하고 유포함으로써 노년의 담론환경을 주도하게 된다(정진웅, 2003).

최근 한국사회의 대중매체를 살펴보면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과 함께 노인 집단의 변화를 새롭게 조명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노년의 삶을 모색하는 등 신노년층 문화에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노년에 대한 새로운 담론은 노인과 노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노인들 개개인의 생활양식과 정체성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

는 먼저 대중매체가 사회적 인식과 개인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대중매체인 신문매체들이 신노년층의 문화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서구의 성공적 노화의 담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신노년층 문화의 담론들이 노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대중매체가 사회적 인식 및 자아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선택성이 높아지는 후기 현대적 삶의 특성에 대해, 기든스(1997:151~153)는 ‘라이프스타일 프로젝트’라고 명명한 바 있다. 라이프스타일이란 물려받거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에서의 ‘선택’을 내포하며, 관행화된 습관이자 의상, 식사, 행동양식, 타인과의 만남에서 선호되는 환경 따위의 습관들 속으로 결합된 관행이다. 라이프스타일의 선택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한 결정으로, 한 개인이 활동하는 환경이 탈전통적일수록 라이프스타일은 자아정체성의 형성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다.주6)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많은 정보들과 함께 특정한 라이프스타일들을 제시해준다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Gauntlett(2002:113)는, 개개인이 각자의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하는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자기표현(self-presentation)의 형식, 행복을 찾는 방법 등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특히 자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수용한 관점들이 바로 자아를 구성하는

주6) 기든스에 따르면, 자아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으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와 같은 식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데, 라이프스타일은 이러한 내러티브를 위해 만들어진(ready-made) 모형이며, 자아정체성에 질서를 부여해주는 그릇이라고 하였다. 즉, 라이프스타일 선택은 ‘나와 같은’ 또는 적어도 ‘나와 유사한 선택을 한’ 사람들의 집단과 나 자신을 연결시켜주면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내러티브를 제공해준다. 또한 개인이 선택한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행동은 본질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가치를 내포할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성의 특정한 내러티브에 대한 가시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Gauntlett, 2002: 102-103).

내러티브^{주7)}에 영향을 미치며,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것들(representations)은 또한 우리가 우리자신의 몸과 관계 맺는 방식이나 타자와 관계 맺는 방식, 정서적 욕구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술혁신으로 대중매체의 의사소통 범위와 속도가 엄청나게 팽창하면서, 대중매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 밀착되어 우리의 태도와 행위, 경험에 폭넓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대중매체의 의사소통능력을 고려할 때 대중매체가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고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선택이나 자아형성에 미치는 위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대중매체는 오락과 자기계발의 가능성,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우리에게 경험의 틀 또는 문화적 윤곽을 제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중매체의 영향력에 있어서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전반적으로 매체는 사회의 주도권을 쥔 집단의 견해를 반영한다는 것이다.^{주8)} 따라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매체를 누가 소유하는가 하는 문제와 매체가 다양한 견해를 어느 정도 표현하고 수용하는가가 ‘대중매체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기든스, 1997:453). 특히 신문·방송과 같은 언론매체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적 영역에서 결정적이고 기본적인 지도력을 행사한다. 즉, 사회내의 계급과 집단들이 자신들의 삶의 가치와 행위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기초를 제공하고 파편화된 사회적 총체가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될 수 있도록 이미지와 표상과 관념을 제공해준다. 글래스고우 미디어 그룹(1976, 1980; 강명구, 1993에서 재인용)은 뉴스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이 아니라 일정한 편향을 지닌 기자집단에 의해 생산된 메시지 체계라는 전제하에 영국의 언론매체를 분석함으로써, 뉴스가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편향되게 세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강명구(1993)는 언론이 현실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해

주7) 개개인은 자신의 선택을 해석하기 위해 자아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데, 이러한 내러티브는 복합적인 삶에 어떤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Gauntlett, 2002:113).

주8) 이것은 정치적인 검열체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만이 아니라, 텔레비전, 신문, 자료은행 등등의 소유권이 상대적으로 소수의 손에 집중된 사실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

석을 분류하고, 배열하고, 일정한 준거체계에 위치지우는 이데올로기적 작용을 수행한다고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서, 언론은 담론의 구성체로서 메시지 생산과정을 통해 다양한 실천과 의미, 가치들 가운데 선호되는 부분은 드러내어 확대 생산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세계의 모습을 끊임없이 그려내고 방어하며 타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매체는 이러한 이데올로기 효과를 통해 자본주의적 지배관계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은 일정한 구조에 의해 지배되는 노동영역보다는 소비의 영역에서 더욱 적용되기 쉬운 측면이 있다. 노년기에 대체로 공식적인 노동시장을 벗어나게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년의 삶은 대부분 여가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소비생활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라이프스타일 선택의 문제는 노인들에게 더욱 첨예한 문제이며, 이러한 라이프스타일 선택과 그에 수반하는 가치관 수용에 있어서 노인들은 대중매체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을 수 있다.

3. 연구방법

한국사회의 대중매체에서 신노년층 문화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부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1996년부터 2006년 7월 현재까지, 주요일간지인 한겨레신문·조선일보·동아일보의 기사본문에 ‘노인’, ‘노년’, ‘노후’, ‘실버’, ‘신노년’, ‘신세대 노인’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사 중에서 노인, 노후, 노년기 생활, 나이듦 등을 주제로 한 기사를 대상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4. 기사내용의 전반적인 동향

먼저 대중매체에서 ‘노인’에 대한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0년대 중후반의 노인에 관한 기사는 노인 소외, 빈곤, 치매, 자살, 학대, 우울증 등의 ‘노인문제’를 다룬 기사와 함께 대체로 열악한 노인복지현실을 지적하면서 더 이상 노인문제를 가정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사

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식의 기사들이 기조를 이룬다. 특히 1998년도의 경우 기사의 건수도 비교적 적을뿐더러 노인관련 기사가 대부분 빈곤노인 및 치매노인 등 극단적인 문제를 가진 노인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경제위기의 여파로 최소한의 복지 외에 다른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던 당시 사회경제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간간이 만학이나 자원봉사 등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노인에 대한 인물소개 기사가 등장하고 있으나 ‘새로운 노인문화’에 대한 논의는 서구의 사례를 소개하는 기사가 소수 등장할 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기사도 해외의 사례를 소개할 뿐 우리나라의 고령화문제를 다룬 기사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다. 단적인 예로, 인구통계 결과를 보도하는 기사의 경우 대부분 단독가구노인의 증가나 치매노인의 증가 등을 다룰 뿐, 고령화 사회를 이슈화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2000년도 이후부터는 고령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특히 2004년부터는 저출산·고령화가 키워드가 되어 고령화위기가 이 기사 전반의 기조를 이룬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각 신문매체들은 보편적인 노인복지를 표방하면서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게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길어진 노년’에 대한 인식과 함께 ‘노후’의 삶과 노인문화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게 된다. 각 신문매체들에서 나타나는 ‘성공적인 노화’나 ‘생산적인 노년’에 대한 담론은 이러한 경향과 맥을 같이 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세대 노인에 대한 개별적 인물소개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인문화를 주도하는 노인 ‘세대’에 대한 기사가 증가하고 있다. 각 신문사마다 ‘신노인’, ‘No老 세대’, ‘양코르세대’, ‘뉴실버’, ‘G세대’, ‘오팔(OPAL)세대’⁹⁾, ‘애플(APPLE)족’¹⁰⁾ 등의 용어를 만들어 내거나 소개하고, 신세대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다루는 기획기사가 봇물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기사들의 패턴은 대체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노인세대 변화와 새로운 노인문화를 소

주9) 오팔(OPAL, Old People with Active Life)세대란 노령에도 경제력을 가지고 활기차게 사는 50~80대의 신노년 세대를 일컫는다(한겨레신문, 2004. 6. 9.).

주10) 애플(APPLE)족이란 활동적이고(Active) 자부심 강하고(Pride) 안정적으로(Peace) 고급문화(Luxury)를 즐기는 경제력(Economy)있는 노인층을 뜻하는 마케팅용어이다(조선일보, 2006. 5. 31.)

개하고, 기존의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노인의 이미지를 비판하며 새로운 노인문화 창출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함께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노인문화와 ‘노후’에 대한 관심은 ‘즐겁고 행복한’ 노년 또는 ‘아름다운’ 노인이 되기 위한 비결, 노화를 막고 젊게 사는 비결과 같은 유의, 일종의 ‘노년생활 지침’을 제시하는 기사들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독립성과 생산성, 개성과 다양성 등을 강조하는 서구적 담론들이 함께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노인은 소극적이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정보화 사회에서도 설 자리를 차지하는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노인이라는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다.”

(한겨레신문 2000. 10. 31)

5. 신노년층 문화의 주요 테마들

신문에 등장하는 신노년층은 일하는 노인, ‘컴도사’, 자원봉사 노인, 만학도 또는 평생학습으로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는 노인, 노익장을 과시하는 건강노인, 노인예술가 등으로 패터닝되어 있다. 이들의 특징은 늙음을 거부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사회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들에 대한 수식어는 ‘젊은’, ‘나이를 잊은’, ‘아름다운’ ‘제2의 (인생)’ 등과 같이 젊음지향적이고 긍정적이며 도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신노년층의 모습을 몇 가지 테마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할머니라고 부르지마” - 늙음에 대한 부정

노인들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는 기사들에 등장하는 노인들의 경우 “집에서 하는 일 없는” 보통 노인들의 이미지와 대조적으로 “여전히 젊은이처럼 일하는” 노인, “젊은 감각”을 가진 노인들, 젊은이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문화를 동일하게 향유하는 노인들로 그려진다. 이러한 기사들은 주로 젊은 감각도 혼련

과 재사회화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노인들도 젊은이들과 자주 접촉하며 젊은이 문화에 꾸준히 관심을 가진다면 젊은이 따라잡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할머니라고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집에서 손자 손녀 돌봐주며 하는 일 없이 시어머니 노릇만 하려는 늙은이가 아니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노인여성’입니다.

(한겨레신문, 2003. 9. 22.)

다양한 플래시나 배경음악까지 깔린 알림글, 동영상 등에서는 젊은 감각이 넘쳐난다.

(한겨레신문, 2003. 10. 2.)

나는 실버n세대 디자이너, 이메일도 있고, 스타크래프트도 연습하고... 노인들이 참 할일이 없는데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보며 아픈 것도 잊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다.

(한겨레신문, 2001. 2. 13)

나. 건강에 대한 관심

신노년층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는 ‘건강한 노인’이다. 연령에 비하여 예외적인 건강을 자랑하는 노인을 소개하는 기사물이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꾸준한 신체적 단련을 하는 노인들의 모습, 그리고 노인의 건강 돌보기 방법에 대한 기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즉,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외모에 대한 관심에까지 확장된다.

외모를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아름다운시니어로 가는 길이다. 정기적인 운동으로 체력을 키우는 것 못지않게 몸매나 외모도 가꾸어야 한다. 시니어 몸짱은 드문 현상이 아니다. 탄력 있고 깨끗한 피부를 위해 의료적인 도움을 받는 일에 거부감을 보이거나 쑥스러워할 필요

가 없다. 외모는 곧 자신감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2006. 5. 31.)

["젊어지려면 불량노인이 돼라" - '즐거운 노년...' 10가지 지침]

(중간생략)

3. 방의 사면에 거울을 붙여라. 옷장 앞에는 전신거울을, 세면대에는 확대경을.

4. 피부관리, 젊었을 때보다 3배는 신경 써야 한다. 한 달에 한 번 미용실에서 마사지를 받자.

(조선일보, 2006. 3. 29)

다. 자원봉사

신노년층의 노인은 또한 자원봉사를 통하여 남을 도우면서 자신이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통하여 노년기 삶의 보람을 찾는다. 독거노인 돕기, 청소년 선도, 장애인 돕기, 환경지킴이, 통역 자원봉사, 병원 등 단체에서의 봉사 등 다양한 종류의 자원봉사에 아주 고령노인까지도 참여하는 모습들이 주된 아이템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은 “젊게 사는 비결”일뿐만 아니라, 노년의 의미가 모호해진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기여를 통해 노인들 자신의 존재 또는 가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형적인 소재로 제시된다. 특히 공식적인 노동시장 밖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자원봉사는 노인에게 적합하고 이상적인 사회적 역할로써, 다시 말해서 일종의 문화적인 각본으로써 다뤄지고 있다.

“우리 노인들이 늙고 초라해져서 쓸모없는 강아지똥처럼 보이지만 이야기로 우리의 귀한 아이들에게 줄 수 있으니 우린 아직 젊은 겁니다.” ... “이웃을 위해 좋은 일 하겠다고 결심하는 건 나를 가장 나답게 하는 것이예요.

(조선일보, 2003. 9. 2.)

“걸어다닐 수 있을 때까지 봉사하면 그게 멋쟁이지. ... 늙은이가 할 일이 아직 남았구나, 보람을 느낍니다”

(조선일보, 2002. 6. 25.)

[찾길서 아이 구한 할아버지 노인의 사회봉사 본받아야] (중간생략)
청년 때에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년에는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다음 세대들이 더 밝고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

(한겨레신문, 2004. 4. 13.)

라. “일하는 노년이 아름답다”

2000년대 이후에는 특히 ‘일하는 노인’들에 대한 기사가 지속적으로 실리게 된다. 이것은 2000년도에 ‘국민의 정부’가 ‘생산적 복지’를 복지정책의 기조로 삼았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사회적 지위에 개의치 않고 은퇴 후에 새로운 일거리를 찾은 노인들, 은퇴농장 일이나 창업 등으로 “제 2의 인생”을 보내는 노인들에 대한 기사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올수록 고령화위기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기사건수가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기사들에서는 대체로, 고령화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사회문제에 있어서 “일하는 노인이 해법”임을 제시하면서 “노인도 사회에 부담만 되지 말고 기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고령화시대 아니오. 나이조금 들었다고 현장을 벗어나 훈수만 두려고 하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소. ... “여력이 있다면 노인들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결국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 아니오? ... 불러주지 않는다고 그냥 놀면서 썩히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고 생각해요”

(조선일보, 2006. 9. 26)

“노령화사회가 될 수록 노인들이 세금을 축내는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로 당당하게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선일보, 2002. 2. 4.)

생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얻기 위해 나이를 잊고 도전에 도전을 거듭한 서씨의 ‘청년정신’과 ‘자구(自救)의지’는 눈앞에 닥치고 있는 초고령 사회의 해법을 제시한다. ... 지금도 심각한 노인문제는 고령사회나 초고령사회가 되면 과중한 부양책임에서 오는 가족해체, 연금부담액과 수령액의 차이에서 오는 세대간 갈등, 국가의 복지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 노동력 감소에 따른 국제경쟁력 저하 등 숱한 문제를 파생시킬 것이 틀림없다. 고령인구를 돌보는 데 써야 할 국민연금은 벌써부터 고갈이 우려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문제로 떠올랐다. 서씨의 도전정신에 주목하는 이유는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자세야말로 앞서 말한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처방이기 때문이다. ... 멀쩡한 사람이 국가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고령사회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모델’을 보여 준 서 씨를 본받아야 한다. 그것이 개인도 살고 국가도 살리는 길이다.

(동아일보, 2005. 4. 15.)

마. 배움에 대한 열정

신노년층의 또 다른 특성은 노인학교, 컴퓨터 배우기, 대학원 진학에서 댄스 교습까지 다양한 형태의 ‘배움’에 대한 참여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열풍’, ‘만학도의 힘’, ‘할머니 헤어디자이너 탄생’, ‘한자 7급자격증 딴 할머니들’ 등 노인들의 학습열풍이 매우 큰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배움 역시 일종의 젊게 사는 비결 또는 소외되고 무료한 노년의 해법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배움을 중심으로 한 생활양식은 기존의 고정관념적인 노년의 삶과 대조를 이루며 소개되는 경향이 있다.

[84세 '최고령' 네티즌 “노딩’도 ‘챗’해요”] (중간생략) 두 노딩(노인대 학생) 네티즌은 “정작 컴퓨터와 인터넷 공부가 필요한 세대는 오히려 노년층”이라며 “노인소외 현상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터넷을 하면 친구도 생기고 손자들과도 통한다”며 입을 모았다.

(동아일보, 2004. 10. 30.)

“아는 것을 미루며 게을러질 나이에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하다”

(조선일보, 2000. 10. 26.)

“나이가 들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꼬부랑 할머니’와 ‘컴맹’이었다”
 … “낮잠이나 화투로 소일하는 것보다 컴퓨터를 배우는 게 백배 낫다.”

(조선일보, 2002. 12. 6.)

특히 200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설립되면서, 이러한 기관을 중심으로 한 노인들의 학습열풍과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마치 ‘대학생’과 같이 자신의 기호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고,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 바쁘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은 노년기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그려진다.

센터에서 이 씨는 사진편집에 주로 쓰는 ‘포토샵’ 프로그램 사용법과 하모니카, 춤을 배운다. 요즘은 경쾌한 ‘자이브’에 푹 빠졌다. …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중요해졌다. ○○노인종합복지관의 관계자는 “정원제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강좌 수강신청 때는 새벽부터 길게 늘어선다”며 “누구누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제2의 인생’을 맞은 산 사람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5. 7. 16.)

이처럼 배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삶이며 성취지향

적 삶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보통의 노인들과 달리 비범한 과업을 달성한 특정 인물의 성공기를 다룬 기사물들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마치 젊은이들에게 큰 포부와 꿈을 가지고 정진할 것을 촉구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즉, 보통의 노인들도 기사의 주인공들과 같이 끊임없이 노력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자신이 뜻한 바를 성취할 수 있다고 도전한다.

[일문학도 꿈 키우는 71살 대학생] (중간생략) 그는 “어딜 가나 최고령 수험생이라고 주목을 받지만 공부하는 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나는 생각에 나이를 잊고 산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해 국제행사예 일본어를 통역하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2004. 12. 23.)

[73세 박사·69세 학사 탄 ‘만학도의 힘’] (중간생략) “나이가 들었다고 스스로 좌절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배우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열심히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2003. 2. 13.)

[나이는 숫자일 뿐... 뒤늦게 노력해 ‘인생 이모작’] 공학 교수가 61세에 성악 CD 발매, 국문학 교수가 54세에 시조창 전수자로 등극... 배움에는 나이도 전공도 장벽이 아니다. 열정과 호기심만 있다면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 피나게 노력했더니 어느 날부터 주위에서 이렇게 불렀다. “당신 프로야”

(동아일보, 2005. 6. 23.)

바. 개인 중심의 삶

신노년층의 생활양식을 살펴보면 자녀, 가족 중심의 삶으로부터 개인으로 삶의 구심점이 옮겨간다. 신노년층의 삶의 모습의 묘사에는 가족, 자녀는 별로 등

장하지 않고, 독립성이나 자아실현이 중요한 가치로서 제시된다. 특히 최근에 올수록 경제력을 갖춘 노인층이 증가하면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고급 실버타운’에서 살거나 여행이나 취미생활로 자기 자신 또는 부부 둘만의 삶을 즐기는 노인들에 대한 기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면의 기사에서도 이러한 구매력이 있는 신노년층을 겨냥한 실버산업을 전망하거나 노후보장을 위한 각종 금융상품, 실버타운, 실버용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요즈음 한국의 노년층은 젊을 때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 자신을 위해 쓰겠다는 의식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양코르 용품과 서비스가 갈수록 다양해질 것.”

(조선일보, 2002. 5. 24.)

[노년층, 주요 소비집단으로 급부상 전망] (중간생략) “최근 젊은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자기중심적이고 감각지향적이던 소비패턴이 노년층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자신들의 인생을 추구하는 신세대 노인층이 향후 비중 있는 소비자집단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여 기업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2005. 7. 20.)

특히 ‘노후대비’ 혹은 ‘노후준비’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의 기사에서 노후의 경제적인 대비로 등치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를 주제로 한 기사들에서는 “노테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노후의 삶은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며 개인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노후대비 이슈가 예비 노인세대들에게 당면한 매우 절박한 문제라는 경고성의 메시지들은 노후불안 의식을 더욱 고취시키고 있다.

출산율 하락으로 핵가족화가 심해지고 고령화가 촉진되면서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 자칫하면 고통스러운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조차 없지 않다.

(조선일보, 2005. 7. 5.)

노년의 삶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장기간 미리 준비해야 한다. ... 따라서 노년이 될 수록 투자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동아일보, 2005. 6. 28.)

6. 신노년층 문화의 담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사회의 신노년층 문화가 제시하는 이상의 주된 테마들은 미국 등 서구에서 바람직한 노화의 모델로 제시되는 ‘성공적 노화’ 개념과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

가. 바쁜 노인들

이상의 테마들이 모여서 제시하는 신노년은 매우 ‘바쁜’ 노인들이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배우기 위해, 남을 돕기 위해, 자아실현을 위해 노인들은 바쁘다. “얼마나 바쁘지 몰라요”, “옛날보다 더 바빠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아플 거예요” 라는 이야기는 할 일 없이 시간을 죽이고 있는, 뒷방에 앉아 있는 노인이 아니라는 표현의 연장선에 있다. 활동적이고 참여하는 삶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일 중심 윤리(work ethics)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바쁘다는 것은 현역에서 은퇴는 하였지만 무엇인가 생산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노인들에게 삶의 어떤 연속성을 부여한다. ‘바쁜 생활’은 또한 노화로부터의 방어기제의 성격을 가진다. 바쁘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중년기의 삶’과 유사한 삶의 유형을 계속한다는 측면에서도 ‘늙는’ 것을 극복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활동이론에 기초한 성공적 노화 역사는 ‘외형적으로 바쁜 라이프스타일’이다(Gubrium, 1973). 건강에 부여하는 중요성, ‘바쁜 생활이 건강에 좋다’,

‘신체적 건강이 건강한 정신을 가져온다’는 믿음, ‘짜장 짜인 생활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개개인의 의지와 인성을 보여주는 훈장이다’라는 의식 등이 모여져 서구의 노인문화는 ‘비빔’에 대한 수사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우리 신노년층 문화도 유사한 모습이다.

[치매 막는 생활습관] (중간생략) 사회활동을 많이 하라. 건강한 뇌는 지능적인 뇌라고만은 할 수 없다. 사회적인 자극이 매우 중요하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지 말고 교회든 북클럽이든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는 곳에 끼어라.

(한겨레신문, 2005. 6. 22.)

나. 자기계발과 자기관리

신문매체에 등장하는 신노년층의 또 다른 공통적인 모습은 자기계발과 자기관리에 힘쓰는 노인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매일 꾸준히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자원봉사나 재취업 등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경향은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를 주로 다루는 ‘노후대비’에 관한 기사나 ‘노년기 생활지침’에 관한 기사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경제, 건강, 여가 등 모든 영역에서 ‘성공적인’ 노년은 개인이 얼마나 노력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였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노후, 스스로 준비한다. 고령화사회를 맞아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실버운동이 노년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한겨레신문, 2001. 10. 30.)

“고령화 사회가 되면 ... 옆에서 도울 사람이 없으니 노인도 스스로 살아야 한다. 또 이렇게 해야 건강한 장수인, 즉, ‘보석 같은 장수인’이 될 수 있다”

(조선일보, 2002. 9. 27.)

“자신을 계발하고 남을 돕는 봉사로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한 3명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멋진 노인상’을 받는다.

(조선일보, 2002. 11. 7.)

자기관리에 대한 강조는 성공적 노화 담론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즉,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은 본인이 얼마나 스스로를 관리하고 노력하였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논의는 생산적 노화 담론에서 사회에 대한 기여로 확대된다. 이와 유사하게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이나 노인고용에 관한 내용을 다룬 신문기사들을 살펴보면, 대개 부양비와 같은 통계자료와 함께 고령사회에 대한 위기의식을 고취시키며 노인들에게 일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보다 노골적으로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사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생산성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노인들의 심층적인 목소리, 즉, 노인주체로부터 나왔다기보다는 복지위기나 고령인구에 대한 경제적 우려와 같은 사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Estes와 그의 동료들(2003: 78)은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의 담론들이 사회의 특정한 필요에 대한 대응으로 노인들 스스로를 감시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사회통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노인의 노동을 강조하는 기사들의 시각을 살펴보면, 노인은 한편으로 의존적 성향을 갖기 쉬운 존재들이며, 따라서 사회에 생산적으로 기여하도록 계몽하고 갱생해야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결국 노인의 생산성을 강조하는 담론은 기존의 노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한 새로운 논의라기보다는,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이 노인의 의존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경계하는 기존의 인식에서 출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노인 자립 돕는 협동조합 세운다] (중간생략) “협동조합은 노인들에게 경제적력을 유지하게 하고 자립·독립심도 키워주며 사회에 부담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2005. 11. 26.)

“노령화사회가 될 수록 노인들이 세금을 축내는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경제활동인구로 당당하게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선일보, 2002. 2. 24.)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연금을 주고 의료보장을 잘해줄 경우 사회적 비용만 올라가고 개인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노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 노인들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때”

(동아일보, 2005. 8. 1.)

다. 신노년과 구노년의 대비

한편으로 노인과 관련된 기사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노인 빈곤, 자살, 소외, 요양보호 등의 ‘노인문제’를 다루는 기사들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통계치나 연구결과 등에 대한 보도에서 드러나는 ‘보통’ 노인들의 현실은 여전히 아프고 가난하고 외로운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의 60대 이상 노인 10명 중 8명꼴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노인의 월 생활비는 50만원 미만이 70.4%나 돼 생계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 노인 “몸은 아프고 돈은 없고”

(동아일보, 2005. 9. 13.)

결과적으로 신문매체에 등장하는 노인집단은 신노인과 구노인으로 양분되고 할 수 있다. 특히 신노년층에 대한 기사의 경우 평범한 노인들과 차별화된 인물들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기사에서 드러나는 신노인과 구노인의 특징은 <표 1>과 같이 긍정과 부정이라는 이분법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이곳(은퇴농장) 노인들에게선 집단 노인시설에서 흔히 느껴지는 쓸쓸함과 무기력함을 찾을 수 없다. ... “다방에 앉아 시간과 육체와 정신을 소모하는 생활을 하다 이처럼 뭔가를 생산해내니 사는 맛이 난다”
(조선일보, 1996. 3. 15.)

‘나이를 거꾸로 먹는 사람들이 있다’ ... 커피티, 검정색 선글라스, 분홍색 립스틱과 같은 화려한 색깔이 눈에 들어온다. 머리카락은 분명 하얀데 ... ‘노인문화’가 뭘까. 경로당이나 공원에서 바둑, 장기를 두거나 화투놀이, TV보기, 라디오 듣기? 이런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지관의 풍경은 ‘충격’이다.
(조선일보, 2005. 11. 11.)

〈표 1〉 신문매체 등장하는 노인의 이미지

신노인	구노인
부유함·윤택함	가난함
생산적·활동적	무기력·게으름
독립적	의존적
미래지향적	과거에 고착
젊고 건강	늙고 병들
적극적인 사회참여, 정치적 주도권	소외, 수동적

그리고 이러한 신노인과 구노인의 구도에 상응하는 노년의 행·불행이 개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노인 세대로 접어들게 되면 병들고 주머니가 빈 자신의 처지를 한탄만 하는 사람들과 남은 생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려는 사람들로 나뉘고 있다. 당연히 후자유형의 사람이 늘어나야만 더 성숙한 사회일 것이다

(한겨레신문, 2002. 12. 14.)

‘평균수명의 연장과 사람을 못 죽게 만드는 기술의 발달로 이제 ‘굵고 짧게’는 불가능해졌다. 건강한 노년이나 병든 노년이나의 선택만 남았다. 그리고 병든 노인에게는 고통스럽지만 죽을 수도 없는 20년, 30년, 40년의 세월이 기다리고 있다. 이는 가족의 고통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굵고 짧게’를 말한다면 그 사람은 ‘열정’을 가장해 건강에 대한 자신의 불성실함을 은폐하려는, 무책임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조선일보, 2002. 10. 9.)

이상에서 보듯이, 대중매체에서 부각되는 노인집단의 분리구도는 성공적 노화 모델에서 노인들을 ‘성공적으로’ 노화한 노인과 ‘보통으로’ 노화한 노인을 구분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대중매체에서의 이러한 구도에는 집단 간 극명한 차이만 강조 될 뿐 양자간의 간극이 어떻게 메워질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주11)} 오히려 대중매체에서는 자기책임의 논리가 더욱 강조되면서 신노년의 삶을 살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한 질책, 즉, 구노년에 속하는 노인들의 ‘불성실’과 ‘게으름’에 대한 비난이 더욱 적나라하게 제기된다. 여기서, 이미 주변화된 노인들을 더욱 주변화시킬 수 있다는 성공적 노화 담론에 대한 우려가 대중매체를 통해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대중매체를 통해 유포되는 신노년층 문화의 담론이 노인들에게 일종의 강력한 모델로써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공적 노화의 담론의 이분법적 접근은 노인집단에 대한 이원화된 통제전략이라는 지적(Estes, Biggs, & Phillipson, 2003; Moody, 2001)과 마찬가지로, 대중매체에서의 신노년과 구노년의 분리 구도는 전자에 속하는 노인에게는 이데올로기의 내면화를 통한 자기 감시 전략으로, 후자에 속하는 노인에게는 외적인 감시를 통해 통제하려는 사회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주11) 이기욱 등(2004)은 이러한 담론들이 겉으로는 노인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인집단을 시민으로서의 일반노인과 요보호노인으로 구분함으로써 노인집단 내에서의 집단간 격차를 강화하고 후자에 속하는 노인들을 더욱 타자화하는 새로운 차별이라고 비판하였다.

경기도가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노인동아리’를 만든다. ... 노인정에 모여서 화투치고 술 마시는 일로 소일하는 ‘무기력한 노인’에서 존경받는 ‘사회의 어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한다는 복안이다. ... 오락보다 노인들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와 같은 생산적인 활동분야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조선일보, 2000. 7. 25.)

7. 결론

이상에서 서구의 성공적 노화 모델의 한국사회의 대중매체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신노년층의 공통점과 함께 그 제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화모델의 대중매체를 통한 가시화가 한국사회의 노인들에게는 특히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 성취지향성을 강조하는 사회로 변화하고는 있으나 아직 집합주의적 생각이나 가족주의 등 전통적 가치가 공존하고 특히 현재 노인들이나 중년층은 사회화를 통해 전통적인 가치를 내면화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전반적 문화 지향성이 서구적 문화, 젊은이 중심 문화로 바뀌는 것도 쉽지 않은 적응인데, 노년기에 대한 문화까지도 미국식 모델, 담론이 강한 힘으로 확산되는 현실이 노인들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대중매체에서 제시되는 신노년층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과의 괴리, 특히 지역, 계층에 따른 차이는 노인집단내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실패감의 경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소외계층 노인들의 삶의 무게를 더욱 크게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사회가 서구식의 성공적 노화를 뒷받침할 구조적, 사회적 정책적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의 의미와 긍정적 효과,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실제 노인들이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극히 부족한 상태이다. ‘좋은 일을 하러 나서도 끼어주지 않는다’는 어느 여성 퇴직 노인의 기사(동아일보, 1998년 11월 22일자)를 보자. 수학교사 출신의 이 은퇴여성은 가출청소년에게

수학을 지도할 자원봉사자를 찾는다는 사회단체에 전화를 걸었다. 유독 수학과 목 지원자가 없어서 난처했다던 직원은 이 여성의 나이를 듣고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고 그 후로 연락은 없었다고 한다(한경혜, 2000). 혈연 중심적 사고가 내면화된 우리나라 노인에게 타인에 대한 자원봉사는 매우 낯설은 개념이다. 그러나 노년기 봉사하는 삶의 긍정적 가치가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면서,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노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많지 않고, 실제 어느 정도의 노인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노년기의 특징, 즉, 삶의 축적된 경험이나 지혜 등을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자원봉사 조직은 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에게는 ‘남의 일’로 여겨지는 것 또한 현실이다. 노년에 ‘일’(유급노동)을 지속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정이다. “일하는 노년이 아름답다”는 것이 슬로건화 되고 “노인도 일해야 살 수 있다”는 식의 논의들이 무성하지만, 실제 노인의 취업실태나 취업욕구 조사에 대한 보도를 살펴보면 노인들의 취업욕구에 비해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대부분 노인일자리가 저임금의 단순노동이어서 다양한 노인층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되는 성공적 노화 이미지는 노인의 삶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성격의 스테레오타입이 될 것이다.

서구적 ‘성공적 노화’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노화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 문화가 가지는 귀중한 강점을 간과하게 된다는 점을(한경혜, 2000)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전통문화가 그려내는 바람직한 노화의 모습은 ‘활동이론’보다는 ‘분리이론’에 더 가까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된 현대 사회에서 이런 관점, 이론이 여전히 가장 적합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노화에 따르는 상실, 저하, 그리고 죽음까지를 생애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조망하는 우리의 전통적 관점은 현대에도 많은 시사점을 가진다고 본다. 전통적 관점에서는 노년기의 흰머리, 쇠퇴하는 신체, 의존성의 증가와 죽음은 생의 예측가능한 필연적 과정으로 보았다. 자신이 입을 수의나 자신이 묻힐 자리를 미리 준비하고 생각해 놓는 것이 노화에 대한 우리 노인들의 문화였다. ‘외출

시에 깨끗한 내복을 골라 입고, 주머니에는 연락처를 챙겨 넣고 이런저런 장례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어머니'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생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까지를 포함하는, 생애과정에 대한 완전한 지도(map)를 가진 노인의 모습인 반면, “어머니가 죽음을 입에 올리실 때마다 너무 싫었어요” 라는 딸은 노화를 거부하고 죽음을 포함하지 않는 불완전한 형태의 서구식 지도에 익숙한 우리 세대의 모습이다.^{주12)} 이런 점에서 마치 중년기의 연장이 성공적 노화의 모습인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적 추세에 대한 반동으로, 생은 시작, 중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자는 움직임이 서구에서도 일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식적 노화(conscious aging)’라고 부르는 이 운동은 노년학자, 의사, 심리학자, 철학자들이 주동이 되어 ‘황금기’라는 수사에 묻혀버린 노화의 실체를 알고, 받아들이기를 주장한다. 미국에서 이러한 운동이 일어난 배경에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중년기에 진입하면서 자신들의 노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있다. 미국의 베이비 붐 세대는 생의 2/3를 성공적으로 살아온 세대로 일컬어진다. 이들은 나머지 1/3의 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노년의 내재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별고, 쓰기 바빴던’ 생에서 ‘의미를 찾는’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성공적 노화 모델은 노년기 생의 의미 추구에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주12)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부재는 우리나라의 대중매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 역시 ‘이환을 압축’의 개념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노화담론과 너무나 유사하다.

[나이들어 대접받는 7가지 비결] 최근 들어 나이 지긋한 분들의 모임에 갈 때 마나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9988234.’ 즉,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이틀만 앓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뜻이다.

(동아일보, 2006. 2. 24.)

제 2 절 학문적 논의에서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논의

노인들의 삶, 특히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삶의 구성요소와 요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노년연구의 시발점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노년학의 태동과 함께 꾸준히 지속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노년기의 바람직한 삶을 묘사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어로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라는 용어는 간헐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성공적 노화’가 전면적으로 학계에 부각하게 된 것은 신노년학(New Gerontology)이 등장한 근래의 일이다. 한편, 최근에는 ‘성공적 노화’가 가진 활동적 참여를 더욱 확장하고 강조한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가 주목을 받고 있다.^{주13)}

이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와 ‘생산적 노화’에 대한 한국 학계의 인식과 이해를 정리하고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2006년 9월 현재까지 한국 노년연구의 대표적인 학술지라 할 수 있는 <한국노년학>에 발표되었거나, 학술자료 데이터베이스인 <한국학술정보 KISS>를 통해 접근 가능한 학술논문 중 제목, 주제어, 그리고 본문 속에 ‘성공적 노화’와 ‘생산적 노화’를 담고 있는 논문들을 추출하였다.^{주14)} 물론 이 외에도 학위논문, 단행본, 번역서 등이 있기는 하지만, ‘성공적 노화’에 대한 학계의 연구현황을 살펴보기에는 이상의 연구학술 논문들으로써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추출된 논문 중에서 사회과학이나 행동과학 이외의 학문분과(예. 생물학, 의리학 등)에서 발표된 논문은 제외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이 연구에서 검토된 논문은 총 51편으로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 관련논문에 대한 분석은 두 단계에 걸쳐 실시하였다. 우선 논문 제목, 국문 및 영문주제어, 국문 및 영문 초록, 본문 등에 해당 용어가 등장하

주13) Successful Aging 과 Productive Aging 에 관한 다양한 번역이 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성공적 노화’와 ‘생산적 노화’로 통일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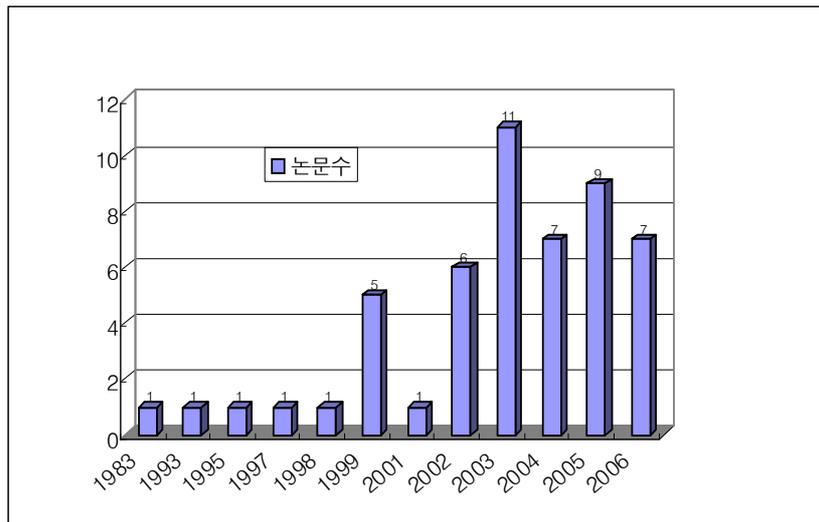
주14) 관련 논문을 찾기 위한 검색어로 ‘성공적 노년’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 ‘생산적 노화’, ‘생산적 노화’, ‘생산적 노년’ 등을 이용하는 한편, 영문주제어인 successful aging 과 productive aging 을 함께 이용하였다. 논문에 따라서는 국문초록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주제어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는 논문의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논문제목과 주제어 (혹은 주제어 항목이 없을 경우는 초록)에 해당 용어가 있는 논문들만 선별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1. 성공적 노화 및 생산적 노화 관련 발표논문의 전반적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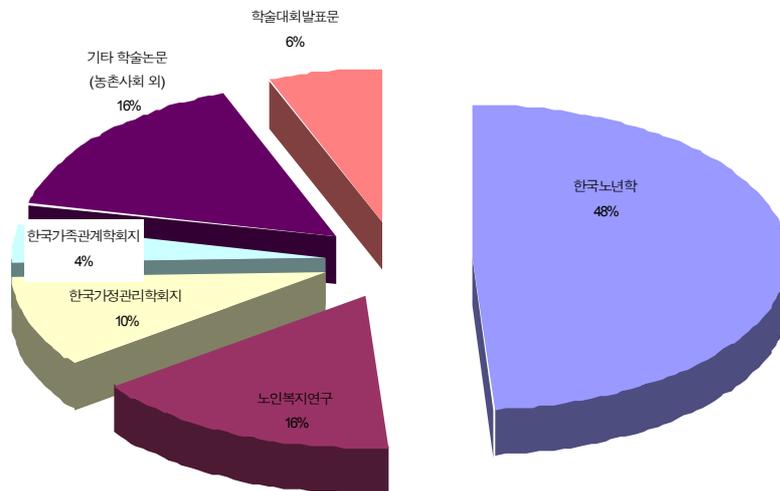
다음의 [그림 1]은 이 연구에서 분석된 논문들의 발표연도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 의하면, ‘성공적 노화’ 나 ‘생산적 노화’ 등의 용어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간헐적으로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본격적으로 논문제목이나 주제어에 등장한 것은 2000년대부터이며 특히 최근에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성공적 노화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집중은 최근의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사회에서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Rowe와 Kahn(1997, 1998)을 기점으로 활발해지고 본격화되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발표연도별 ‘성공적 노화’ 및 ‘생산적 노화’ 관련 논문 수



다음의 [그림 2]에서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 용어를 포함한 논문이 발표된 학술지를 살펴보면 <한국노년학>이 25편으로 다수를 차지하며, 이를 이어 <노인복지연구>가 8편, <한국가정관리학회지>가 5편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의 학술지에는 1~2편 정도가 게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가족관계학회지>, <농촌사회>,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족복지학>, <한국심리학회지>, <한국체육학회지>, <한국사회체육학회지>, <한국여성체육학회지>, <한국스포츠리서치>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한국심리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등의 학술대회 발표논문이 3편 있으며 연구보고서가 1편 존재한다. 이는 ‘성공적 노화’와 ‘생산적 노화’가 노인, 노년 및 노화에 관한 전문학술지인 <한국노년학>과 <노인복지연구>를 중심으로 발표되고 논의되지만, 가족관련 전문학술지와 사회체육관련 학회지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 학회지별 발표 논문 수



논문제목의 측면에서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51편의 논문을 살펴보면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의 개념이 제시된 논문은 다음의 <표 2>와 같이 총 30편으로 나타났다. 이들 논문은 1993년, 1995년, 1997년, 1998년, 1999년에 각각 한 편씩 발표되다가 2002년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발표되는 학술지도 노년학 전문학술지인 <한국노년학>과 <노인복지연구> 뿐만 아니라 가정학, 농촌지역학, 체육학 등의 학술지로 다양해졌다. 이것은 인구고령화 현상이 사회적인 주목을 받게 되면서 학문적 저변이 확대되었으며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여러 학문분과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가 논문제목에 등장한 논문편수, 1993~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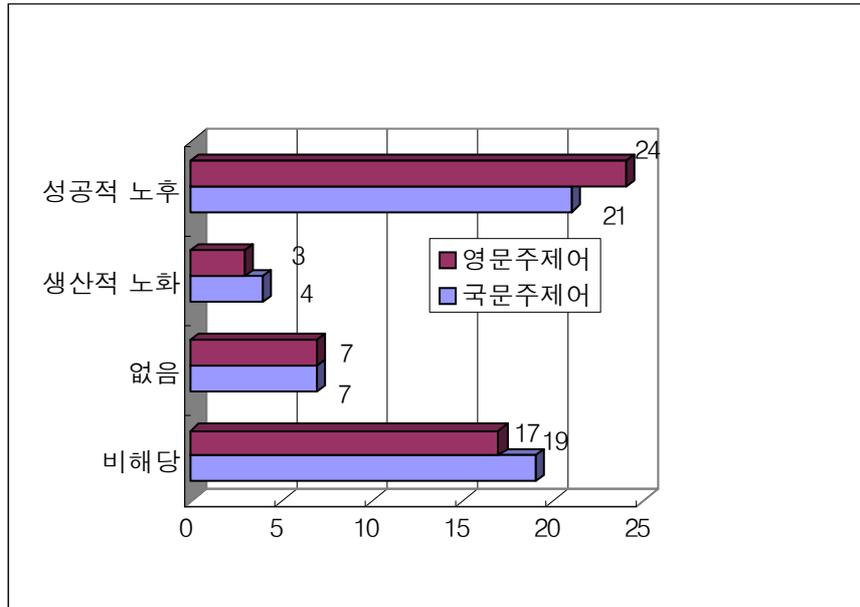
발표연도	1993	1995	1997	1998	1999	2002	2003	2004	2005	2006
논문편수	1	1	1	1	1	5	7	3	7	3

주: 2006년은 11월 현재/ 제시되지 않은 연도에는 해당논문이 없음.

국문주제어나 영문주제어는 학술지의 성격이나 발표연도에 따라서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가령 <한국노년학>에서는 2001년도까지의 논문에 주제가 들어가 있지 않으며, <노인복지연구>는 2002년도까지의 논문에 주제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술대회발표논문은 초록이나 주제가 제시되지 않는다.^{주15)} 다음의 [그림 3]은 국문 및 영문주제어에서 ‘성공적 노화’와 ‘생산적 노화’가 등장한 논문편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 의하면 국문주제어와 영문주제어간에 해당 용어가 등장한 논문편수가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학술지에 따라 영문 주제어만 제시한 논문이 있는가 하면(예. 한국체육학회지), 저자에 따라 국문주제어와 영문주제어를 반드시 일치시키지는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15) 이 외에도 국문초록이나 영문초록을 논문에 삽입하지 않고 이들을 모아 학술지에 따로 게재할 경우, <한국학술정보>를 통해 접근할 수 없다는 점도 초록과 이에 동반되는 주제를 찾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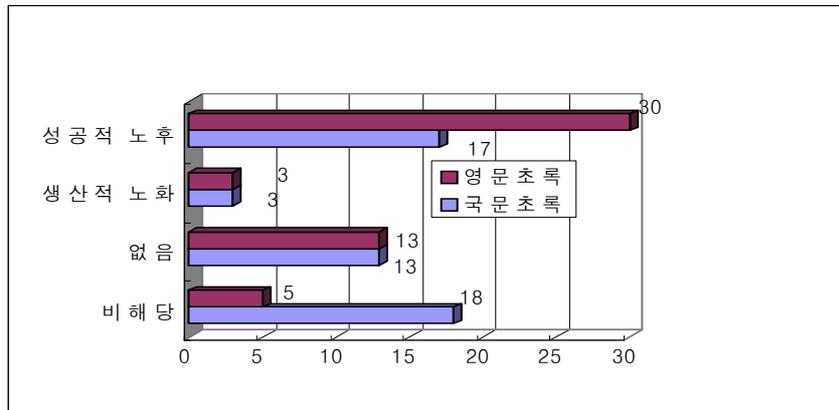
[그림 3] 국문 및 영문 주제어상에 해당 용어 등장 논문편수



이 그림에서 ‘비해당’은 논문에 주제어 항목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로 2002년 이전의 논문들과 학술대회발표논문들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논문 형식에 주제어는 있으나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를 주제어로 포함하지 않은 논문도 7편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국문주제어를 살펴보았을 때, ‘비해당’에 속하는 논문들을 제외한 총 32편의 논문 중에서 성공적 노화를 담은 논문 21편, 생산적 노화를 담은 논문 4편, 두 가지 용어 중 어느 것도 담지 않은 논문이 7편이 된다. 마찬가지로, 영문주제어에서도 ‘비해당’의 논문을 제외한 총 34편의 논문 중에서 성공적 노화를 담은 논문 24편, 생산적 노화를 담은 논문 3편, 두 가지 용어 중 어느 것도 담지 않은 논문이 7편이 된다.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라는 용어를 제목에 담은 논문이 30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문이나 영문주제어에 이 같은 용어들이 등장하는 논문이 약간 더 많기는 하지만 얼추 비슷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국문 및 영문주제어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문 및 영문초록이 제시되지 않은 논문들도 상당수 발견된다. 다음의 [그림 4]는 국문 및 영문초록에서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 등의 개념이 등장한 논문편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 의하면 국문초록을 아예 포함하지 않는 논문은 18편(비해당 사례)이고, 영문초록을 포함하지 않는 논문은 5편(비해당 사례)이다. 비해당을 제외한 사례들 중에서, 국문초록에 성공적 노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논문은 17편, 생산적 노화라는 용어를 언급한 논문은 3편, 그리고 이들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논문은 13편이다. 한편, 비해당을 제외한 상태에서 영문초록에 성공적 노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논문은 30편, 생산적 노화라는 용어를 언급한 논문은 3편, 그리고 이들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논문은 13편이다.

[그림 4] 국문 및 영문 초록상에 해당 용어 등장 논문 편수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라는 용어가 논문제목, 국영문주제어 및 국영문초록에 등장했는지의 여부를 교차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이 표에서는 국문주제어나 영문주제어의 구분을 하지 않은 채 한 곳에서 해당 용어가 등장하였으면 주제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초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문과 영문 구분 없이 초록 중에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표 3〉 논문제목, 주제어 및 초록에서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 용어 포함여부

제목	주제어 및 초록	국영문 주제어		국영문초록		전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21편	8편	23편	6편	29편
없음		7편	13편	10편	12편	22편
전체		28편	23편	33편	18편	51편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51편 논문 중에서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라는 용어가 제목에 포함된 논문은 29편이다. 이들 대부분의 논문은 국영문 주제어와 국영문초록에도 해당 용어를 싣고 있다(각각 21편과 23편). 제목에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를 포함하지 않은 논문 22편 중에서 국영문주제어에 해당 용어를 제시한 논문은 7편으로, 나머지 13편은 제목과 주제어 어디에도 해당 용어를 싣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논문들에서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는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본문 속에서 언급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제목과 국영문 초록 모두에서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 논문들(12편) 또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라는 용어는 1980년대의 학술논문에서도 등장하였으나 이 용어가 눈에 띄게 자주 인용되게 된 것은 근래의 일이라 볼 수 있다.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라는 용어가 담긴 논문들은 <한국노년학>과 <노인복지연구>에 주로 실렸으나 최근에 을수록 해당 용어를 담은 논문이 실리는 학술지가 다양해져 가족 및 가정학 분야의 학회지 뿐 아니라 체육학관련 학회지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논문의 핵심적인 요소를 드러내는 제목, 주제어 및 초록 등을 살펴볼 때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에 집중한 논문은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논문제목과 주제어 혹은 논문제목과 국영문 초록에 해당 용어를 싣지 않은 논문들이 적지 않은 점은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가 직접적이거나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근의 논문
에 자주 인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성공적 노화 및 생산적 노화 관련 발표논문의 세부분석

이제까지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라는 용어가 논문제목, 주제어, 초록, 본
문 등 어느 한 곳이라도 등장한 논문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논문제목과
국영문주제어 혹은 논문제목과 국영문초록에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라는
용어를 포함한 총 24편의 논문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
한 논문들은 적어도 논문제목에 성공적 노화 혹은 생산적 노화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 용어들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연구물로 이해될 수 있다.^{주16)} 다음의
<표 4>는 이들 논문의 저자, 발표연도, 발표지, 논문제목을 제시하고 있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를 제목에 담은 논문
들은 두 편을 제외하고 모두 2002년 이후에 출간된 논문들이다. 따라서 성공적
노화와 생산적 노화라는 용어가 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인기(popularity)를
획득한 것은 최근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저자들을 살펴보면, 특정 저
자들의 연구 활동이 매우 왕성할 뿐 아니라 이들 연구자들이 긴밀하게 연결되
어 공동연구를 진행함을 알 수 있다. 가령, 김미혜는 5편의 논문을, 신경림, 홍
현방, 신경림 등은 4편의 논문을, 강인은 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들 간
에는 학문적인 협업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주17)}

주16) 논문제목, 국영문주제어 및 국영문초록 어디에도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라는 용어를 포
함하지 않은 논문은 전체 51편중 6편으로 나타난다. 이들 논문들은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의 개념이나 내용은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거나, 매우 지엽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주17)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저자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일군의 학자들
이 성공적 노화 연구에 있어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표 4〉 성공적 노화 및 생산적 노화를 제목에 담은 논문

저자	출간연도	논문제목	게재지/권호수
최근하	1993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재산형성과 관리	한국노년학 13(2)
김영선 윤진	1997	중고령 근로자의 성공적인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Baltes의 성공적인 노화이론 적용	한국노년학 17(2)
나항진	2002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의 여가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겨울호
홍현방	2002	성공적인 노화와 노인의 종교성 관계 연구	한국노년학 22(3)
박경란 이영숙	2002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2(3)
성혜영 이정현	2002	성공적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2)
강인	2003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 연구 20
김형수	2003	노인부양의 한계와 생산적 고령화 방안	노인복지연구 22
홍현방	2003	노인의 영양건강과 성공적인 노화의 관계	노인복지연구 21
하정연 오윤자	2003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선택 적정화 보상책략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홍현방 최혜경	2003	성공적인 노화 정의를 위한 문헌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김상호 김형수	2003	빈곤노인의 생산적 고령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김미혜 임연옥 권금주 김혜선	2004	성공적 노후를 위한 한국 노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기대	한국가족복지학 13
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인	2004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경험	한국노년학 24(2)
홍현방	2005	생산활동 수준이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9
백지은 최혜경	2005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유형 및 예측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표 4〉 계속

저자	출간연도	논문제목	게재지/권호수
최혜경 백지은 서선영	2005	노인들의 인식을 통한 한국적인 성공적 노화의 개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박수경 문수경	2005	성공적 노화를 위한 신체 장애노인의 심리적 임 파워먼트 관련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6(1)
김미혜 신경림	2005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고대선 원영신	2005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의 의 미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4
원형중	2005	우리나라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여가 정책	한국여성체육학회지 19(3)
김미혜 신경림 최혜경 강미선	2006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6(1)
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인	2006	고령화 한국사회의 부양체계구축을 위한 연구: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별 부양체계 분석을 통하 여	한국노년학 26(3)
성혜영 조희선	2006	Rowe와 Kahn 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성공적 노 화모델	한국노년학 26(1)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연구자와 연구분야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뿐 아니라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앞의 <표 4>에 제시된 논문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거나 유형화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의 연구경향과 내용 등을 간략히 살펴보기 위해 실험적으로 유형화 작업을 시도해 보았다. 물론 이러한 유형화는 해당 논문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으나, 개략적인 구분은 저자들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유형화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성공적 노화 및 생산적 노화 제목 논문의 실험적 분류

연구주제	연구내용 (상위)	연구내용 (하위)	해당 논문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화 정의 문헌연구		홍현방·최혜경(2003)
	성공적 노화 상태 및 구성요인	질적 방법	박경란·이영숙(2002), 강인(2003), 김미혜·신경림· 강미선·강인(2004), 최혜경·백지은·서선영(2005)
		양적 방법	성혜영·유정현(2002), 김미혜·임연옥·권금주·김 혜선(2004), 백지은·최혜경(2005), 김미혜·신경림 (2005)
	성공적 노화 모형의 응용		홍현방(2002), 홍현방(2003), 하정연·오윤자(2003), 홍현방(2005), 김미혜·신경림·최혜경·강미선(2005), 김미혜·신경림·강미선·강인(2006), 성혜영·조희선 (2006)
기타		최근하(1993), 김영선·윤진(1997), 나항진(2002), 박수경·문수경(2005), 고대선·원영신(2005), 원형 중(2005)	
생산적 노화			김형수(2003), 김상호·김형수(2003),

앞의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기에서 언급할 논문들은 성공적 노화를 다루는가와 생산적 노화를 다루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다음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논문들은 성공적 노화의 정의에 대한 기존문헌에 관한 연구, 성공적 노화란 무엇인가(상태)와 그 구성요인에 관한 연구, 성공적 노화 모형을 응용한 연구, 그리고 성공적 노화가 제목에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논의나 연구결과물이 있다고 하기에 불분명한 연구들로 구분가능하다.

가. 성공적 노화 정의에 대한 문헌연구

성공적 노화의 정의에 대한 문헌연구를 따로 구분한 것은 이를 통해 성공적 노화에 담긴 암묵적인 함의(여기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 함의)나 이 용어가 가진 한계 등에 대한 고찰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홍현방·최

혜경(2003)은 서구사회의 성공적 노화 문헌 검토를 통해 성공적 노화의 특성을 추출하고, 그것을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하려는 시도를 가지고 이러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은퇴와 활동 어느 쪽이든 성공적 노화는 가능하기 때문에 성공적 노화의 방법 또한 매우 다양하다고 평가한다. 또한 성공적 노화의 다른 개념들로 심리적 안녕, 신체건강, 지혜 등을 소개한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서구문헌 검토를 통해 그 정의와 구성요소를 정리한 홍현방·최혜경(2003)은 Batles와 Batles의 SOC 모형과 Rowe와 Kahn의 성공적 노화 연구물인 맥아더 연구를 충실히 전달한다. 이들은 SOC 모델이 과정으로서의 노화, 그리고 성공적 노화의 중요요인으로 활동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단순히 중년기만큼의 활동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에 맞게 조절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라는 제안에 주목한다. 한편, SOC 모델에서 활동의 선택과 적정화 및 보상을 논의했다면 맥아더 연구에서는 노인의 활동에 대한 정의를 좀 더 현실적으로 구체화하여 그러한 활동에 계속 참여할 것을 주장한다고 평가한다.

이상의 문헌검토와 평가를 통해 저자들은 성공적 노화가 결과가 아닌 적응과정(계속적인 성장발달)으로, 이에 이르는 하나의 정상적인 길은 없다고 보고 노인마다 성공적 노화의 방법이 다름을 강조한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노화란 과거와 현재를 수용하고 가까이 닦친 죽음을 받아들이며 동시에 삶의 의미나 목적을 잃지 않고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심리적인 발달과정이다. 또한 정신, 신체상의 질병이 없어 기능적이며, 사회관계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개념적인 정의를 내린다(홍현방, 최혜경, 2003:152). 또한 조작적인 정의에서는 “각 세 차원, 개인적인 자원, 적응과정, 심리적 측면에서 점수가 높으면 성공적인 노화”인 것으로 볼 것을 주장한다(홍현방, 최혜경, 2003:152).

이 연구물은 성공적인 노화 개념에 대한 서구학계의 정의를 정리하는 한편, 성공적인 노화 방식의 개인별 차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구, 특히 미국사회에서 성공적인 노화 개념이 대중적인 담론이나 학계의 인기어로 등장한 후 그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았다는 점을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나중에 살펴보겠

지만, 여기에서 살펴보는 대부분의 논문들이 성공적 노화라는 용어가 갖는 부정적인 함의 혹은 의도하지 않는 결과 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

나. 성공적 노화 상태 및 구성요인

성공적 노화란 어떤 상태를 말하며 또 어떤 요소로 구성되는가에 대한 연구 접근방식에 따라 소규모 사회조사에 의존해 척도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내리려는 양적 연구와 심층면접을 통해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려는 질적 연구로 나뉠 수 있다. 우선 질적 방법을 이용한 연구로는 박경란·이영숙(2002), 강인(2003), 김미혜·신경림·강미선·강인(2004), 최혜경·백지은·서선영(2005) 등을 들 수 있다.

박경란·이영숙(2002)은 노인과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적 노화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진 후 이들의 응답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청년 응답자와 노인 응답자의 비교를 통해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세대간의 인식차이를 규명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인이나 청년 모두에게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현재 상황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성공적 노화를 생각한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노인응답자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인으로는 자율(건강, 경제, 자립), 안락한 생활, 상호교류, 역할완수, 개인성장/자아수용, 봉사 등이 파악되었다. 노인과 청년 모두에게서 제1순위로 언급된 자율은 그 내용면에서 세대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노인들은 건강을, 청년은 경제적 측면을 지적하였다. 또한 서구노인들에 비해 한국노인들은 개인과 가족의 안녕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 사회 및 타인에 대한 봉사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는 서구사회에서의 성공적 노화개념과 한국사회에서의 성공적 노화개념이 다르다는 연구자의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강인(2003)의 연구에서 이 점은 분명하게 제기된다. 저자는 “성공적 노화에 관한 서구사회의 척도가 아닌 한국 고유의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의 명시적인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탐색하는데 앞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공적 노화를

어떻게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2003:97).

강인(2003)의 연구는 노년, 중년, 청년기 여성(각 35명)에게 “귀하께서는 성공적인 노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귀하께서는 자신이 성공적으로 노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자유응답식 질문을 한 후 그 응답을 분석하였다. 그에 의하면, 응답자들이 제시한 성공적 노화는 신체적 건강, 개인성장, 정서적 안녕, 자율성, 가족지향, 경제적 안정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은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노년기 여성은 신체적 건강을, 중년기와 청년기 여성은 개인성장을 제1순위에 두고 있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자기평가에서는 노년기 여성의 62%가 성공적으로 노화하고 있다고 응답한데 비해, 중년기와 청년기는 그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된다.

김미혜·신경림·강미선·강인(2004)은 ‘자신이 경험하는 성공적인 노후’라는 질문을 가지고 각 연구자들이 심층면접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성공적인 노후는 복(福)많은 삶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복은 부부, 자식, 친구, 여가, 주거, 재산, 건강, 마음 및 죽음의 9가지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구사회와는 다르게 한국노인들은 특히 자녀에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어서 모든 삶이 자식과 연관되어 다른 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노인들에게 있어서 ‘복’은 하늘이 내려주기를 바라는 수동적 의미의 ‘복’의 개념이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노후의 삶을 분수에 맞게 힘써 노력하고 보람을 느끼며, 그 결과를 하늘이 주는 큰 행운으로 겸손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능동적인 개념의 ‘복’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김미혜·신경림·강미선·강인, 2004).

서구적 가치에 근거해 한국노인들의 성공적 노화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최혜경·백지은·서선영(2005) 연구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들은 또한 기존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주어지는 차원들을 파악하여 노인의 기본적 삶의 욕구를 바탕으로 그들이 인지하고 표방하고 있는 주관성을 간과했다는 한계점에 주목하면서, 성공적 노화에 대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통합적 조망과 성 및 계층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성과 계층에 따라 노인

집단을 구분하고, 이들 집단에서 얻은 구술사(oral history)를 통해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에 접근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에서 남녀노인간의 성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남편과 동일시) 사회계층별 차이는 발견되었다. 가령, 상층은 ‘어딜 가도 떳떳하다’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 ‘욕심을 버린다’ ‘시간을 보람있게 잘 보낸다’ ‘자식이 잘 컸다’ 등과 같은 중용으로서의 삶을 강조한 반면, 중층은 ‘자녀의 성공은 곧 나의 노력이며 공이다’ ‘자녀로 인해 부러움을 산다’ 등과 같은 자식에게 투영된 삶을, 그리고 하층은 ‘내 한 몸 추스르는 삶’을 성공적 노화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 같은 노인 내에서도 계층적인 맥락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한편, 앞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성공적 노화에 있어 공통적으로 한국노인들은 자녀와 관련된 면이 많다는 점 또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이 주로 질적인 연구방법에 의존하였다면 성혜영·유정현(2002), 김미혜·임연옥·권금주·김혜선(2004), 백지은·최혜경(2005), 김미혜·신경림(2005) 등의 연구는 소규모 서베이에 근거해 계량적인 방식으로 성공적 노화의 척도를 개발하거나 그에 대해 평가를 내리려는 노력들이다. 성혜영·유정현(2002)은 소규모 표본과 다량의 측정문항을 이용하는 Q방법론을 통해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성공적 노화의 요소들을 경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들은 Rowe와 Kahn의 적극적 인생참여 모델의 주요 개념들, Baltes와 Baltes(1990)의 SOC모델의 주요 개념들, 국내외 관련논문들에서 언급된 주요개념과 내용들, 그리고 인터넷의 노인사이트와 국내언론 보도자료에서 획득된 진술문(각각 6개, 5개, 3개, 12개로 총 27개의 진술문)을 제시한 후 각 진술문에 대한 동의정도를 측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50대이상의 남자(15명)와 여자(11명)로 이들의 응답을 분류해 본 결과,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우선, 사회관계지향 및 기능중시형은 대체로 관계지향적이며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유지를 중시하는 유형으로 Rowe와 Kahn의 적극적 인생참여 모형에 가까운 것이다. 다음으로 주관적 만족 및 부부관계 중시형은 삶의 만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SOC모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 및 편함 추구형이 나타났다. 각 유

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경제력, 가족관계, 질병 예방 문항은 성공적 노화의 요소로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경제력의 경우 노인 복지에 대한 기초적 욕구가 충족되어 있는 서구사회에서는 성공적 노화요소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연금제도가 미비하고 전반적으로 기초적 노인복지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력을 중요시한 것으로 이해된다(성혜영·유정현, 2002).

김미혜·임연옥·권금주·김혜선(2004)은 성공적 노후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자녀와의 관계 및 자녀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성공적 노후에 접근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적 상황에서 자녀관계가 성공적 노후(복있는 삶)의 주요 구성인자임을 출발점으로 삼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성공적 노후를 “노화에 따른 여러 변화들에 잘 적응함으로써 노년기 삶의 질을 높여 삶에 대해 만족하는 상태로 정의한다”(2004:46). 한편, 성공적 노후의 구성요건은 “건강 차원, 부부관계와 자녀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관계 차원, 사회관계 및 여가활동의 차원, 경제적 상황과 주거환경을 포함한 삶의 물리적 환경 차원, 그리고 현재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차원 등의 다차원”으로 이루어지는데(2004:47),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는 성공적 노후 요건으로서의 자녀와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들 연구자들은 김미혜·신경림·강미선·강인(2004)의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성공적인 노후를 ‘복 있는 삶’으로 정의하고, 여러 복 중의 하나인 ‘자식복’과 관련해 자녀에 대한 5가지 기대(자녀건강, 입신양명, 탈없이 살아주기, 아들과 딸이 제 몫 하기, 자녀들과 가까이 살며 왕래하기)를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상과 같은 성인자녀에 대한 기대는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성, 연령, 경제적 수준에 따라 할당 표집된 382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자녀가정의 화목, 자녀의 사회적 성공, 자녀와 가까이 삶, 자녀와의 상호 원조 등이 중요 항목으로 파악되었다.

백지은·최혜경(2005)은 “성공적인 노화가 노인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살아온 자신의 상황과 경험, 맥락에 따라 다르게 기대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이라 전제(2005:3)”하고, 한국노인들이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와 차원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

의 유형을 살펴보고, 그러한 기대에 대한 예측변인을 노인들이 놓여있는 상황적, 맥락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관심은 “서구적인 가치관과 개념에 의존해 왔던 성공적인 노화연구에서 탈피하여,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고유한 성공적인 노화의 모습과 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차원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2005:3)”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성공적 노화의 요소를 나타내는 105개 문항 중 31개 문항을 추출하고 이를 네 가지(일상의 순조로움, 자기관리, 사회적 지원의 확보, (자녀)과시성(자녀출세와 자녀에 대한 지원능력)으로 압축한 후,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377명을 대상으로 측정하고 있다. 그 결과, 성공적인 노화유형은 이상적인 기대형(네 가지 모두 높은 점수/자신과 타인 모두의 평가 높음), 자아중심 기대형(4요인 모두 낮은 점수/특히 과시성이 낮음/타인보다는 자신평가를 중요시), 적정한 자아-타인중심 기대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연구에서는 남녀노인간 성공적인 노화의 기대차이가 보고되는데, 남성노인의 경우 ‘과시성’ 여성노인의 경우 ‘사회지원의 확보’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김미혜·신경림(2005)은 한국 노인들이 노후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보내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성공적 노후 척도’를 개발하고 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려는 작업을 시도한다. 연구자들은 “성공적 노후를 인생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신체, 심리, 사회변화에 잘 적응하고 적절하게 대처해 가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성공적으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고 전제한다(p.38)”. 이들은 척도개발을 위해 106개의 예비문항을 준비한 후, 이를 설문조사를 통해 검토하여 60개를 선택하였다. 이후 선택된 문항에 대해 전문가집단과 노인포커스그룹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고, 30개의 문항을 다시 추출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공적 노후 척도는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녀 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 ‘자기 통제를 잘 하는 삶’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서구사회와 비교했을 때 자아효능감과 자아통제는 한국에서도 발견되지만, 자녀성공과 부부동반적 삶의 요인은 한국에서 두드러진다는 차이점이 보고된다.

성공적 노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양적 방법론에 의존하든, 질적 방법론에 의존하든 서구사회에서 개발된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척도가 한국노인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공통된 출발점으로 보인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연구들이 자신들의 연구목적과 필요성을 서구와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달리하는 한국적 현실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연구관심은 결국 성공적 노화라는 용어 자체가 가진 부정적인 함의는 간과한 채,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만을 한국적 맥락에서 찾으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한편, 성과 계층별 성공적 노화인식의 차이를 주목하려는 연구들 또한 적지 않지만 이 또한 성공적 노화라는 용어가 가진 성과 계층에 대한 차별적인 함의 보다는 인식의 차이에 대한 기술에 집중되고 있다.

다. 성공적 노화 모형의 응용

성공적인 노화란 무엇인가를 파악하려는 이상에서와의 노력과는 달리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으려는 시도들과 성공적 노화에 따른 부양체계 등을 분석하려는 연구들이 있다. 우선 홍현방(2002, 2003, 2004)은 세 편의 논문에서 성공적 노화를 자아통합의 정도로 정의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과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성공적인 노화란 성공적인 적응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그 적응의 결과 노인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획득하게 된다. 심리적인 안정은 다시 행복감, 인생만족, 사기 등 여러 가지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자아통합은 노인들이 과거인생에 대해서는 만족하며, 현재 상태에는 행복을 느끼고, 미래와 관련된 사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인 노화(2002:247)”로 개념적인 정의를 내린 후 “성공적인 노화를 자아통합의 달성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려 접근하고 있다.

자아통합과 종교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종교성을 5개 차원-의식, 헌신, 신념, 경험, 지식으로 구분하고, 자아통합척도로 측정된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홍현방(2003)은 이와 유사한 연구들을 노인들의 영양건강이 성공적 노화와 갖는 관계에 적용시키는데 영양건강은 생활양식, 식사습관,

사회경제적 요인, 신체건강 등으로 구성된다. 이 역시 앞서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아통합으로 측정된 성공적 노화점수는 남녀노인간 연령 간 차이가 없으며 외국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생산활동 수준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려는 홍현방 (2005) 연구는 생산활동을 유급경제 활동, 공식활동(외부활동-투표참여, 복지관이나 노인대학참여, 가입단체참여, 자원봉사활동), 비공식활동(친구만나기, 가사일참여, 성인자녀도와주기, 취미생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는 경기도 고양시 복지관 교육프로그램 참여노인과 천안소재 대학교 대학생의 친가나 외가 조부모 (65세 이상, 총 231부 분석)를 대상으로 하여, 성공적인 노화와 생산활동수준간의 약한 긍정적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하정연·오윤자(2003)는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SOC척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척도는 임의적 선택, 상실에 기반을 둔 선택, 적정화, 보상의 하위척도로 재구성되며, 각 하위척도는 12문항씩 총 4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으로 이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대상자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내가 참 잘 살았어, 혹은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언제인지 묻고 있다. 이 문항에 대하여 노인들은 건강할 때, 사회활동에 적극적일 때, 자손이 잘 될 때, 부부가 오래도록 해로할 때/사회적 명예를 획득했을 때, 경제적으로 풍요할 때, 가족들로부터 존경받을 때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SOC의 책략수준을 3분하여 각 군집별 책략점수와 성공적 노화관련문항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김미혜·신경림·최혜경·강미선(2005)은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를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 자기통제를 잘 하는 삶의 네 가지로 보고 이를 통해 노인들의 현재의 삶이 각 성공적 노화요소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여기에는 성공적 노화의 네 가지 요소 점수가 모두 높은 이상근접형, 성공적 요인은 골고루 갖추고 있으나 점수는 중간정도에 그치는 적당유지형, 부부 동반자적 삶의 요인점수가 매우 낮지만 다른 점수가 높은 배우자결핍형, 성공적 노화요

소 결핍형이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유형간 차이를 노인들의 성, 연령, 소득, 배우자유무, 남아자녀수, 주관적 건강 등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성공적 구성요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공적 구성요소에 따라 노인들의 현실적인 삶의 구분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김미혜·신경림·강미선·강인(2006)은 이전 연구에서 밝혔던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에 따라 경제, 건강, 정서 영역의 주부양제공자와 부부양제공자로부터의 도움 여부와 대체부양제공자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성혜영·조희선(2005)은 Rowe와 Kahn의 구성요소(건강상태, 사회관계망의 특징, 심리적 특징, 신체적·인지적 기능, 생산적 활동의 5개 영역)간의 영향력 및 관련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성공적 노화의 세 가지 이론적 요소가 ‘질병과 장애의 부재 및 그 위험요소가 없는 것’ ‘높은 신체적·인지적 기능’ ‘적극적 인생참여’ 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라. 성공적 노화의 기타연구들

이상의 연구들이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개념적 정의 혹은 조작적 정의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면, 다음에서 살펴볼 몇 편의 논문들에서의 성공적 노화의 개념은 일반적인 aging well 의 개념과 가깝거나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하(1993)의 연구는 다른 연구에 비해 다소 오래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제시한 후, 노화의 경제적 안정을 성취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노화생활이란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노화생활은 건강한 신체상태를 유지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여가활동이나 취미생활로 여유있고 윤택한 생활을 하면서 재산상속 등 여생의 마무리를 잘 하는 것(1993: 183)”으로 정의된다. 연구자는 노화생활을 위한 적정수준의 노화자금은 어느 정도이며 그것을 형성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또 형성된 자금이나 재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김영선·윤진(1997)은 Baltes의 성공적인 노화이론을 중고령근로자의 직무적응에 응용하면서, 중고령근로자(40~60세 기업체 근무자)의 특성(일반잠재능력과

직무요구수준)이 성공적인 직무적응(직무능력유지와 정서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로서 SOC책략을 설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통상적 의미의 노인(대체로 역연령 60세 혹은 65세 이상)들의 성공적 노화를 다루지는 않고 있으며, 대표적인 성공적 노화이론을 응용하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나항진(2002)은 성공적 노화와 여가활동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성공적 노화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논의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삶의 질’이 오히려 더 중요한 개념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논문의 소절 제목이 ‘노인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이라는 점에서 분명해진다. 또한 연구논문의 서론에서도 성공적 노화보다는 삶의 질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와는 성격이 다를 수 있다.

박수경·문수경(2005)은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신체적 건강을 강조하는 상태에서는 장애인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성공적 노화에서 심리적 요인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장애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장애노인들에게 있어 성공적 노화란 신체적 기능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다. 즉, 성공적 노화는 장애노인이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또는 그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하고 향상시키는 사회적 과정이며 임파워먼트로 볼 수 있다(78쪽)”고 주장한다. 또한 “장애노인에게 있어 성공적 노화란 신체기능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처해진 환경에서 문제의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신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극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노인을 위한 성공적 노화는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85쪽)”고 보고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 등록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가 있는 56~80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장애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적응과 역량함양으로 정의하고,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그 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성공적 노화 자체보다는 그 요인인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고대선·원영신(2005)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의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는 물론, 연구자들이 성공적 노화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다만 연구자들의 심층면접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노인들이 질병피해가기(운동, 영양보충, 종교), 활동적인 인생참여(프로그램참여, 사회적 관계형성) 신체적 기능유지(바쁜 일상, 규칙적인 생활)등을 통해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한편, 원형중(2005)은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여가의 필요성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독, 무력, 우울 등이 여가만족에 영향을 주며, 여가만족은 다시 생활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모형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성공적 노화는 분명히 정의되지 않으며, 생활만족도가 성공적 노화의 지표라고 간주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생산적 노화의 연구

본 연구에서 살펴본 생산적 노화에 대한 연구는 김형수(2003)와 김상호·김형수(2003) 두 편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연구들이 내용과 주장면에서 매우 유사하여 굳이 구분하여 전달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이 연구들은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합리적 방안으로 생산적 노화를 주목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취업을 통해 생산적 인간으로서의 유용성과 성취감을 갖고 자 재취업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노인들에게 근로를 통한 소득창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노인 소득보장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물론 생산적 고령화가 생산기여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생산성의 강화라는 비판의 소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연령중심적 패러다임에서 능력중심적 패러다임으로 전환은 그 동안 비생산적 존재로 간주되어 노동시장으로부터 장기적으로 배제된 빈곤노인에게 근로원리를 제공하고 노인빈곤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을 될 수 있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228).”

이 연구들은 노인들이 가진 근로능력과 생산기술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적합한 형태의 생산적 고령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인간중심적 측면과 제도중심적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중심적 측면에서 빈곤노인의 경우 대부분이 근로능력이 낮거나 기술력이 낮은 형편이기 때문에 기술습득과 재활서비스 및 재활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노인들은 근로능력이 있거나 기술력이 높은 노인들이 많아질 것이므로 직무교육과 재활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예측한다. 한편, 제도중심적 측면에서는 고용·교육·복지 one-stop service 기구설치, 연령차별법금지, 유연적 고용의 장려 등이 제창된다. 이 연구들은 생산적 노화에 대한 매우 낙관적인 전망과 전제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노인들의 유급노동이 계층에 따라 노화의 사회적 기여보다는 생존적 차원의 성격이 강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를 연구제목, 주제어, 초록 및 본문 등에 담고 있는 논문 51편을 대상으로 이들 개념들이 각 논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응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우선 이들 논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논문발표시점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논문이 최근에 왕성하게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논문이 발표되는 학술지도 노년학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학을 포함하여 체육학 분야에까지도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 노화는 그 연구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오늘날 매우 인기 있는 연구아이템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세부적인 점검을 위해 논문제목과 주제어 (혹은 논문초록)에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가 포함된 논문 24편을 선택하였다. 물론 여기에서 선택되지 않은 논문들이 선택된 논문들만큼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논문제목과 주제어(혹은 논문초록)에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라는 용어를 담고 있다면, 해당 용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하리라는 예상은 가능하다. 선택된 24편의 논문을 점검해 본 결과, 이 연구물들은 대체로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여

기에는 성공적 노화 정의에 대한 문헌연구, 성공적 노화상태 및 구성요인에 대한 연구, 성공적 노화 모형을 응용한 연구, 성공적 노화라는 용어를 제목에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거나 애매한 연구, 그리고 생산적 노화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공적 노화의 개념은 Rowe와 Kahn의 적극적 인생참여 모형, Baltes와 Baltes의 SOC 모형에서부터 삶의 질, 삶의 만족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과 영역에서 정의되고 있다. 그런데 연구에 따라서는 성공적인 노화라는 용어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글의 성격과 내용이 분명해질 논문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노화라는 용어가 제목에 등장하는 것은 이 용어가 가진 인기성을 학문세계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의 연구들이 일군의 학자를 중심으로 왕성하게 전개된다는 것도 흥미롭다. 또한 다수의 연구들이 한국적인 맥락에서 성공적 노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파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매우 유의미한 활동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들 연구가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에 내재될 수 있는 부정적 함의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비판적으로 되새김해 보지 않은 채, 성공적 노화라는 틀 속에서 그 내용물만 한국적인 것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아닌가 염려된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이 축적되고 확장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한국적 상황에서의 성공적 노화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또 한편으로 성공적 노화 자체에 담긴 함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 5 장 한국에서 성공적 노화 담론이 갖는 함의

성공적 노화 담론은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인구고령화가 단지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만을 던져놓는 사회문제로서 이해되어 왔던 것에서 벗어나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노년기를 경험하는 구성원의 규모의 증대와 노년기의 확장은 과연 한 개인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으며, 이에 사회구조가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성공적 노화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는 노인은 누구인가? 노인은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에 관심을 두게 한다. 생애주기에 걸쳐 노인의 정체성은 어느 정도 고착된 것이며 개인적인 경험과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어떠한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 것인지(Estes et als., 2002)에 대한 구체화된 이론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향후 우리사회에서 지금이라는 시공간적인 맥락 속에서 노인의 정체성의 구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성공적인 노화 담론은 어떠한 노년기가 잘 노화(aging well)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과연 누구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이가옥 외(2004)의 연구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근간을 이루어온 의존의 개념에서 독립의 개념으로 전환이 정책관련자, 정치가, 전문가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강조됨으로써 오히려 논의의 과정에서 노인을 배제하고 노인 내의 차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둘째로, 서구에서의 성공적 노화와 한국에서의 성공적 노화는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맥락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전 생애를 개인주의적 문화 속에서 생활해온 서구의 노인과, 전통적인 사고의 틀을 갖고 청장년기를 보내고 나서 개인주의로

의 변화의 와중에 노년기에 진입한 한국의 노인에게 있어 성공이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또한 성공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백지은, 최혜경(2005)의 연구는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자아지향적 지표와 가족지향적 지표, 타자 지향적 측면으로 다양한 측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경험적 접근에 있어서 양적 접근에서 벗어나 질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가에 의한 성공적 노화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노인 개개인이 어떠한 노후를 영위하며 어떠한 내용의 정체성을 유지 또는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질적인 접근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하겠다.

네 번째로, ‘성공적 노화’를 둘러싼 논의는 성공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이해 없이 이용됨으로써 성공적 노화를 하는 노인은 사회에 기여를 하는 일등시민이며, 그렇지 못한 노인들은 사회에 불필요한 이등시민으로 인식되고, 따라서 사회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즉, 성공적이지 못한 일반적인 노화를 경험하는 노인은 착취, 주변화, 무력감, 문화적 제국주의, 그리고 폭력이라는 형태로 표출될 수 있는 억압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김옥, 2002; Palmore, 2006).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노인을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독립적인 자아상을 갖고(being) 실제 그러한 생활을 실천(doing)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의 전환은 이전까지의 연령차별주의가 노인 일반을 불필요하고 의존적이며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로 보는 일반화된 편견이었다면 성공적인 노화를 하지 못하는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주의로 전환하여 좀 더 표적화된 연령차별주의로 그 강도가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전의 노인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노인이 집단화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반면, 사회에 통합되고 인정받는 노인과 그렇지 못한 노인 간의 분리와 반목을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는 아직 서구식의 성공적 노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적·사회적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자칫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논의가 자칫 성공적 노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노인 개인에 대한 책임전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동시에 노인 개개인

이 잘 노화(aging well)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책적 기반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노화와 노년기를 보는 이론적 시각에 따라 우선순위의 설정이 달라질 수 있다. Rowe와 Kahn의 논의에 따르면 노화에 있어 건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개별 정책 중 건강증진 정책이 가장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반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근로자로서의 역할에서 찾는 생산적 노화론에 따르면 연령차별적 사회에서 이루어진 교육-노동-은퇴라는 3단계 중(Riley & Riley, 2000) 노동의 단계를 가장 중요시하며 그 기간을 가능한한 확장하기 위한 정책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 반면 급진노년학에서는 개별적인 정책보다는 전생애에 걸쳐 경험하고 누적되어온 불평등이 발현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노년기의 불평등에 초점을 두고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 변화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 또한 의식적 노화론에서는 삶을 관조하는 명상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대응에 주목하며,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새로운 연령철학을 정립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노년기를 보는 다양한 이론적 시각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적 선택지를 선택하기에 앞서 그러한 선택이 갖는 이론적인 배경과 함축적 의미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표 6〉 노년기를 보는 이론적 시각과 정책적 함의

이론적 시각	기본 가치	중심 주제	초점	특징	정책적 함의
성공적인 노화	• 건강 • 생존자	• 삶의 만족 • 성공	• 개인 • 항상성	• 사생활 중심주의	• 건강증진
생산적 노화	• 성취 • 근로자	• 중년기 이후 나타나는 후진양성 욕구 • 생산성	• 경제 • 효율성	• 바쁨의 윤리	• 근로기간의 연장
급진 노년학	• 사회정의 • 시민	• 다양성 • 저항	• 정치 • 형평성	• 정치적 올바름	• 급진적 정치
의식적 노화	• 생애발전 • 영적 추구	• 자아 실현	• 개인 • 자아실현	• 새로운 연령철학	• 삶을 관조하는 명상

자료: H. R. Moody, "Productive Aging and the ideology of Old age", in *Productive Aging*, 2001.

참고문헌

- 강명구, 『소비대중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민음사, 1993.
- 강수택,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 의한 일상생활론 연구 - 미드와 고프만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0권, 1호, 1996, pp.417~430
- 강인,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 2003, pp.95~116,
- 김두섭 외,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 유형과 결정요인”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 김미혜·신경림·강미선·강인,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경험」, 『한국노년학』, 24(2), 2004.
- 김미혜·신경림·최혜경·강미선,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6(1), 2005,
- 김미혜·신경림,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 『한국노년학』, 25(2), 2005, pp.35~52
- 박경란·이영숙,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2(3), 2002, pp.53~66.
- 박수경·문수경, 「성공적 노화를 위한 신체 장애인인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관련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6(1), 2005, pp.77~89.
- 백지은·최혜경,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유형 및 예측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2005, pp.1-16.
- 변화순, 「노년기의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노인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1999.
- 성혜영·유정현, 「공적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 Q 방법론적 접근」, 22(2), 2002, pp.75~93.
- 성혜영·조희선, 「Rowe와 Kahn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성공적 노화 모델」, 『한국노년학』, 26(1), 2005, pp.105-123.

- 안지연·김애순·한광희, 「성공적 노화를 위한 선택·적정화·보상책략과 대처행동 양식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청년집단과 중·노년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1998.
- 앤소니 기든스,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권기돈 역, 서울: 새물결, 1997.
- 양옥남, 「여성의 사회화」, 『여성과 한국사회』, 1993.
- 윤 진, 「성공적 노화와 삶의 질: 한국노인 대상연구에서 고려할 측면들」,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엄, 1995.
- 정경희 외,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_____,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정경희, 「노인과 가족수발」, 『한국의 여성정책』, 2002.
- _____, 「가족변화에 따른 노인부양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2002.
- 최혜경·백지은·서선영, 「노인들의 인식을 통한 한국적인 성공적 노화의 개념」, 23(2), 2005, pp.1~10.
- 코오저, 『사회사상사』, 신용하 외(역), 일지사, 1980.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 _____, 『생명표』, 2003.
- 하정연·오윤자,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선택·적정화·보상책략 관련 변인 연구: 중산층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2003, pp.131~144.
- 한경혜, 『신 노년층 문화와 성공적 노화』,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2002. 9.
- 홍현방, 「성공적인 노화와 노인의 종교성 관계 연구」, 『한국노년학』, 22(3), 2002, pp.245~259.
- 홍현방, 「노인의 영양건강과 성공적인 노화의 관계: 대전광역시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1, 2003, pp.49~72.
- 홍현방·최혜경, 「성공적인 노화 정의를 위한 문헌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2003, pp.145~154.

- Angus, J. & Reeve, P., "Ageism: A threat to "aging well" in the 21st century", *Th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25(2), 2006, pp.137~152.
- Baltes, M. M., & Lang, F. R., "Everyday functioning and successful aging: the impact of resources", *Psychology and Aging*, 12(3), 1997, pp.433~443.
- Baltes, P. B., & Smith, J., "New frontiers in the future of aging: From successful aging of the young old to the dilemmas of the fourth age", *Gerontology*, 49, 2003, pp.123~135.
- Braithwaite, V., "Understanding Stress in Informal Caregiving: Is Buren a Problem of the Individual or of Society", *Research on Aging*, Vol.18, No.2, 1996, pp.139~174.
- Breyspraak, L. M., *The Development of Self in Later Life*, Little, Brown, and Company, 1984.
- Bytheway, B., *Ageism*, Open University Press, 1995.
- Connidis, I. A., *Family Ties and Aging*, Sage Publications, 2002.
- Cottrell, L., "The adjustment of the individual to his age and sex ro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No.7, 1942, pp.617~620.
- David A. Karp., "A Decade of Reminders: Changing Age Consciousness between Fifty and Sixty Years Old", *The Gerontologist*, Vol.6, 1988, pp.727~738.
- Deborah Kestin & Van Den Hoonard., "Identity Foreclosure: Women's Experiences of Widowhood as Expressed in Autobiographical Accounts" in Gubrium and J. Holstein(Eds.) *Aging and Everyday Life*, Blackwell, 2000.
- Ekerdt, D. J., & De Viney, S., "Evidence for a preretirement process among older male workers", *Journals of Gerontology*, 48, 1993, s35~s43.
- Estes, L. Carroll, Biggs, Simon & Plhillipson, Chris., "Social Theory, Social Policy and Ageing", Open University Press, 2003.
- E. B. Palmore, L. Branch & D. K. Harris(Eds), *Encyclopedia of Ageism*, The Haworth Pastrol Press, 2005.

- Featherstone, M. & Hepworth., "Images of aging", *Encyclopedia of Gerontology*, 1996, pp.743~751.
- Featherstone, M. & Wernick, A., *Images of Aging*, Routledge, 1995.
- Gauntlett, D., *Media, gender and Identity*, London: Routledge, 2002.
- Grey Kenyon & William, L. Randall., *Restorying Our Lives: Personal Growth Through Autobiographical Reflection*. Westport, CT: Praeger, 1997.
- Hagestad, G., & Heugarten, B., Age and life course. In R. H. Binstock & E. Sh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2nd ed.), New York : Van Nostrand, 1985.
- Havighurst, R. J., "Personality and patterns of aging", *The Gerontologist*, 38, 1968, pp.20~23.
- Havighurst, R. J., "Successful Aging", In R. Williams, C. Tibbits & W. Donahue(Eds.), *Processes of aging*, Vol.1. New York: Atherton Press, 1963.
- Hendriks Jon., "Structure and Identity-Mind the Gap: Toward a Personal Resource Model of Successful Aging", In S. Biggs, A. Lowenstein, & J.J. Hendriks(Eds.) *The Need for Theory*, Baywood Publishing Company Inc, 2003.
- Holstein, M. B. & Minkler, M., "Self, society, and the "new gerontology"", *The Gerontologist*, 43(6), 2003, pp.787~796.
- Hummert, Garstka, Shaner, and Strahm, "Stereotype of the Elderly Held by Young, Middle-aged, and Elderly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9(5), 1994, pp.240~249.
- James E. Birren, Gary M. Kenyon, Jan-Erik Ruth, Johannes J. F. Schrootts, and Torbjorn Svensson, *Aging and Biography: Exploration in Adults Development*, NY: Springer, 1996.
- Kahn, R. L., "Successful Aging: Intended and Unintended Consequences of a Concept". In L. Poon, S. Gueldner, & B. Sprouse (Eds.), *Successful Aging and Adaptation with Chronic Diseases* (pp.55~69).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03.

- Katz, S., "Busy bodies: Activity, aging, and the management of everyday life", *Journal of Aging Studies*, 14(2), 2000, pp.135~152.
- Kaufman, S. R., *The Ageless Self*,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7.
- Lamb, V. L. & Myers, G. C., "A comparative study of successful aging in three Asian countries", *Journal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18(5), 1999, pp.433~450.
- Markson, E. W., & Taylor, C. A., "The mirror has two faces", *Ageing and Society*, 20, 2000, pp.37~160.
- Mead, G. H., *Mind, Self, and Society*, 1934.
- Menec, V. H., "The Relation Between Everyday Activities and Successful Aging: A 6-Year Longitudinal Stud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8, 2003, S74~S82.
- Minkler, M., & Fadem, P., "Successful aging: A disability perspective",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12(4), 2002, pp.229~235.
- Moody, H. R., "From successful aging to conscious aging", In M. L. Wykle, P. J. Whitehouse, D. L. Morris (Eds.). *Successful Aging Through the Life Span: Intergenerational Issues in Health*(pp.55~68).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05.
- Phyllis, Moen., "The Gendered Life Course", pp.179~196, in Robert H. Binstock & Linda K. George(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Academic Press, 2001.
- Rosow, J., "Status and role change through the life cycle", In R. H. Binstock & E. Sh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s*(2nd ed.), New York: Van Nostrand, 1985.
- Schaie, K. W. and Geiwitz, J., *Adults Development and Aging*, Little, Brown and Company, 1982.
- Strawbridge, W. J, Cohen, R. D., Shema, S. J. & Kaplan, G. A., "Successful Aging: Predictors and Associated Activitie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44(2), 1996, pp.135~141.

Strawbridge, W. J., Wallhagen, M. I., & Cohen, R. D., "Successful Aging and Well-Being: Self-Rated Compared With Rowe and Kahn", *The Gerontologist* 42, 2002, pp.727~733.

Von Faber, M., der Wiel, A. B., van Exel, E., Gussekloo, J., Lagaay, A. M., van Dongen, E., Knook, D. L., van der Geest, S., & Westendorp, R. G. J., "Successful Aging in the Oldest Old: Who Can Be Characterized as Successfully Aged?",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61, 2001, pp.2694~2700.

【부 록】

부록 1. 성공적 노화 분석대상 논문 (총 51편)

〈부표 1〉 분석대상 논문 (총 51편)

일련 번호	출간 연도	저자	논문제목
1	1983	김태현 김은선	노후 안정을 위한 청장년의 준비의식
2	1993	최근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재산형성과 관리
3	1995	윤진	성공적 노화와 삶의 질 -한국노인 대상연구에서 고려할 측면들
4	1997	김영선 윤진	중고령 근로자의 성공적인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Baltes 의 성공적인 노화이론 적용
5	1998	안지연 김애순 한광희	성공적 노화를 위한 선택 적정화 보상전략과 대처행동양 식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 청년집단과 주 노년집단을 중심으로 -
6	1999	고양곤	21세기 노인복지 목표와 서비스 전략
7	1999	고양곤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생활화 방안
8	1999	최혜경 문숙재 정순희 조진명 김은경	부양서비스가 노인과 부양자에게 미치는 영향

〈부표 1〉 계속

계재지	권호수	국문주제어	영문주제어	국문초록	영문초록
한국노년학	3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successful aging
한국노년학	13(2)	비해당	비해당	성공적인 노후	successful aging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한국노년학	17(2)	비해당	비해당	성공적인 노화이론	successful aging
	한국심리학회 '98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비해당	비해당	없음	비해당
노인복지연구	여름호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successful aging; healthy aging, productive aging, integrated living
노인복지연구	겨울호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productive aging
한국노년학	19(1)	비해당	비해당	성공적인 노화	successful aging

〈부표 1〉 계속

일련 번호	출간 연도	저자	논문제목
9	1999	김미혜 원영희	새로운 노인이미지정립을 위한 노인광고: 신문매체를 중심으로
10	1999	정경배	21세기의 생산적 노인복지 정책방향
11	2001	김주현 한경혜	노년기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
12	2002	나향진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의 여가에 관한 연구
13	2002	배나래 박충선	홀로된 노인의 성과 이성교제가 노년기 재혼에 미치는 영향
14	2002	홍현방	성공적인 노화와 노인의 종교성 관계 연구
15	2002	박경란 이영숙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16	2002	성혜영 유정현	성공적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
17	2002	최성재	생산적 노화를 위한 복지정책 방향
18	2003	강인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19	2003	김형수	노인부양의 한계와 생산적 고령화 방안
20	2003	홍현방	노인의 영양건강과 성공적인 노화의 관계

〈부표 1〉 계속

게재지	권호수	국문주제어	영문주제어	국문초록	영문초록
한국여성 체육학회지	19(3)	비해당	successful aging	비해당	없음
한국가족 관계학회지	11(2)	성공적인 노화	successful aging	비해당	없음
한국노년학	26(3)	없음	없음	성공적 노화	successful aging
한국노년학	26(2)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한국노년학	26(1)	성공적 노후	Successful aging	성공적 노후	successful aging
한국노년학	26(3)	성공적 노후	successful aging	성공적 노후	successful life types
한국노년학	26(1)	성공적 노후	Successful aging	성공적 노후	successful aging
한국스포츠 리서치	17(3)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없음

〈부표 1〉 계속

일련 번호	출간 연도	저자	논문제목
21	2003	이정화 한경혜	농촌노인의 일과 여가활동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22	2003	하정연 오윤자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선택 적정화 보상책략 관련 변인 연구
23	2003	홍현방 최혜경	성공적인 노화 정의를 위한 문헌연구
24	2003	전혜정	노년기 비공식적 지원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5	2003	김상호 김형수	빈곤노인의 생산적 고령화 방안에 관한 연구
26	2003	유경 민경환	노년기 정서 경험과 적응의 특성: 정서최적화
27	2003	이미숙	노인의 건강한 장수를 위한 활동체력의 검사항목 선정 및 평가척도
28	2003		노년기 조망 : 중년 세대의 "성공적 노화"/제보자들의 노년기 조망 - "성공적 노인상"
29	2004	전혜정	한국 노인의 비공식적 지원제공과 정신건강
30	2004	강유진	중년후기 한국 여성의 노년기 전환기 경험
31	2004	김미혜 임연옥 권금주 김혜선	성공적 노후를 위한 한국 노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기대
32	2004	나향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여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부표 1〉 계속

계제지	권호수	국문주제어	영문주제어	국문초록	영문초록
한국노년학	19(2)	비해당	비해당	없음	없음
한국노년학	19(3)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한국노년학	21(2)	비해당	비해당	없음	successful aging
노인복지연구	겨울호	비해당	비해당	없음	successful aging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없음
한국노년학	22(3)	성공적인 노화	successful aging	성공적인 노화	successful aging
한국노년학	22(3)	성공적 노화	Successful aging	성공적 노후	successful aging
한국노년학	22(2)	성공적 노화	successful aging	성공적 노화	successful aging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노인복지연구	20	성공적 노화	비해당	성공적 노화	successful aging
노인복지연구	22	생산적 고령화	productive aging	생산적 고령화	productive aging
노인복지연구	21	성공적인 노화	successful aging lifestyle	성공적인 노화	successful aging

〈부표 1〉 계속

일련 번호	출간 연도	저자	논문제목
33	2004	전혜정	미국노인의 사회적 지원제공과 정신건강
34	2004	윤순덕 한경혜	농촌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
35	2004	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인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경험
36	2005	홍현방	생산활동 수준이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
37	2005	백지은 최혜경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유형 및 예측요인
38	2005	최혜경 백지은 서선영	노인들의 인식을 통한 한국적인 성공적 노화의 개념
39	2005	박수경 문수경	성공적 노화를 위한 신체 장애노인의 심리적 임파워 먼트 관련 요인 연구
40	2005	김미혜 신경림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41	2005	윤순덕 박공주 강경하	노년기 농업노동의사회복지비용 절감효과분석
42	2005	정순희	노인의 생산활동수준 및 관련변수의 분석: 한국과 캐나다의 비교
43	2005	고대선 원영신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의 의미

〈부표 1〉 계속

게재지	권호수	국문주제어	영문주제어	국문초록	영문초록
농촌사회	13(1)	없음	없음	노년기 생산적 활동	successful aging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21(2)	성공적 노화	successful aging	비해당	successful aging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21(2)	성공적인 노화	successful aging	비해당	successful aging
한국노년학	23(4)	생산적 노화	productive aging	없음	없음
한국노년학	23(3)	생산적 고령화	productive aging	생산적 고령화	productive aging
한국심리학회지	22(2)	없음	없음	없음	successful aging
한국체육학회지	42(2)	successful aging	비해당	비해당	successful aging
	여성 가족생활 연구보고서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노인복지연구	26	생산적 노화	productive aging	없음	없음
대한가정학회지	42(7)	성공적 노화	successful aging	비해당	없음
한국가족복지학	13	성공적 노후	successful aging	성공적 노후	successful aging
한국노년학	24(1)	없음	없음	없음	successful aging

〈부표 1〉 계속

일련 번호	출간 연도	저자	논문제목
44	2005	원형중	우리나라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여가정책
45	2006	정순희 최혜경	한국노인과 캐나다노인의 여가활동시간 관련변수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
46	2006	전지원 박미석	노인의 직업활동 참여동기, 직업만족도 및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인과모형 분석
47	2006	강상경 전해숙	노화와 자아개념의 궤적: 관련된 건강, 심리 및 사회적 영역들에 관한 성장모델을 이용한 분석
48	2006	김미혜 신경림 최혜경 강미선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9	2006	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 인	고령화 한국사회의부양체계구축을 위한 연구: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별 부양체계 분석을 통하여
50	2006	성혜영 조희선	Rowe와 Kahn 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성공적 노화모델
51	2006	이미숙	노후의 높은 삶의 질 유지를 위한 평생체육의 역할

〈부표 1〉 계속

계재지	권호수	국문주제어	영문주제어	국문초록	영문초록
한국노년학	24(1)	성공적 노화	successful aging	없음	없음
한국노년학	24(2)	성공적 노화	successful aging	없음	없음
한국노년학	24(2)	성공적 노후	Successful aging	성공적 노후	Successful aging
노인복지연구	29	성공적인 노화	successful aging	성공적인 노화	successful aging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23(3)	성공적인 노화, 성공적인 노화 유형	successful aging, successful aging types	비해당	successful aging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23(2)	성공적인 노화	successful aging	비해당	successful aging
한국노년학	26(1)	성공적 노화	successful aging	성공적 노화	없음
한국노년학	25(2)	성공적 노후	Successful aging	성공적 노후	successful aging
한국노년학	25(2)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한국노년학	25(2)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한국사회 체육학회지	24	비해당	successful aging	비해당	successful aging

부록 2. 기존연구에서 나타난 성공적 노화 지표들

〈부표 2〉 성혜영·유정현, (2002) “성공적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 Q 방법론적 접근

	진술문
Rowe and Kahn	<p>성공적 노화는 정신적 기능이 높은 상태이다</p> <p>성공적 노화는 신체적인 기능이 높은 상태이다.</p> <p>노인도 적극적으로 인생에 참여해야 한다</p> <p>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을 통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p> <p>성공적인 노화는 보통의 노화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p> <p>노후에는 다른 사람들과 잘 관계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p> <p>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p>
SOC 모델	<p>노후에는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p> <p>성공적인 노화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다</p> <p>신체적 기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성공적인 노화를 맞을 수 있다.</p> <p>정신적 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성공적 노화를 방해한다고 생각한다</p> <p>휠체어나 보청기를 이용한다고 해서 성공적 노화를 맞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p>
관련 연구	<p>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가족간의 관계가 중요하다</p> <p>복지혜택이 잘 갖추어진다면 성공적인 노화를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p> <p>노후에도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p>
인터넷 자료 등	<p>성공적인 노화는 오래 사는 것이다</p> <p>부부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소이다</p> <p>노후에 봉사활동을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p> <p>성공적인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준비가 중요하다</p> <p>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가 함께 살아 있어야 한다.</p> <p>노후에도 계속해서 공부해야 한다</p> <p>노후에는 취미를 가지는 것이 좋다</p> <p>노후에는 일하기보다는 편하게 쉬고 싶다</p> <p>재산은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보다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p> <p>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자식들에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p> <p>실버타운에 거주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p> <p>은퇴 이후에도 무언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p>

〈부표 3〉 김미혜·신경림 (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진술문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삶	<p>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계속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몸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다. 매일매일 할 일거리가 있다. 주변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다.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식들의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다. 친, 인척들과 자주 어울린다. 취미, 종교,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나는 여러 종류의 친목모임에 꾸준히 나가고 있다. 비슷한 환경이나 처지의 사람들과 서로 베풀며 산다.</p>
자녀 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p>내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출세하였다. 내가 필요할 때 자녀들이 물질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다. 자녀들이 건강하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화목하게 잘 살고 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자식이 나를 돌봐준다. 내 자녀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켰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살고 있다. 자녀들과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고 있다.</p>
부부 간의 동반자적 삶	<p>우리 부부 모두 건강하다. 우리 부부는 집안일을 서로 같이 한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이해한다.</p>
자기 통제를 잘 하는 삶	<p>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다. 살기 좋은 동네에서 살고 있다.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한다. 몸이 허락하는 한 활동을 계속한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한다.</p>

〈부표 4〉 백지은·최혜경 (2005), 한국노인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진술문
일상의 순조로움	<p>자녀들이 결혼해서 화목하게 잘 살아야 한다 결혼한 자녀들이 이혼, 사별하지 않고 잘 살아야 한다 생활비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잘 살아야 한다 잠을 잘 자야 한다 자녀들과 자주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부부간의 금실이 좋아야 한다 할일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자식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 몸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p>
자기관리	<p>자기개발을 위한 활동이 있어야 한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의 남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한다 움직일 수 있는 한 계속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취미활동하는 데 필요한 돈이 있어야 한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어야 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매일 매일 할 일거리가 있어야 한다</p>
사회적 지원의 확보	<p>자녀가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할 때 자녀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자식들이 노부모를 자발적으로 돌봐주어야 한다 노인을 국가나 사회단체가 돌봐주어야 한다 서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친하게 베풀며 살아야 한다 동네 노인들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p>
과시성	<p>자녀들이 학식이 높아야 한다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출세하여야 한다 자녀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p>

